

SPECIAL EXHIBITION | Goryeo Celadon Shipwreck
高麗青磁 寶物船

고려청자 보물선

강진, 태안, 그리고...



고려청자 보물선
강진, 태안, 그리고...

Goryeo Celadon Shipwreck
高麗青磁 寶物船



고려청자 박물관

강진, 태안, 그리고...

인사말

2007년 7월, 주꾸미가 들어 올린 한 점의 청자로 인해 태안 대섬 수중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충남 태안반도는 물살이 거칠기로 유명하며, 고려 시대부터 운하를 파고자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대섬 수중 발굴 성과로 비취색 고려청자 2만 수천여 점과 선체 일부를 인양하였고, 특히 화물표인 목간의 수습은 역사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직 태안 발굴조사에 대한 정리가 끝나지 않았으나, 태안 수중발굴에 대한 관심과 열기에 부응하고자, 발굴 성과를 보다 신속하게 알리는 특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특별전은 주요 선적품이었던 도자기를 중심으로 기획되었으며, 이 도자기의 생산지와 수취인에 대한 귀중한 열쇠를 간직하고 있는 목간도 함께 전시합니다.

특별전「고려청자보물선-강진, 태안, 그리고...」는 유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연구가 펼쳐질 수 있는 열려 있는 전시입니다. 설원에 처음 내딛는 발자국처럼 새로운 자료 해석과 연구의 장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이 전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다양한 연구 성과들은 차후 발간될 발굴보고서를 더욱 충실히 하는 밑바탕이 되리라 생각하며, 보다 많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기대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발굴유물의 생산지가 강진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까닭에 생산지로의 귀향 순회전시도 기획하였습니다. 끝으로 길고 험난한 수중 발굴조사의 주역인 수중발굴과와 이를 전시로 발현한 전시홍보과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2008. 6. 23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 성낙준

Foreword

July 2007, a piece of celadon that an octopus lifted became the beginning of marine excavation of Dae Island, Tae'an. Tae'an Peninsula, Chungnam is famous for its rough current. As a result of Dae Island marine excavation, more than 20 thousand pieces of jade green color celadon and part of a ship body was recovered. Especially, the recovery of cargo documents on wooden tags will become very precious historical data.

Although the follow up work of Tae'an Excavation is not finalized yet, to respond to the interest and passion for Tae'an marine excavations, we have put together a special exhibition on excavation result in advance.

The special exhibition is planned with a focus on the porcelain which is the major shipment and exhibits the wooden tags that hold precious keys to the place of production and the consignee.

Special exhibition, 「Goryeo Celadon Shipwreck-Gangjin, Tae'an, and...」 is an open exhibition that various interpretations and studies on the relics can be realized. As a mark of first step on the snow field, we hope this would be the place for new interpretation and study.

This special exhibition is also planned an homecoming rotation exhibition to the place of origin since location is clearly found which is Gangjin.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to the marine excavation team, the hero of strenuous and troublesome marine excavation, and the exhibition promotion team for their effort to realize this exhibition.

June 23, 2008
National Maritime Museum, Director
Seong, Nack Jun

SECTION 1. 태안 바다 속, 고려청자 천년의 이야기	006
1-1 고려시대 조운 해로와 태안	
1-2 900년 전, 청자운반선의 항해와 침몰	
1-3 900년 후, 청자운반선의 발견	
1-4 태안 청자운반선의 포장과 선적	
SECTION 2. 태안 청자, 탐진에서 빛어지다	024
2-1 새로운 역사기록, 목간	
2-2 목간으로 읽는 태안의 청자	
SECTION 3. 고려청자 제작의 중심, 강진	042
3-1 강진의 고려청자	
3-2 강진 청자의 생산과 유통	
SECTION 4. 고려청자에 펼쳐진 예술세계	078
4-1 바다를 담은 그릇	
4-2 하늘은 품은 그릇	
4-3 꽃이 담겨진 그릇	
SECTION 5. 고려시대, 생활 속으로	132
5-1 생활 속의 그릇	
5-2 의례용 그릇	
SECTION 6. 부록	170
6-1 특별논고	
충남 태안 대섬 앞바다 수중 발굴조사 개요 - 문원석	
태안 청자운반선 출토 고려 목간 - 임경희	
태안 대섬 해저출토 고려청자의 성격 - 윤용이	
수중발굴 고선박의 하물적재 방법 - 김병근	
고려시대의 청자발우 - 박지영	
6-2 유물목록	

SECTION 1

태안

바다 속,

고려청자

천년의 이야기

- 1-1. 고려시대 조운 해로와 태안
- 1-2. 900년 전, 청자운반선의 항해와 침몰
- 1-3. 900년 후, 청자운반선의 발견
- 1-4. 태안 청자운반선의 포장과 선적



고려시대 태안선 추정 항로



동해

황해

— 태안선 추정 항로
— 서금 항로 (중국 북송시대)

우릉·울릉도 (울릉도)
우산도 (독도)

함계산 (거제도)

탐라

인종12년(1134) 가을7월

이 달에 내시(內侍) 정습(鄭襲)을 시켜 홍주(洪州) 소대현(蘇大縣)에 운하를 굴착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안흥정(安興亭) 아래로 통하는 수로(水路)는 사방에서 모여드는 물살이 거세일 뿐만 아니라 험한 암석이 있어서 왕왕 배가 전복된다 하여 혹자가 건의하기를 소대현 경계에 걸쳐 운하를 파고 물을 끌게 되면 뱃길이 가깝고 편리하다고 하였다. 그리 하여 정습(鄭襲)을 시켜 소대현의 인접 군에 있는 군졸 수천 명을 풀어 운하를 파게 하였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하였다.

是月遣內侍鄭襲明鑿河于洪州蘇大縣
以安興亭下海道爲衆流所激又石之險往往覆舟
或有獻議由蘇大縣境鑿河道之則船行捷利
遣鄭襲明發旁郡卒數千人鑿之竟未就

輪寺 乙亥大雨三日 是月遣內侍鄭襲
明鑿河于洪州蘇大縣以安興亭下海道爲
衆流所激又有岩石之險往往覆舟或有獻
議由蘇大縣境鑿河道之則船行捷利遣襲
明發旁郡卒數千人鑿之竟未就 八月庚

의종 8년(1154) 겨울10월

이 달에 소태현^{蘇泰縣}-충남 서산군 태안-에 운하를
굴착하다가 완공하지 못하였다.

是月開蘇泰縣河渠未卒其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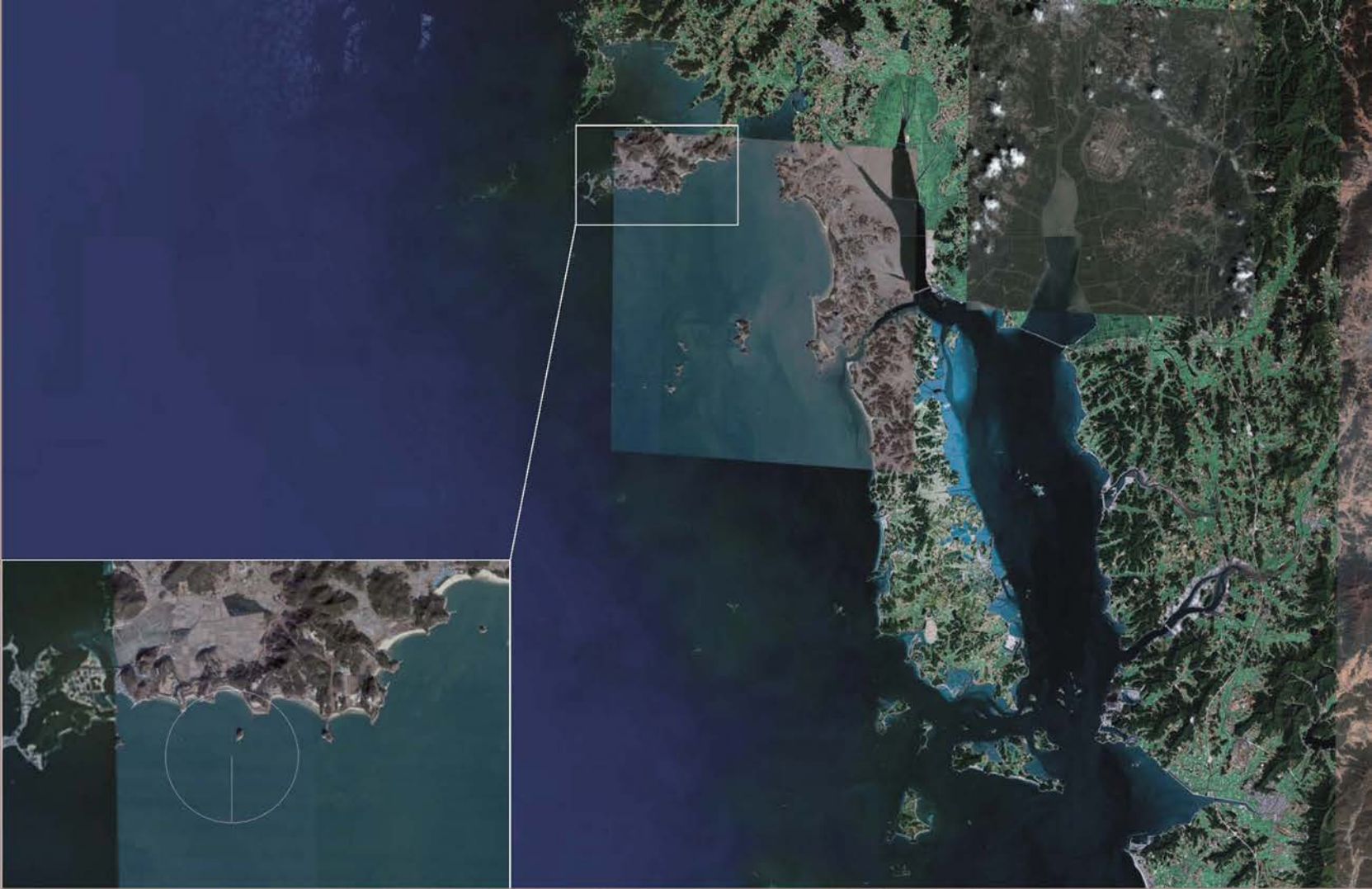
饗老人又飯僧三萬 是月開蘇泰縣河渠
未卒其功 十一月丙寅金遣大府監李珪

1-2. 900년 전, 청자운반선의 항해와 침몰

중심좌표 : 북위 36° 40', 동경 126° 10'

900년 전, 강진에서 만들어진 도자기를 가득 싣고 개경으로 향했다. 하지만 항해 도중 충남 태안 대섬 앞바다에 좌초되었다.

발굴조사 지점은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고(조금시기 : 고조 14m, 저조 8m), 조류가 빠른 해역이다. 해저 지질은 갯벌, 모래, 패각류가 혼합된 상태이며, 수중에서는 여[暗礁]가 확인되어, 항해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 위성사진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대섬 남방해역 (중심좌표 : 북위 36° 40', 동경 126° 10')



▲ 발골지역 전경



▲ 주꾸미와 고려청자

▼ 태안 바다 속 청자 매장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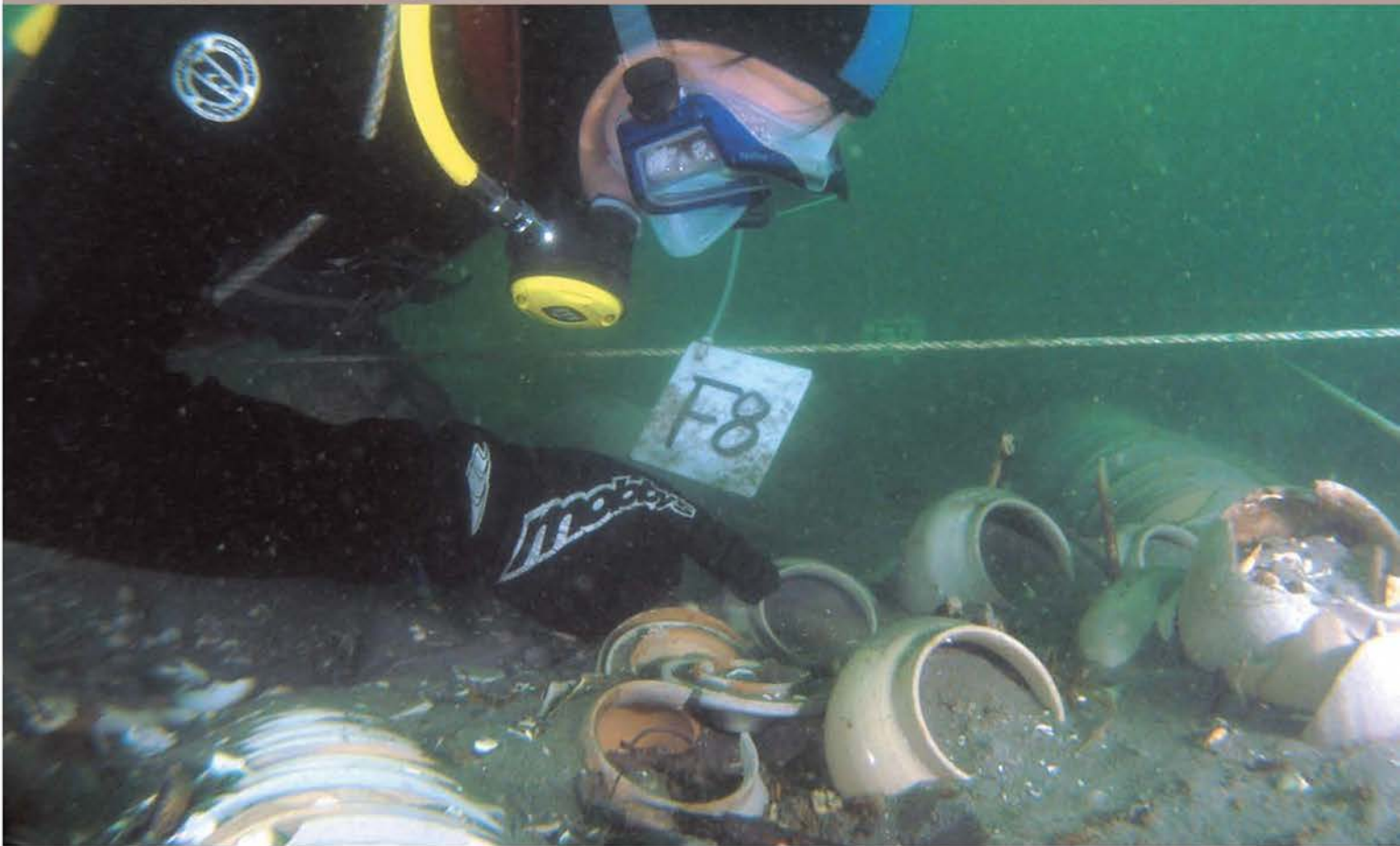
- ◀ Air bag을 이용하여 선체를 부양시키는 모습
- ▶ 운반선을 이용하여 인양한 선체를 운송하는 모습
- ▶ 인양된 태안선(외판 4단)
- ▼ 태안선과 함께 인양된 닻돌 2점





▲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수중 촬영을 하는 모습

▼ 그리드를 설치한 후 수중에서 발굴하는 모습





▲ 철제술과 도기호

▼ 수중에서 건져 올린 청자들





태안 대섬에서 발굴된 도자기는 선체에 적재된 상태로 매몰되어 있었는데, 도자기는 커커이 쌓인 상태로 잘 남아 있었다.





▲ 대접과 접시의 선적상태. 동일한 기종과 기형끼리 묶어서 다량의 기물을 효과적으로 적재하였다.

▼ 잔의 포장. 잔은 뚜껑과 한 조를 이룰 수 있도록 포개어 포장하였다.





- ▲ 과형주자의 포장상태_ 항의 안을 짐으로 채우고 안전하게 과형주자를 넣어서 포장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 ▶ 소호의 포장_ 소호는 가는 원통목을 이용하여 포장 하였다.



SECTION 2

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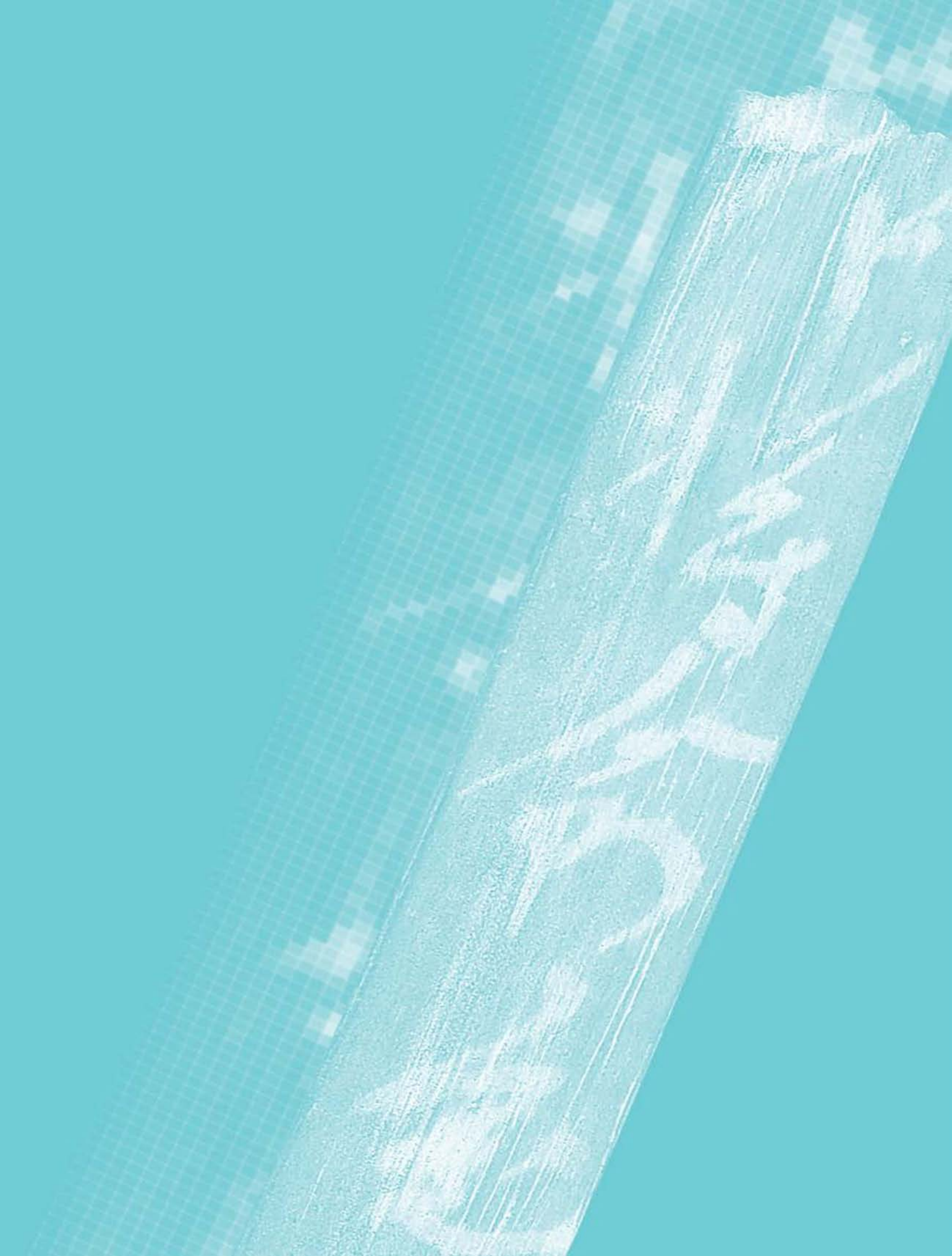
청자,

탐진에서

빛어지다

2-1. 새로운 역사기록, 목간

2-2. 목간으로 읽는 태안의 청자





001

목간 Wooden tag

木簡 | 길이 17.6 | 폭 2.2 | 두께 0.3
중국 원(1323년) | 신안 해저 | 국립중앙박물관

목간에는 1323년에 해당하는 지치삼년^{至治三年}이 적혀있어, 신안선의 출항시기를 알 수 있다.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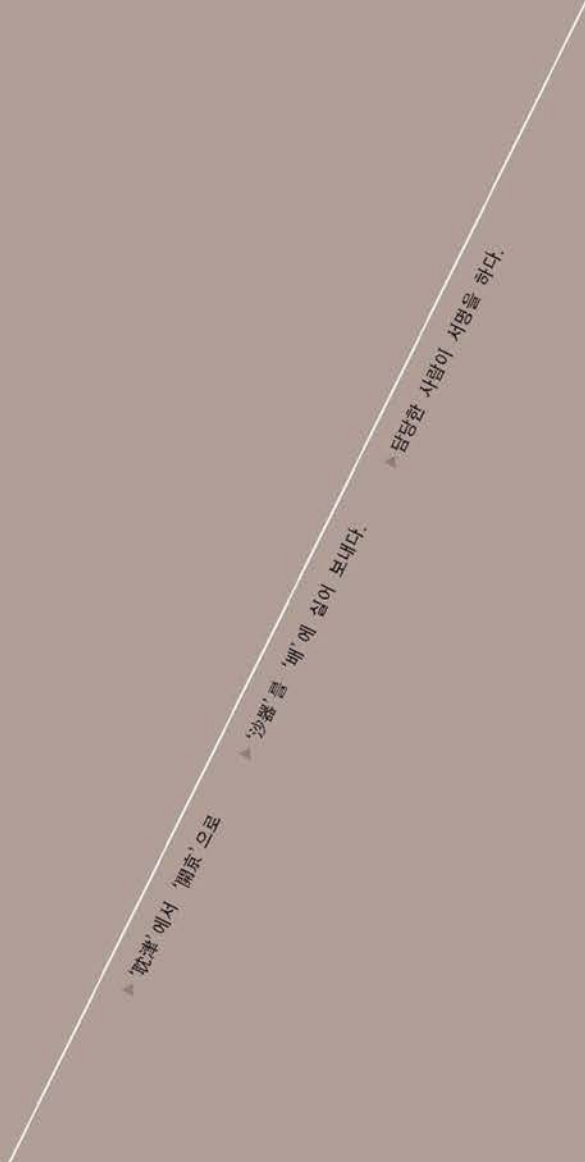
목간 Wooden tag

木簡 | 길이 19.8 | 폭 3.4 | 두께 0.7
중국 원(1323년) | 신안 해저 | 국립중앙박물관

목간에 적힌 하코자키궁^{峯宮}, 조적암^{釣橋}, 동복사^{東福寺} 등을 통해서 신안선이 일본으로 향하던 배였다는 것도 밝혀 낼 수 있었다.



2-2. 목간으로 읽는 태안의 청자



태안 수중 발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려시대 목간이 출토되었다는 점이다. 수중발굴조사에서 목간이 확인된 것은 신안해저 발굴에 이어 두 번째이다. 신안선의 목간이 신안선의 항로와 편년 등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였듯이, 태안 수중발굴의 목간 역시 태안 앞바다에 침몰된 선박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태안에서는 목간 형태를 갖추고 명문이 적혀 있는 것과 도자기를 포장할 때 사용한 채기목에 수결이 적혀 있는 것, 두 종류가 확인되었다. 목간에는 이 배의 선적품이었던 도자기의 제작지와 이 도자기를 실은 배가 향하던 목적지 등이 기록되어 있다.

▶ ‘耽津’에서 ‘開京’으로

목간의 ‘耽津’은 전남 ‘康津’일대의 옛 이름으로, 고려 때 영암靈岩·장흥長興 등으로 이속移屬되었다가 1417년(태종 17)에 도강현道康縣과 합하여 강진군이 되었다.

수취인이나 중개인으로 여겨지는 대정인수隊正守와 안영호安永戶는 모두 서울후인 개경에 있다고 목간에 기록되어 있어 태안에서 발견된 선박이 탐진에서 개경을 향하던 중에 난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沙器’를 ‘배’에 실어 보내다.

배에 실려 있던 것을 사기‘沙器’, ‘砂器’라고 적고 있어서 고려시대 청자를 일컬어 ‘사기’라고 칭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서경의 고려도경高麗圖經 등의 문헌기록 등에 나타는 청자‘靑磁’ 자기‘磁器’ 등과 함께 사기‘沙器’, ‘砂器’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자기의 포장 단위를 과폭, 외폭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배에 선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 담당 한 사람이 서명을 하다.

목간과 뼈기목 중에 동일한 서명(수결手訣)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담당자 또는 보내는 사람, 대리인이 포장·선적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고 서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003

목간 Wooden tag

木簡 | 길이 37.7 | 폭 4.4 | 두께 0.8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壬□□□京安永戶付沙器一裹

서울의 안영 호에 사기 한 꾸러미를 보낸다.



X-Ray 사진



004

목간 Wooden tag

木簡 | 구경 29.4 | 폭 3.2 | 두께 0.9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耽津亦在京隊正仁了守付砂器八十
탐진에서 개경에 있는 대정 인수에게 도자기 팔십을 보낸다.

(뒷면) 卽(式)載船長수결
앞의 수량대로 실었다. 선장 수결



X Ray 사진

005

목간 Wooden tag

木簡 | 길이 17.3 | 폭 2.1 | 두께 1.0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耽津亦在京隊正

탐진에서 서울에 있는 대정



X Ray 사진

006

목간 Wooden tag

木簡 | 길이 29,4 | 폭 3,2 | 두께 0,9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隊正仁守了付砂器壹畏印
대정 인수에게 사기 한 의(畏)를 보낸다.

(뒷면) 卽(式)載船長수결
앞의 수량대로 실었다. 선장 수결



X Ray 사진

007

목간 Wooden tag

木簡 | 길이 29.0 | 폭 4.0 | 두께 1.0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安永戶付沙器一裹

안영 호에 사기 한 꾸러미를 보낸다.



X Ray 사진

008

목간 Wooden tag

木簡 | 길이 26 | 폭 4 | 두께 0.8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崔大卿宅上

최대경 댁에 올린다.



X Ray 사진

009

목간 Wooden tag

木簡 | 길이 15.5 | 폭 1.8 | 두께 0.8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柳)將命宅上砂器印

(유)장명 덕에 사기를 올린다.



X Ray 사진



010

목간 Wooden tag

木簡 | 길이 10 | 폭 3.8 | 두께 0.4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了付砂器壹畏

사기 한 의(畏)를 보낸다.

(뒷면) 수결



X Ray 사진

011

목간 Wooden tag

木簡 | 구경 29.7 | 폭 3.2 | 두께 0.9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上卅七下卅

위에는 37을, 아래에는 20을...

X Ray 사진



012

목간 Wooden tag

木簡 | 길이 22.7 | 폭 3.1 | 두께 0.6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수결의 위 아래로 ×와 ○흔이 있는 목간



X Ray 사진

013

썰기목 Wedge

權 | 길이 37.3 | 폭 4.1 | 두께 1.1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수결이 있는 썰기목



X Ray 사진



014

췘기목 Wedge

櫂 | 길이 28.9 | 폭 4.1 | 두께 0.9
고려 12세기 | 태안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수결이 있는 췘기목



X Ray 사진

SECTION 3

고려청자

제작의

중심,

강진

3-1. 강진의 고려청자

3-2. 강진 청자의 생산과 유통





015

청자 파편 Celadon fragments

靑磁片

고려 | 강진 용운리 | 강진청자박물관

용운리(9, 50, 28호) 지표에서 수습된 출토된 도편들이다. 한국식 해무리굽 완, 뚜껑모양의 접시, 환조연판문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유물들이다. 용운리는 주로 고려 전반기의 요지가 중심을 이루지만, 용운리 10호와 같이 중기에 해당되는 요지들도 있다. 용운리 9호와 10호 가마의 발굴조사 결과는 고려청자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016

청자 파편 Celadon fragments

靑磁片

고려 | 강진 계율리 | 강진청자박물관

계율리(13, 37호) 지표에서 수습된 청자 파편과 초벌편이다. 본격적인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비교적 이른 시기의 유물에서부터 14세기 팔각접시, 상감접시까지 지표에서 두루 수습되었다.

017

청자 파편 Celadon fragments

靑磁片

고려 | 강진 사당리 | 강진청자박물관

사당리(7, 23호)에서 수습된 청자 파편들이다. 사당리의 청자는 강진 청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 품질의 청자들이 생산되었다. 사당리는 고려중기와 후기에 청자 생산이 크게 활성화 되었는데, 중기에 왕실 등으로 공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청자들도 확인된다. 저부에 「〇」의 표식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규석받침을 사용하여 번조하였다. 이밖에도 음각, 양각, 상감기법 등이 능숙하게 사용되었다.



018

청자 파편 Celadon fragments

靑磁片

고려 | 강진 사당리 | 강진청자박물관

사당리 10호에서 출토된 청자 파편들로, 고려후기인 14세기 경에 해당된다. 상감토(象嵌土)를 감입하기 위해서 문양을 하나하나 조각하지 않고, 도장을 이용하여 반복적인 문양을 편리하게 시문하였다. 상감 분청사기의 단계로 이행해가는 양상을 잘 보여주는 연꽃넉쿨무늬(蓮唐草文) 대접도 수습되었다.





019

청자 파편 Celadon fragments

靑磁片

고려 | 강진 수동리 | 강진청자박물관

수동리(1, 2, 4호) 지표에서 수습된 유물들이다. 수동리 역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명확한 양상을 알 수 없지만, 지표에서 수습된 유물을 볼 때, 비교적 이른 시기에도 청자 제작이 이루어졌으며, 후기에 상감청자도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020

청자 파편 Celadon fragments

靑磁片

고려 | 강진 삼흥리 | 강진청자박물관

삼흥리(2, 4호)에서 수습된 유물들이다. 삼흥리는 파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기의 유물이 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최근 삼흥리 발굴을 통해서 12세기경에도 청자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 강진 용운리 9호·10호 원경사진 (1980년, 이용희 사진제공)

전 기

021

청자 완 Celadon bowl

再磁 鉢 | 높이 5.3

고려 11세기 | 강진 삼흥리 E지구 | 국립광주박물관

전기에는 용운리, 삼흥리를 중심으로 계율리, 사당리 일부에는 해무리굽 청자완과 뚜껑모양의 접시 등이 생산되었다.



022

청자 접시 Celadon dish

靑磁 模範 | 높이 3.7

고려 10세기 | 강진 용운리 9호 | 국립광주박물관



중 기

023

청자 연꽃모양 향로

Celadon lotus shaped incense burner

靑磁蓮花形 香爐 片 | 높이 8.3

고려 12세기 | 강진 | 개인

12~13세기에 걸쳐서는 용운리 일대와 사당리, 계율리 일대에서 전성기의 청자들이 제작되었다. 이 시기의 강진청자가 고려청자를 대표하는 최상급의 청자들이다.





024

청자 모란무늬 매병

Celadon bottle, Maeyeong with incised peony design

靑磁陰刻牡丹文梅瓶 片

고려 12세기 | 강진 사당리 23호 | 강진청자박물관

025

청자 모란무늬 판

Celadon plate with inlaid peony design

靑磁象嵌牡丹文 板 片 | 잔존 11.0

고려 13세기 | 강진 사당리 | 강진청자박물관



후 기

026

청자 '기사리' 명 대접

Celadon bowl with inlaid inscription of '기리'

青磁象嵌 '기리' 銘柳蘆水禽文 大椀 | 높이 5.5

고려 1329 | 강진 사당리 | 강진청자박물관

13세기를 지나 14세기에 이르면 고려청자가 점차 간소화되고 쇠퇴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기물의 안바닥에 간지_支호를 새겨 넣기도 하였다. 계율리, 사당리 등에서 14세기 고려청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027

청자 '정해丁亥' 명 파편

Celadon fragment with inlaid inscription of '丁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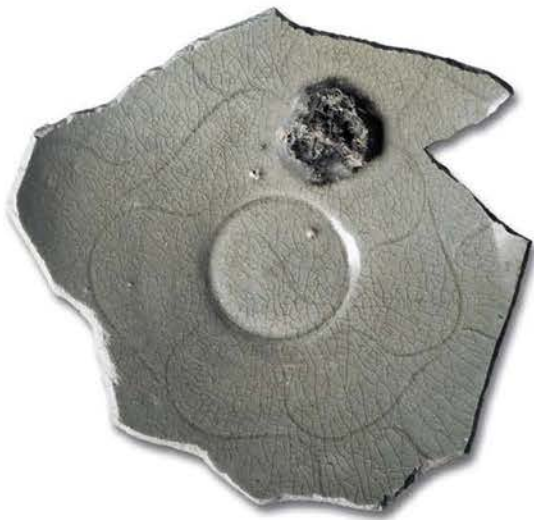
再磁象嵌 丁亥 銘片 | 높이 6.7

고려 1347 | 강진 사당리 | 강진청자박물관



파도무늬

완의 내면에 파도 물결을 가득 표현하였다. 마름모 형태의 물결과 그 안에 가는 음각선으로 세부를 표현하였다. 강진 출토의 파도문은 파도의 형태가 조금 더 곡선으로 처리되었으나, 안바닥의 표현 방식이나 세부적인 형태는 유사하다. 번조반침에 있어서도 2점 모두 백색의 내화토 빛음을 사용하여 번조하였다.



028

청자 파도무늬 완

Celadon bowl with incised wave design

靑磁陰刻波濤文 鉢 | 높이 3.8

고려 12세기 | 강진 용운리 23호 | 강진청자박물관

029

청자 파도무늬 완

Celadon bowl with incised wave design

靑磁陰刻波濤文 鉢 | 구경 15.3 | 저경 3.9 | 높이 5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앵무새 무늬

앵무새무늬는 12세기경의 고려청자 대접이나 접시에 빈번한 문양소재로 등장하는데, 긴 꼬리와 타원형의 머리가 커다란 반원을 그리고 있으며, 구부러진 부리의 형태가 앵무새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3 점 모두 동일한 구도로, 앵무새 두 마리가 서로 꼬리를 물 듯 반시계 방향으로 날고 있다.



030

청자 앵무새무늬 접시 초벌 편

Celadon dish with parrot design

再磁場刻鵝文 標匙 | 높이 3.9

고려 12세기 | 강진 사당리 7호 | 강진청자박물관

031

청자 앵무새무늬 접시

Celadon dish with parrot design

再磁場刻鵝文 標匙 | 높이 3.7

고려 12세기 | 강진 삼흥리 E지구 | 국립광주박물관



032

청자 앵무새무늬 접시

Celadon dish with parrot design

再磁場刻鵝文 標匙 | 구경 16.1 | 저경 5 | 높이 8.5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연꽃잎 무늬

연꽃잎 무늬는 고려청자에 오랜 기간동안 꾸준히 사용된 무늬이며, 시기에 따라 무늬를 새기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2점 모두 양각으로 연꽃잎을 도드라지게 조각하여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번조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강진에서 출토된 연꽃잎무늬 대접은 규석받침을 사용하였으나 태안선 출토의 연꽃잎무늬 대접은 백색의 내회토 빛음을 사용하였다.



033

청자 연꽃잎무늬 대접

Celadon bowl with incised lotus-petal design

靑磁陽刻蓮瓣文 大椀 | 구경 16.7 | 저경 6 | 높이 7.5
고려 12세기 | 강진 용운리 62호 | 강진청자박물관

034

청자 연꽃잎무늬 대접

Celadon bowl with incised lotus-petal design

靑磁陽刻蓮瓣文 大椀 | 구경 16.1 | 저경 4.9 | 높이 8.5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연꽃 무늬

연꽃 무늬 역시 고려청자의 문양 소재로 단연 손꼽히는 대표적인 무늬이다. 음각이나 양각, 상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꽃을 표현하였는데, 3점의 소형접시들은 모두 도법陶範이라는 틀을 이용하여 찍어낸 것이다.

035

청자 연꽃무늬 소접시

Celadon flower shaped dish with pressed lotus design

靑磁陽刻蓮花文 小碟匙 | 저경 3.9 | 높이 3.5
고려 12세기 | 강진 용운리 25호 | 강진청자박물관



036

청자 연꽃무늬 소접시

Celadon flower shaped dish with pressed lotus design

靑磁陽刻蓮花文 小碟匙 | 높이 2.7
고려 12세기 | 강진 용운리 10호 | 국립광주박물관



037

청자 연꽃무늬 소접시

Celadon flower shaped dish with pressed lotus design

靑磁陽刻蓮花文 小碟匙 | 구경 9.8 | 저경 4.5 | 높이 2.3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국화넝쿨 무늬

국화넝쿨 무늬를 도범을 이용하여 찍어낸 청자완이다. 활짝 피어 있는 국화송이들과 그 밖에 넝쿨이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국화넝쿨을 압출양각으로 표현한 완은 강진과 부안지역에서만 확인되는데, 질이 좋은 청자에만 시문되는 고급의 문양 도안이다.



038

청자 국화넝쿨무늬 완

Celadon bowl with pressed chrysanthemum scroll design

靑磁陽刻菊唐草文 盥 | 구경 15.8 | 저경 4 | 높이 5.6
고려 12세기 | 강진 계율리 42호 | 강진청자박물관

039

청자 국화넝쿨무늬 완

Celadon bowl with pressed chrysanthemum scroll design

靑磁陽刻菊唐草文 盥 | 구경 15.6 | 저경 3.6 | 높이 5.1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국화넙쿨 무늬

국화넙쿨 무늬를 음각으로 시문하는 경우도 있다. 둥근 형태의 완 외면에 큼직하게 국화넙쿨 무늬를 새겨 놓았다. 문양을 음각으로 매우 가늘고, 섬세하게 그려 넣었다. 내면에는 빗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물결 무늬를 표현하였다. 강진 출토 완의 중앙에는 물결이 소용돌이 치는 포말(泡沫)이 표현되어 있는데, 태안산 출토 완은 결실되어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강진 출토 완과 다른 전해지는 유물들을 통해서 동일한 형태와 문양의 완임을 알 수 있다.

040

청자 국화넙쿨무늬 완

Celadon bowl with incised chrysanthemum scroll design

靑磁陰刻菊唐草文 盥 | 높이 6.1

고려 12세기 | 강진 용운리 10호 | 국립광주박물관

041

청자 국화넙쿨무늬 완

Celadon bowl with incised chrysanthemum scroll design

靑磁陰刻菊唐草文 盥 | 잔존 9.8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꽃모양 접시

작은 꽃모양의 접시이다. 접시의 구연부에 흠을 내어 접시가 활짝 핀 한 송이의 꽃처럼 표현하였다. 태안에서 출토된 꽃모양 접시는 내면에 양각의 선으로 꽃잎을 보다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042

청자 꽃모양 접시

Celadon flower shaped dish

靑磁花形 擘盥 | 높이 2.2
고려 12세기 | 강진 용운리 10호 | 국립광주박물관

043

청자 꽃모양 접시

Celadon flower shaped dish

靑磁花形 擘盥 | 구경 10.8 저경 3.1 | 높이 2.5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퇴화장식 꽃모양 접시

꽃모양으로 구연부에 흠을 낸 접시의 내면에 백토를 이용하여 구획하여 꽃잎을 표현하였다. 강진에서 출토된 접시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기물을 포개구우면서 서로 붙은 것으로 퇴화장식 꽃모양 접시를 가장 위에 올려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태안에서는 여러 가지 기형의 퇴화장식 접시가 출토되었는데, 문양구성은 동일하다.

044

청자 퇴화장식 접시

Celadon thickly painted a dish

靑磁堆花文 碟匙 | 저경 4.3

고려 12세기 | 강진 계율리 37호 | 강진청자박물관



045

청자 퇴화장식 접시

Celadon thickly painted a dish

靑磁堆花文 碟匙 | 구경 13.6 | 저경 3.6 | 높이 3.8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철화장식 당초무늬 잔 뚜껑

태안 출토 청자에 철화가 사용된 기물은 잔과 잔뚜껑, 소접시이다. 이 중에서 당초문은 강진의 요지에서 확인된다. 철화청자는 강진 이외의 지역에서도 생산되지만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철화청자는 유색이 황색 빛이 돈다. 이에 반하여, 강진에서 생산된 철화청자는 푸른 빛을 띠고 있다. 태안에서 출토된 철화청자들의 유색은 강진 청자의 유색과 유사하다.



046

청자 철화장식 잔 뚜껑

Celadon cup cover with underglaze iron-painted

靑磁鐵畫文 盞蓋 | 잔존 2.7

고려 12세기 | 강진 용운리 10호 | 강진청자박물관

047

청자 철화장식 잔 뚜껑

Celadon cup cover with underglaze iron-painted

靑磁鐵畫文 盞蓋 | 구경 10.3 | 높이 3.3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유병

태안 출토의 유병 대부분은 무게중심이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교적 세장한 형태이다. 구연부는 광구(廣口)형으로 제작되어 있다. 강진에서 제작된 유병 중에도 이러한 세장한 형태들이 있으며, 백색 내화토빛음을 사용하여 번조한 점도 동일하다.

048

청자 병

Celadon bottle fragment

靑磁 油瓶 | 높이 7.3

고려 12세기 | 강진 삼흥리 E지구 | 국립광주박물관



049

청자 병

Celadon bottle

靑磁 油瓶 | 높이 8.6

고려 12세기 | 강진 용운리 10호 | 국립광주박물관



050

청자 병

Celadon bottle

靑磁 油瓶 | 구경 3.1 | 저경 7.2 | 높이 2.8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백자합

태안에서 출토된 도자기 2만 3천여 점 중에, 백자는 단 1점만 출토되었다. 출토된 백자는 주름무늬 합 의 몸체이다. 조형이 매우 뛰어나며 유약에서 담청색이 감도는 고려백자이다. 이와 동일한 형태의 백자합 뚜껑이 강진 사당리에서 출토된 바 있다.

051

백자 합

White porcelain case

白磁 盒身 | 구경 6.8 | 저경 5.7 | 높이 2.5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개성 만월대 발굴지역 전경 (開成 滿月臺 發掘地域 全景)_ 전경만월대는 개성시 송악산 남쪽 기슭에 있는 고려시대의 왕궁지(王宮址)로 북한 국보 문화유물 제122호로 지정되어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제공)



▲ 만월대 발굴지역 근경(滿月臺 發掘地域 近境)_ 현재 남북공동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발굴지역의 모습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제공)



▲ 만월대 출토 고려청자(满月臺 出土 高麗靑磁)_ 만월대에서 대접, 접시, 배계, 의자 등의 청자 파편이 출토되었다. 규석이나 내화토를 번조받침으로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기법으로 문양을 장식하였다. 대부분이 강진이나 부안에서 12~13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제공)



▲ 특이한 형태의 고려청자(異形 靑磁)_ 만월대에서 출토된 65cm 정도의 길쭉한 원통형 청자는 지금까지 보고된 바 없는 기형으로, 명칭은 물론 그 기능도 알 수 없다. 외면에는 꽃 무늬로 화려하게 음각하여 장식하였는데, 이러한 청자를 제작할 수 있었던 곳은 강진과 부안 지역뿐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제공)



056

청자 기와 Celadon tile

靑磁 瓦 | 길이 20.3

고려 1157년경 | 강진 사당리 | 국립중앙박물관

사당리나 삼흥리 등의 강진에서 청자기와 제작되어 개경의 고려 궁터로 공급되었음을 유물과 고려사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高麗史》卷18, 世家18, 毅宗 11年(1157) 4月 "關東離宮成, 宮曰壽德曰天寧…… 毀民家五十餘區 作大平亭, 命太子書額 旁植名花異果 高麗珍玩之物布列左右 亭南鑿池 作觀洞亭 其北構養怡亭 盖以靑磁 "

056

청자 기와 Celadon tile

靑磁 瓦 | 잔존 5.8

고려 12세기 | 강진 삼흥리 E지구 | 국립광주박물관

고려사 기록도 확인되는 청자기와는 강진 삼흥리 E지구에서도 출토되었다.



傳 인증장릉 유물

경기도 장단군長湍郡 장도면長道面에 있는 고려 인종仁宗의 장릉長陵에서 황통6年皇統六年(1146)명 시책冊과 함께 출토된 유물이다.

전 인증장릉 유물로 전해지는 유물이 여러 점 있으나, 노모리견野守健의 『고려도자의 연구高麗陶磁の研究』에서 청자병靑磁甁, 청자국회모양합靑磁文菊形盒子, 뚜껑이 있는 청자완靑磁文蓋付碗, 청자사각모양받침靑磁文隅入方臺 등 4점 만을 전 인증장릉 출토 유물로 소개하였다.

054

청자 참외모양 병

Celason melon shaped bottle

靑磁瓜形 甁 | 구경 8.8 | 저경 8.8 | 높이 22.7
1146년 하한 | 전 인증장릉 | 국립중앙박물관



055

청자 국화모양 합

Celadon chrysanthemum shaped case

靑磁菊形 盒 | 높이 9.4

1146년 하한 | 전 인종장릉 | 국립중앙박물관



056

청자 사각모양 합

Celadon Square shaped case

靑磁方形 盒 | 넓이 15.5 | 높이 8.6

1146년 하한 | 전 인종장릉 | 국립중앙박물관



사각모양 받침^形으로 통칭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형태의 기물을 여러개 포개서 사용하는 합^盒의 용도임이 밝혀졌다.

057

청자 잔 Celadon cup with a lid

再磁 盞 | 구경 10 | 높이 9.7

1146년 하한 | 전 인종장릉 | 국립중앙박물관

전 인종장릉 출토 유물로 잔과 뚜껑이 한 조를 이룬다. 잔의 높이가 높지 않으며, 형태와 굽처리가 단정하다. 뚜껑의 윗 부분은 둥근 곡선을 이루며, 중앙부에 연꽃봉오리 형태의 손잡이가 달려있다.





058

청자 잔 Celadon cup with a lid

靑磁 盞 | 구경 11 | 저경 4.2 | 높이 7.2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태안에서 출토된 청자잔은 잔의 높이가 높지 않고, 12세기 후반 이후에 다량 출토되는 높이가 높고, 연판문이 장식되는 통형의 잔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굽은 낮고 단정하게 처리하였으며, 백색의 내화토 받침을 사용하여 번조하였다.

뚜껑의 손잡이는 둥글게 말려있는 형태와 연꽃봉오리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출토되었다.

059

청자 잔 뚜껑 Celadon lid

靑磁 蓋 | 구경 11.5 | 저경 8.8 | 높이 3.2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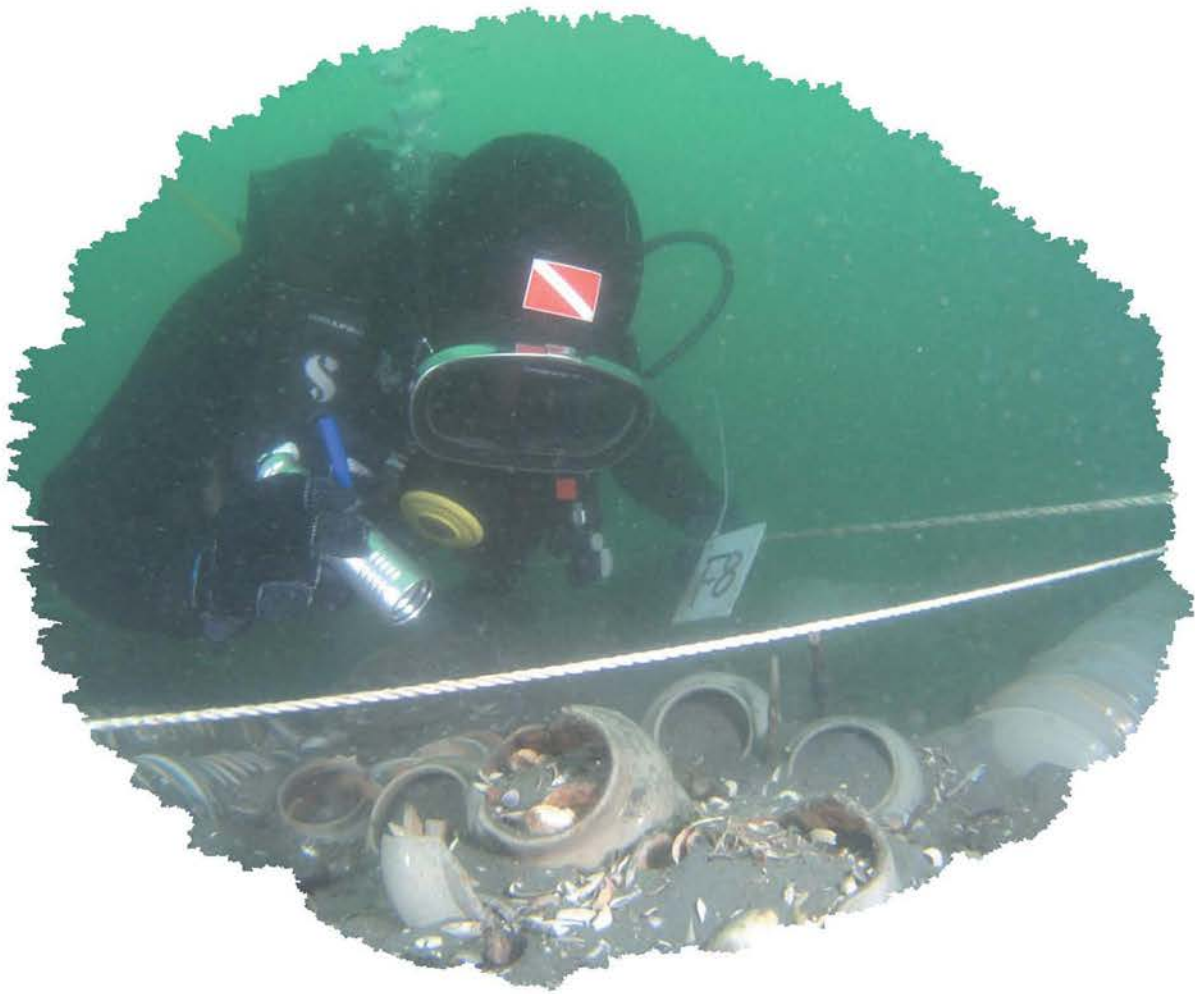


060

청자 잔 뚜껑 Celadon lid

靑磁 蓋 | 구경 10 | 저경 7.2 | 높이 3.5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SECTION 4

고려

청자에

펼쳐진

예술세계

4-1. 바다를 담은 그릇

4-2. 하늘을 품은 그릇

4-3. 꽃이 담겨진 그릇

061

청자 파도무늬 완

Celadon bowl with incised wave design

靑磁陰刻波濤文 盃 | 구경 15.3 | 저경 3.9 | 높이 5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완의 내면에 파도 물결을 가득 표현하였다. 마름모 형태의 물결과 그 안에 가는 음각선으로 세부를 표현하였다. 가늘게 시문된 여러 줄의 음각선은 빛과 같은 도구를 이용한 것이다. 태안에서는 파도무늬가 나타나는 기종은 완이며, 비교적 질이 좋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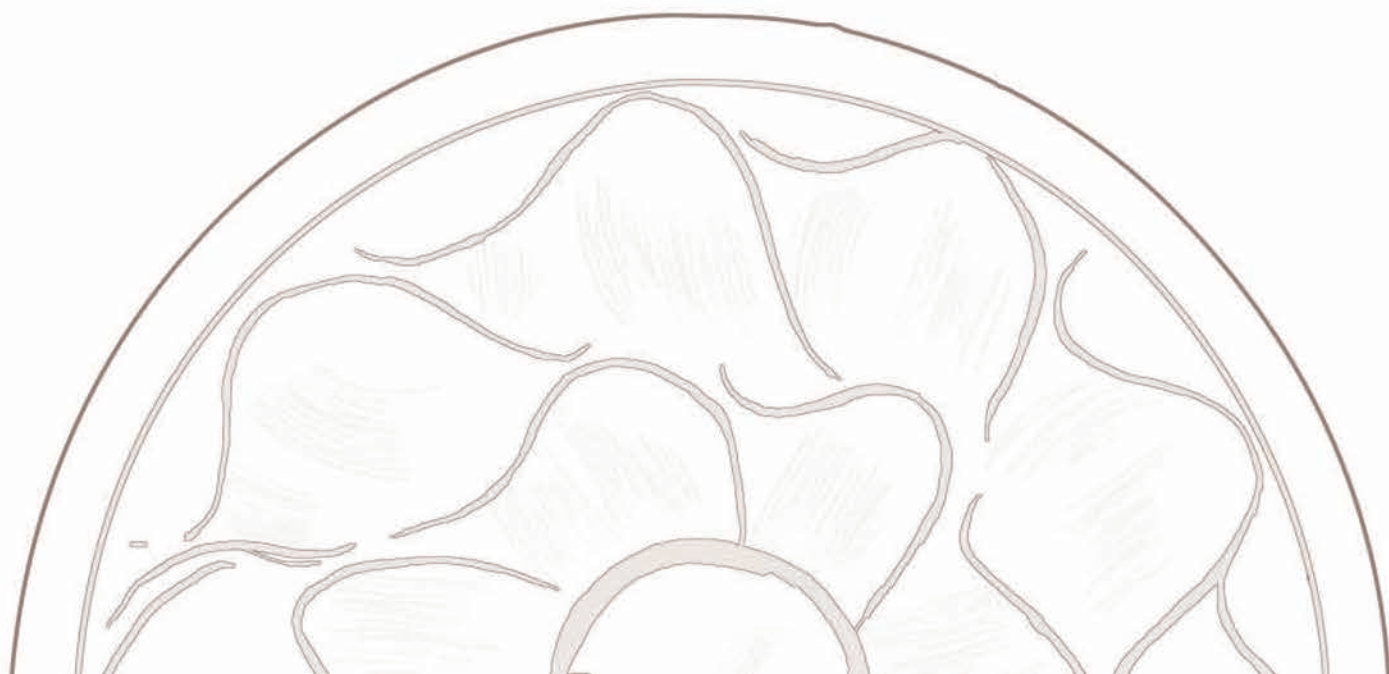
062

청자 파도무늬 완

Celadon bowl with incised wave design

靑磁陰刻波濤文 鉢 | 구경 15.3 | 저경 3.9 | 높이 5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63

청자 파도물고기무늬 완

Celadon bowl with incised wave and fish design

靑磁陰刻波魚文 盥 | 구경 15.3 | 저경 3.9 | 높이 4.9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완의 내면에 파도 물결을 가득 표현하였다. 마름모 형태의 물결이 둥글게 표현되어 있으며, 파도무늬 완에 나타나던 물결 안의 가는 음각선은 생략되었다. 물결 위에 물고기 두 마리가 배치되어 있다. 비교적 세장한 형태의 물고기들은 비늘을 #형태로 단순화하여 표현하였다.



064

청자 파도물고기무늬 완

Celadon bowl with incised wave and fish design

靑磁陰刻波魚文 鉢 | 구경 15.3 | 저경 3.9 | 높이 4.7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마름모 형태의 물결에 가는 음각선은 생략되었다. 물고기들은 매우 세장한 형태이며, 형태가 매우 단순하게 묘사되었다. 물고기의 비늘은 ///형태로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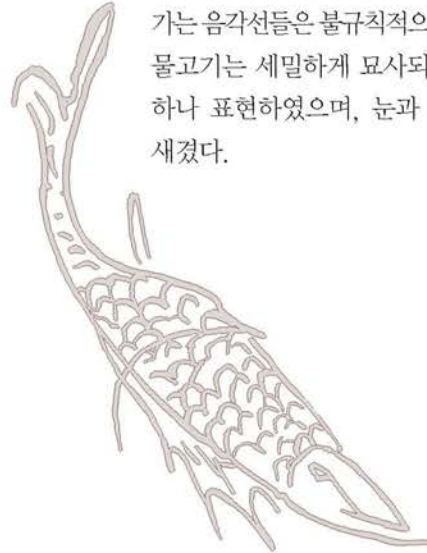
065

청자 파도물고기무늬 완

Celadon bowl with incised wave and fish design

靑磁陰刻波魚文 鉢 | 구경 16 | 저경 4.2 | 높이 5.4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파도 물결무늬는 둥글게 표현되어 있으며, 물결 안의 가는 음각선들은 불규칙적으로 시문하였다. 두 마리의 물고기는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비늘을 하나 하나 표현하였으며, 눈과 지느러미까지 섬세하게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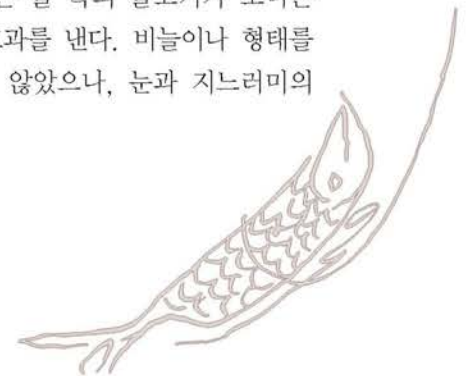
066

청자 파도물고기무늬 완

Celadon bowl with incised wave and fish design

靑磁陰刻波魚文 鉢 | 구경 15.8 | 저경 4.1 | 높이 5.3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둥글게 표현된 물결 안의 가는 음각선들을 불규칙적으로 시문하였다. 두 마리의 물고기를 그려 넣은 후에 물결을 시문하여, 물고기 위로 물결이 표현되어 있다. 이는 물 속의 물고기가 노니는 모습을 보여주는 효과를 낸다. 비늘이나 형태를 섬세하게 표현하지 않았으나, 눈과 지느러미의 세부는 표현하였다.





067

청자 앵무새무늬 대접

Celadon bowl with incised parrot design

靑磁 繪刻 鸚鵡 文 大 椀 | 구경 18.2 | 저경 5.6 | 높이 7.8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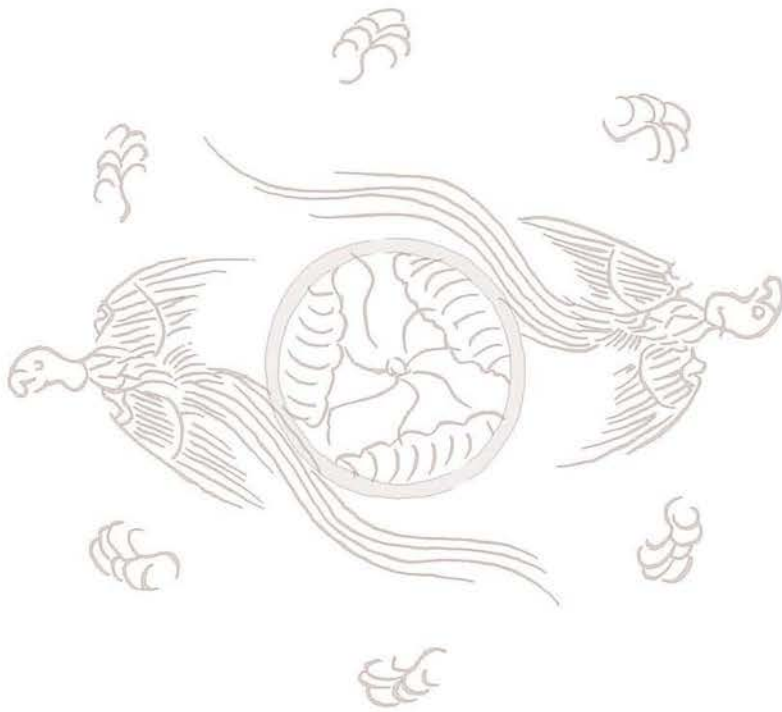
대접의 내면에 커다란 앵무새 두 마리를 나란히 배치하였다. 두 마리의 앵무새는 머리를 그릇의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다. 앵무새 주변으로 간략하게 표현된 구름이 있으며, 그릇의 안 바닥에는 둥근 연잎이 놓여 있다. 굽 바닥면에는 음각으로 「×」자 표시가 있다.



068

청자 앵무새무늬 대접
Celadon bowl with incised parrot design

靑磁陰刻鸚鵡文 大椀 | 구경 18.1 | 저경 5.3 | 높이 7.4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69

청자 앵무새무늬 접시

Celadon dish with incised parrot design

靑磁陰刻鸚鵡文 碟 | 구경 16.1 | 저경 5 | 높이 8.5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접시의 안 바닥에 두 마리의 앵무새가 서로 꼬리를 물듯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앵무새의 머리 부분이 크고 몸체와 날개가 작게 그려져 비례가 좋지 못하다. 기벽에는 간략한 구름무늬가 새겨져 있다.



070

청자 앵무새무늬 접시

Celadon dish with incised parrot design

靑磁陰刻鸚鵡文 楨匙 | 구경 16.2 | 저경 5.2 | 높이 4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두 마리의 앵무새가 서로 꼬리를 물듯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도의 청자접시이다. 앵무새의 머리 부분은 크고 날개가 단순화되어 작게 그려져 있다. 앵무새의 가슴부분의 표현이 특이하다.



071

청자 앵무새무늬 접시

Celadon dish with incised parrot design

靑磁 刻劃 鸚鵡 文 椀 鉢 | 구경 16.4 | 저경 4.6 | 높이 4.9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태안에서 발견된 앵무새무늬 접시 중에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특이한 구도가 나타난다. 앵무새의 몸체가 비대하며, 날개의 표현이 단순하게 도식화 되어 있다. 이러한 구도의 앵무새무늬 접시는 문양이 좋지 못하고, 유색도 누런 빛이 도는 등 품질이 좋지 않다.



072

청자 앵무새무늬 접시

Celadon dish with incised parrot design

靑磁陰刻鸚鵡文 楩匙 | 구경 16.2 | 저경 5 | 높이 4.5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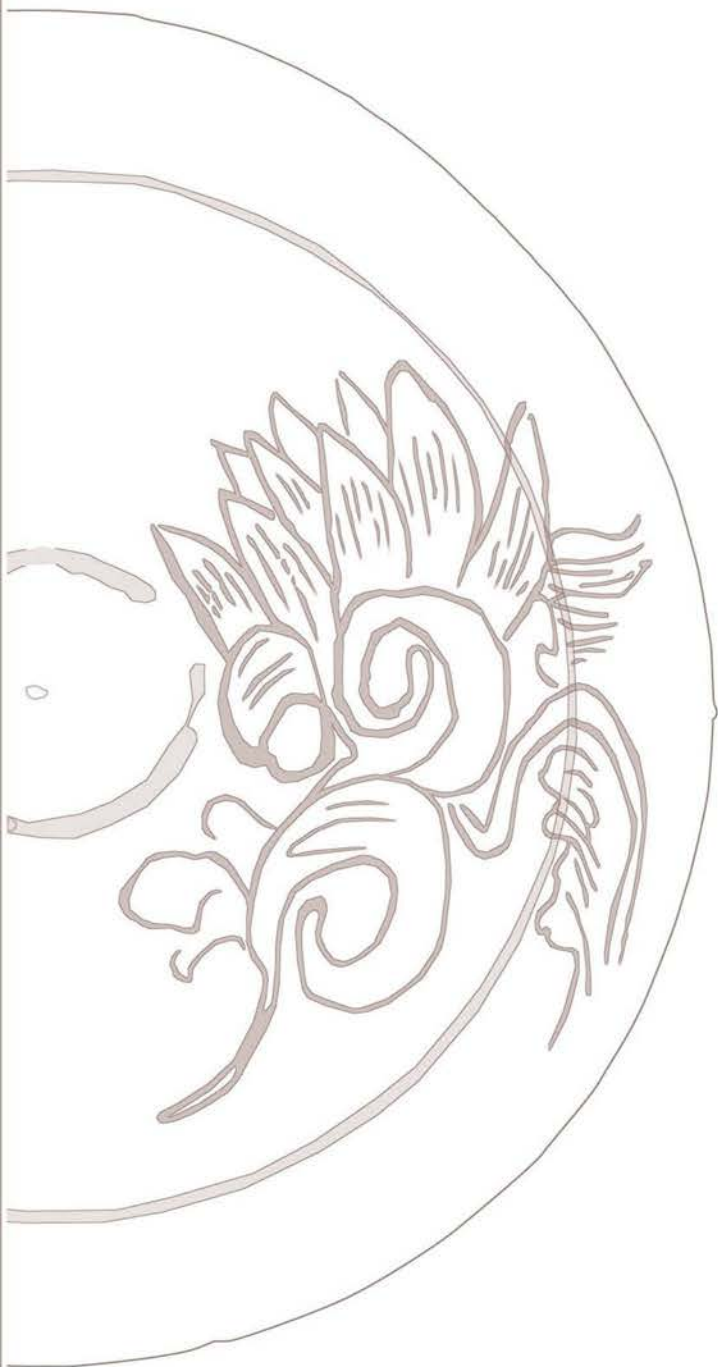


073

청자 새구름무늬 완

Celadon bowl with inlaid bird and cloud design

靑磁陰刻鳥雲文 盃 | 구경 13.4 | 저경 3.5 | 높이 4.9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74

청자 연꽃잎무늬 접시

Celadon dish with incised lotus-petal design

靑磁陽刻蓮瓣文 碟 | 구경 16 | 저경 4.5 | 높이 4.5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연꽃잎을 접시의 외면에 입체감 있게 새겼다. 겹으로 새겨진 연꽃잎은 꽃잎 하나하나에 입체감을 더하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을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 마치 활짝 핀 연꽃송이를 엮어 놓은 듯하다. 연꽃잎 무늬는 줄기나 잎 없이 기물자체가 하나의 꽃송이처럼 표현된 형태로 연판문으로 불린다.



075

청자 연꽃잎무늬 대접

Celadon bowl with incised lotus-petal design

靑磁陽刻蓮瓣文大椀 | 구경 16 | 저경 4.8 | 높이 8.6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연꽃잎을 3단으로 겹치게 표현하여, 한 송이의 풍성한 연꽃송이를 연상시킨다. 태안에서 출토된 연꽃잎무늬 대접은 대체로 품질이 좋으며, 굽 바닥면에 「O」표시가 흐릿하게 있는 경우도 확인된다.



076

청자 연꽃잎무늬 대접

Celadon bowl with incised lotus-petal design

靑磁陽刻蓮瓣文大椀 | 구경 16.1 | 저경 4.9 | 높이 8.5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77

청자 연꽃무늬 접시

Celadon dish with incised lotus design

靑磁陰刻蓮花文 碟 | 구경 17.6 | 저경 4.8 | 높이 4.1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꽃모양의 접시의 안 바닥에 연꽃과 연잎을 조각칼로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조각칼을 비스듬히 뉘여서 조각하여 연꽃의 입체감을 한층 더하였다. 하나하나 조각하여, 형태와 무늬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세부적인 표현은 모두 다르다.





078

청자 연꽃무늬 접시

Celadon dish with incised lotus design

靑磁陰刻蓮花文 模匙 | 구경 17.6 | 저경 5 | 높이 4.2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79

청자 연꽃무늬 접시

Celadon dish with incised lotus design

靑磁陰刻蓮花文 模匙 | 구경 17.6 | 저경 4.9 | 높이 4.1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80

청자 연꽃무늬 접시

Celadon dish with incised lotus design

靑磁 陰刻蓮花文 碟 | 구경 13.8 | 저경 3.6 | 높이 3.6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연꽃의 특징을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일반적으로 문양이 있는 접시는 단독으로 변조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하여, 이 접시는 포개구이를 하였으며 색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기형의 접시는 태안에서 출토된 접시 수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무늬가 새겨진 경우는 매우 드물다.



081

청자 연꽃무늬 뚜껑

Celadon bowl with a lid, incised lotus design

靑磁陰刻蓮花文 蓋 | 구경 10.1 | 저경 7.9 | 높이 2.2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통형잔의 뚜껑에 연꽃무늬를 음각하였다. 간략하지만 연꽃의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으며, 의도적으로 조각도를 뒀어서 연꽃을 새겼다.



082

청자 연꽃무늬 소접시

Celadon dish with incised lotus design

靑磁陽刻蓮花文小碟 | 구경 9.5 | 저경 3.5 | 높이 2.7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도범陶範이라는 일종의 틀을 이용하여 찍어낸 작은 꽃모양 접시이다. 섬세한 연꽃 무늬가 도드라지게 잘 나타나며, 고려중기 청자가마터에서 널리 발견되는 대표적인 접시이다



083

청자 연꽃무늬 소접시

Celadon dish with incised lotus design

靑磁陽刻蓮花文 小碟匙 | 구경 9.8 | 저경 4.5 | 높이 2.3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84

청자 모란무늬 대접

Celadon bowl with incised peony design

靑磁陽刻牡丹文大椀 | 구경 19.5 | 저경 5.2 | 높이 6.2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꽃모양 대접을 모란넝쿨무늬가 새겨진 틀에 찍어서 만든 것이다. 모란과 넝쿨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며, 대접의 내면은 6개로 구획되어 있다. 이 구획선과 구연부의 홈이 대접을 하나의 꽃처럼 보이게 한다. 새겨진 모란과 넝쿨은 매우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입체감 있게 표현되었다.



085

청자 모란무늬 접시

Celadon dish with incised peony design

靑磁陽刻牡丹文 標匙 | 구경 16.5 | 저경 4.8 | 높이 3.7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꽃모양 접시에 모란무늬가 가득 새겨져 있다. 편평한 접시 안바닥에는 두 송이의 모란을 마주보게 배치 하였으며, 접시 기벽은 6개로 구획되어 있다. 이 구획선과 구연부의 홈이 연결되어 한 송이의 꽃처럼 보인다. 안바닥은 문양이 선명하게 찍혀 있으나, 접시의 가장자리로 갈수록 문양이 흐릿하게 찍혀있다.





086

청자 모란무늬 대접

Celadon bowl with incised peony design

靑磁陰刻牡丹文大椀 | 구경 18.4 | 저경 5 | 높이 6.6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모란넝쿨무늬를 꽃모양의 대접에 배치하였다. 두 송이의 모란을 마주 보게 배치하고 그 사이를 넝쿨로 채웠다. 꽃잎과 잎의 세부를 빗 형태의 도구를 사용하여 장식하였는데, 모란 꽃이 한층 풍성하고 화려해 보이는 효과를 낸다.



087

청자 모란무늬 대접

Celadon bowl with incised peony design

靑磁陰刻牡丹文大椀 | 구경 18.5 | 저경 4.6 | 높이 6.1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두 송이의 모란을 마주보게 배치하고 그 사이를
넝쿨로 채우는 구도는 일반적인 모란넝쿨무늬
대접과 같지만, 문양이 거칠고 세부 표현에서도
빛 형태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음각선으로
처리하였다.



088

청자 모란무늬 접시

Celadon dish with incised peony design

靑磁陰刻牡丹文 碟匙 | 구경 15.7 | 저경 4.6 | 높이 4.1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모란꽃이 절지折枝 형태로 표현되었다. 편평한 꽃모양 접시의 안바닥에 모란을 음각으로 그려 넣었으며, 세부에는 빗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여러 겹의 선으로 꽃의 질감을 표현하였다.





089

청자 모란무늬 소접시

Celadon dish with incised peony design

靑磁陽刻牡丹文 小碟 | 구경 9.5 | 저경 3.1 | 높이 2.6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화려하고 풍성한 모란이 한 송이씩 6개의 구획된 접시 면과 안 바닥에 놓아져 있다. 도범을 이용하여 찍어낸 작은 꽃모양의 접시이다. 문양이 섬세하고 유색도 매우 좋다.



090

청자 국화넝쿨무늬 완

Celadon bowl with incised chrysanthemum scroll design

靑磁陽刻菊唐草文 盃 | 구경 16.1 | 저경 3.6 | 높이 5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도범을 이용하여 제작된 국화넝쿨무늬완이다. 국화를 기면의 세 곳에 배치하고 중간에 봉오리와 넝쿨로 가득 채운 구도이다. 문양이 매우 세밀하며, 이러한 국화넝쿨무늬 완은 강진과 부안지역에서만 제작된 고급의 도안이다.



091

청자 국화넝쿨무늬 소접시
Celadon dish with incised chrysanthemum scroll design

靑磁陽刻菊唐草文小椀 | 구경 10 | 저경 2.8 | 높이 2.4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92

청자 국화넝쿨무늬 대접

Celadon bowl with incised chrysanthemum scroll design

靑磁陰刻菊唐草文大椀 | 구경 18.8 | 저경 5.1 | 높이 6.1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국화넝쿨무늬가 음각으로 시문된 대접이다. 도범을 이용하여 제작한 국화넝쿨무늬 완과 문양, 구도 면에서 유사성이 있다.



093

청자 꽃무늬 대접

Celadon bowl with incised flower design

靑磁陰刻花文 大椀 | 구경 18.9 | 저경 4 | 높이 6.6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94

청자 꽃무늬 접시

Celadon dish with incised flower design

靑磁陰刻花文 碟 | 구경 18.2 | 저경 4.9 | 높이 4.2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95

청자 꽃무늬 접시

Celadon dish with incised flower design

靑磁陰刻花文 椀 楨 18.2 | 4.9 | 4.2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96

청자 꽃넙쿨무늬 대접

Celadon bowl with incised plant scroll design

靑磁陰刻花唐草文 大椀 | 구경 18.2 | 저경 4.7 | 높이 6.7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97

청자 꽃넝쿨무늬 접시

Celadon dish with incised plant scroll design

靑磁陰刻花唐草文 楨匙 | 구경 18.5 | 저경 4.6 | 높이 3.9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98

청자 퇴화장식 접시

Celadon dish with thickly painted

靑磁堆花文 楪匙 | 구경 13.6 | 저경 4.1 | 높이 3.2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99

청자 퇴화장식 접시
Celadon dish with thickly painted

靑磁堆花文 碟匙 | 구경 9.6 | 저경 3.1 | 높이 2.4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00

청자 퇴화장식 접시

Celadon dish with thickly painted

靑磁堆花文 椽匙 | 구경 17.2 | 저경 5 | 높이 3.9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01

청자 철화장식 꽃모양 접시

Celadon dish with underglaze iron-painted

靑磁鐵畫文花形 碟匙 | 구경 9.7 | 저경 3.3 | 높이 2.2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02

청자 철화장식 뚜껑

Celadon lid with underglaze iron-painted

靑磁鐵畫文 蓋 | 구경 10.1 | 저경 10.8 | 높이 1.8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03

청자 잔

Celadon cup cover with underglaze iron-painted

靑磁鐵畫文 盞 | 구경 10.7 | 저경 3.7 | 높이 6.4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SECTION 5

고려

시대,

생활

속으로

5-1. 생활 속의 그릇

5-2. 의례용 그릇





104

청자 꽃모양 대접

Celadon bowl flower-shaped

靑磁花形 大鉢 口径 20.3 | 저경 5.3 | 높이 6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구연부를 오려내고 기물의 내면을 구획하여, 대접 자체를 한 송이의 꽃처럼 표현하였다.



105

청자 대접 Celadon bowl

靑磁 大椀 | 구경 14.2 | 저경 3.6 | 높이 3.1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대접의 경우에는 문양이 없고 포개구이를 한 대접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106

청자 접시 Celadon dish

再磁 標匙 | 구경 9.7 | 저경 2.9 | 높이 2.3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07

청자 접시 Celadon dish

再磁 標匙 | 구경 14 | 저경 3.7 | 높이 3.4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접시의 형태와 크기는 비교적 다양하며, 문양이 있는 고급의 접시부터 문양없이 포개서 구워낸 접시들까지 두루 출토되었다.



108

청자 접시 Celadon dish

靑磁 標匙 | 구경 18.1 | 저경 4.8 | 높이 3.4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음료용기로는 물, 술이나 차 등을 담아서 따르는 용도의 주자가 있고, 이를 담아서 마시는 용도의 완과 잔이 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차 문화의 발달로 차와 관련한 도구들이 유행하였는데, 완이나 잔은 차가 유행하는 경향이나 시기, 질에 따라 다양한 조형미를 보여준다.



109

청자 참외모양 주전자

Celadon melon shaped pitcher

靑磁瓜形 注子 | 구경 4.6 | 저경 7.9 | 높이 16.8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같은 형태의 참외모양의 주자가 2점 수습되었다. 두 점 모두 문양은 없으며, 손잡이와 뚜껑의 고리 부분이 잘 남아 있고 형태가 안정적이며 양감이 풍부하게 표현되었다.



110

청자 잔 Celadon cup with a lid

再磁 盞 | 잔, 구경 11 | 저경 4.2 | 높이 7.2

뚜껑, 구경 11.5 | 저경 8.8 | 높이 3.2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11

청자 잔 Celadon cup with a lid

靑磁 蓋 | 잔_구경 8.5 | 저경 3.6 | 높이 6.8
뚜껑_구경 9.7 | 저경 7.2 | 높이 2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12

청자 잔 Celadon cup with a lid

靑磁 蓋 | 잔_구경 8.5 | 저경 4 | 높이 6.6
뚜껑_구경 9.7 | 저경 7 | 높이 2.3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13

청자 연잎무늬 완 Celadon bowl

靑磁荷葉文 鉢 | 구경 11.3 | 저경 3.1 | 높이 4.5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연잎무늬를 도범을 이용하여 찍어낸 작은 완이다.



114

청자 완 Celadon bowl

靑磁 鉢 | 구경 13.6 | 저경 3.6 | 높이 5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완은 크기와 기형이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얇은 기벽에 구연부가 외반한 경우도 있고, 비교적 기벽이 두꺼운 사선형의 완도 출토되었다.



115

청자 완 Celadon bowl

靑磁 鉢 | 구경 12.7 | 저경 4.2 | 높이 5.7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태안에서 출토된 완 중에는 일반적인 사선형의 완과는 다르게 둥근 곡선을 완들이 출토되었는데 조형과 색이 모두 뛰어나다.



116

청자 완 Celadon bowl

靑磁 鉢 | 구경 14.1 | 저경 3.9 | 높이 4.4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저장용기는 액체나 고체상태의 음식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제작한 그릇들을 말한다. 저장용기는 다양한 크기의 항아리나 단지 등이 있다. 재질은 질그릇인 경우가 많고, 비교적 용량이 작은 경우에는 도자기로 제작한 것이 많다. 이 종류의 그릇들은 보통 물, 술 등의 액체나 장, 젓갈 등의 저장음식들을 담아두는 데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태안선에서 수습된 저장용기는 선상생활에 필요한 음식물을 저장하기 위한 큰 질그릇과 선적품이었던 항, 작은 소호들로 구분할 수 있다.

질그릇 중에는 그릇 속에 다량의 생선뼈가 발견되어 젓갈을 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다.



117

청자 소호

靑磁 小壺 | 구경 7.1 | 저경 4.2 | 높이 8.6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태안에서는 소형의 호들이 다량으로 발견된 점이 특이할 만하다.



118

항아리 Cseladon jar

靑磁 甕 | 구경 20.4 | 저경 8.7 | 높이 13.6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19

호 Earthenware jar

陶器 壺 | 구경 12.1 | 저경 11.4 | 높이 22.7

| 구경 12.1 | 저경 19 | 높이 32.5 || 구경 14.5 | 저경 17.2 | 높이 35.1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호 안에서는 젓갈로 추정되는 생선의 뼈들이 다량 수습되었는데, 저장용기로 사용 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선적되었던 물품이라기보다는 선상에서 사용된 생활용기로 여겨진다.



120

백자 합 White porcelain case

白磁 盒身 | 구경 6.8 | 저경 5.7 | 높이 2.5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태안에서 인양된 2만 3천여점의 유물 중 유일한 백자이다. 주름무늬 백자합의 몸체이다. 위, 아래로 작게 내화토 빚음 받침을 사용하여 번조하였다. 유색에서 담청빛이 감도는 전형적인 고려 백자이다.



121

청자 합 Celadon case

再磁 盒 | 구경 6 | 높이 3.9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문양은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측면에 둥근 곡선들이 돌아가며 음각되어 있다. 뚜껑과 합신에 연결된 선들로 인해, 제작 당시부터 공들여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122

청자 합 Celadon case

靑磁 盒 | 구경 6.2 | 높이 4.2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3

청자 합 Celadon case

靑磁 盒 | 구경 6 | 높이 3.6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4

청자 병 Celadon bottle

靑磁 油瓶 | 구경 2.5 | 저경 4.8 | 높이 3.1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5

청자 병 Celadon bottle

靑磁 油瓶 | 구경 3.1 | 저경 2.8 | 높이 7.2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고려시대에 제작된 일반적인 유병에 비해 무게중심이 아래에 위치한 형태이다. 유약이 씩워지지 않거나 뭉친 부분이 있는 등 시유상태는 좋지 못하다.



중요한 생활용기 중의 하나가 문방구이다. 대표적인 것이 벼루와 연직인데 청자로 만들어진 예들이 전하며, 이와 관련된 시들도 전하고 있어서 고려인의 청자문방기명에 대한 애호를 알 수 있다. 청자로 제작된 벼루들이 전하기는 하지만, 태안에서 발견된 두꺼비모양의 벼루는 매우 희귀한 예이다.



청자 벼루 편

Celadon Ink-stone fragment

靑磁硯片 | 잔존 3.7

고려 12세기 | 강진 용운리 10호 | 국립광주박물관

청자 두꺼비모양 벼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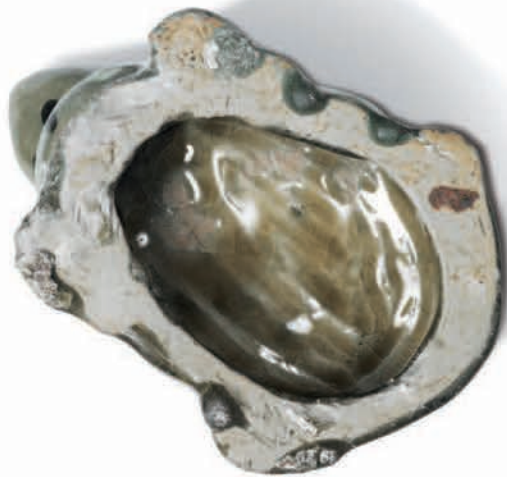
Celadon Ink-stone a toad

靑磁堆花鐵畫文蟾形硯 | 길이 13.9 | 폭 6.8 | 높이 6.4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두꺼비의 피부용기를 철화와 퇴화기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두꺼비의 눈동자를 철화로 그려 넣었는데, 백색의 퇴화를 바탕으로 사용하여 보다 선명하게 표현하였다. 입과 다리의 세부는 음각으로 시문하였다.

벼루의 연당(硯堂)에는 유약을 씌우지 않았으며, 약간의 경사를 두어 벼루로써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두꺼비 꼬리 부분에는 여러 개의 알을 음각으로 표현한 도공의 재치가 엿보인다.







5-2. 의례용 그릇

사자장식 청자향로

향을 피우는 것은 예로부터 악취를 제거하고 부정을 없애기 위한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불교에서는 부처를 공양하기 위해서 소향^{燒香}을 한다.

향로는 단순한 원형이나 방형 등으로 제작되기도 하였지만, 사자나 오리 원앙, 용 등의 장식이 얹어진 향로도 제작되었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나타나는 산예출향^{山岳出香}은 도자기의 나라 송에서 온 사진이 극찬을 했을 정도로 뛰어난 작품이었다. 태안에서 발견된 사자장식향로는 사자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고려도경^{高麗圖經} 기명^{器名} 32 도로^{陶爐}

"사자 모양 향로도 비색이다. 위에는 짐승이 웅크리고 있고 아래에는 봉오리가 벌어진 연꽃잎이 떠받치고 있다. 여러 그릇 가운데에서도 이 물건이 가장 정교하고 빼어나고, 그 나머지는 월주^{越州}의 고비색^{古秘色}이나 여주^{汝州}의 신요기^{新窯器}와 대체로 유사하다."



청자 사자장식 향로
Celadon lion shaped incense burner
靑磁獅子形 香爐 | 높이 21.2
고려 12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127

청자 사자장식 향로

Celadon lion shaped incense burner

靑磁獅子形香爐 | 높이 13.7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사자장식은 비례와 조형미에서 조화롭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사자에 대한 해학적이고 세밀한 표현이 돋보인다. 눈동자는 철화를 사용하였으며, 수염이나 꼬리, 코, 발 아래의 공 등이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사자의 갈퀴는 음각으로 표현하였으며, 사자장식의 바닥에는 구멍이 있어서 실제로 향이 나갈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128

청자 바루

Celadon bowl -Patra

靑磁鉢盂 | 구경 16.4 | 저경 5.4 | 높이 4.2
| 구경 17.8 | 저경 4.8 | 높이 5.2 || 구경 19.5 | 저경 5 | 높이 7.1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발우에 음각으로 꽃 넝쿨 문양을 시문하였고, 3개가 한 조를 이루고 있다.





129

청자 바루

Celadon bowl-Patra

靑磁鉢盂 | 구경 14.6 | 저경 4.4 | 크기 29 || 구경 17.2 | 저경 4.6 | 크기 5.5
| 구경 19.1 | 저경 5.7 | 크기 6.7 || 구경 20.1 | 저경 5.6 | 크기 8.1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굽은 별도로 처리하지 않는 평저이며, 내화도
빛음을 사용하여 번조하였다.





SECTION 6

부록

6-1. 특별논고

- 충남 태안 대섬 앞바다 수중 발굴조사 개요 - 문환석
- 태안 청자운반선 출토 고려 목간 - 임경희
- 태안 대섬 해저출토 고려청자의 성격 - 윤용이
- 수중발굴 고선박의 하물적재 방법 - 김병근
- 고려시대의 청자발우 - 박지영

6-2. 유물목록

충남 태안 대섬 앞바다 수중 발굴조사 개요

문환석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수중발굴과장

2007년 하반기에 충남 태안 대섬 앞바다에서는 고려청자와 청자 운반선이 발견되었고, 이에 관한 내용이 연일 언론 매체를 통해 소개되었다. 일명 '보물선 신드롬'이라고 할 만 하며 일부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로 인해서 문화재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이같이 바다나 강으로부터 기원한 인류존재(유적지, 건축물)와 활동자취(난파선, 선적물) 등 인류의 문화유산을 수중문화재(Underwater Cultural Heritages)라 한다.

일반적으로 수중문화재의 경우 난파선과 연관성이 깊다. 교역이나 어로활동, 해전 등의 해상활동 과정에서 침몰된 선박과 그 선적물들은 당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고스란히 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백만 척 이상의 난파선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 수중문화재는 대체적으로 육상의 문화유산보다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한 시대의 문화상을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수중문화재 조사는 육상의 유적조사 영역을 물밑까지 확장한 것으로 육상의 유적조사와 다르지 않다.²⁾ 다만 물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육상과는 다른 해저지형, 기상조건, 탐사장비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잠수사가 육안으로 유적을 찾아낼 수도 있지만, 탐사장비를 사용하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어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³⁾

널리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수중발굴은 1976년 신안선 발굴조사를 효시로 하여 발전하였다. 이어 완도 어두리, 무안 도리포와 최근의 군산 비안도, 야미도, 십이동파도, 보령 원산도 등에서 총 14건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중 10건은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직접 실시하였다.⁴⁾

이 글에서는 태안 대섬 수중발굴의 현재까지 경과와 함께 동반 유물들의 의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1. 문화재청, 『수중매장 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 연구』, 2003, pp. 11-14.
 2. Lawrence E. Babits & Hans Van Tilburg, 『MARITIME ARCHAEOLOGY』, 1998, pp. 7-8.
 3. 黃東煥·金城必 編著, 『水中 遺物 發掘의 基礎』, 海軍士官學校, 1994, pp. 13-65.
 『수중과학기술』 제7권 1호, 『수중잠수 기술의 발전과 수중고고학』 pp. 86-110.
 4. 文化財管理局, 『新安海底遺物』 綜合篇, 1998.
 文化財管理局, 『莞島海底遺物』, 1984.
 國立海洋遺物展示館, 『務安 道里浦 海底遺蹟』, 2003.
 國立海洋遺物展示館, 『群山 飛雁島 海底遺蹟』, 2004.
 國立海洋遺物展示館, 『群山 十二東波島 海底遺蹟』, 2005.
 國立海洋遺物展示館·新安郡, 『安佐船發掘報告書』, 2006.
 國立海洋遺物展示館·群山市, 『群山 夜味島 水中發掘調查報告書』, 2007.
 國立海洋遺物展示館, 『保寧 元山島 水中發掘調查報告書』, 2007.

태안 발굴의 서막

2007년 5월 25일 연합뉴스에 “태안 앞바다서 고려 청자대 접 건져”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구연부가 일부 깨진 청자 사진이 게재되었다. 이 기사를 접한 우리 관에서는 바로 태안군에 신고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발견상황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신고자(오씨)와 실제 발견자(김씨)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으며, 청자는 주꾸미를 잡기 위해 설치해 놓은 소라 통발을 건져 올릴 때 주꾸미와 함께 붙어 왔다.



사진 1. 소라에 산란한 주꾸미

일반적으로 주꾸미가 청자를 물고 온다는 것을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소라 통발에 산란한 주꾸미는 외부로부터 알을 보호하고자 주변의 패각류나 청자 등의 물체를 빨판으로 잡아당겨 입구를 막아 은폐하는 습성을 가진다. 발견자와의 통화를 통해서 여러 개의 청자편들도 붙어 왔으나 버리고 상태가 좋은 1점만 신고하였다고 한다. 이 사실로 다량의 청자가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유물의 매장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2007년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발견해역에서 긴급탐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당일엔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유속이 매우 빠른 사례 때로 조사 시점으로는 좋지 않았다. 하지만 사안의 긴급함으로 인해서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신고지점으로부터 반경 20m를 1차 탐사구역으로 설정하고, 수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노출 유물이 발견되어 유물의 매장 상태를 촬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류에 의해 재차 매장되거나 손상될 수 있어 유색이 선명한 유병 등 노출 유물의 일부를 수



사진 2. 긴급탐사 인양 청자

습하였다. 긴급탐사 결과, 더 많은 유물이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최종판단을 내렸으나, 유속이 너무 빨라서 더 이상의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일단 철수하였다.

철수 후 신고지역이 이미 언론에 알려진 상황으로 도굴의 가능성이 있고, 해저에 매장된 유물이 어로활동 과정에서 손상을 입을 것이 우려되었다. 이에 문화재청 사적과에 사적이 지정의 필요성을 알렸고, 문화재청에서 2007년 6월 7일부터 6개월간 유물 보호를 위해 사적으로 가지정하였다. 또한 태안군에 알려 현장 보호 조치를 취하였다.

2007년 수중발굴 조사

긴급탐사 결과를 통해 더 많은 유물이 매장되어 있을 것을 예측하였고, 본격적인 수중발굴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2007년 7월부터 10월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조류의 속도, 조석간만의 차, 시계(視界), 수온 등을 고려하여 조금 시기를 전후한 기간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바다 속 갯벌 층에 드러나 있는 유물은 조류에 의해서 재차 매장되거나 떠밀려 갈 위험이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매장상태를 촬영하고, 바로 수습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조사 3일째, 조사를 담당하던 잠수사가 가슴에 커다란 향아리를 안고 올라왔다. 향아리는 선원들의 취사공간에서 양념 또는 물을 담을 때 주로 사용하던 유물이다. 선상으로 올라온 잠수사는 청자 운반선이 매장되어 있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로써 태안 대섬 앞바다에서는 완도선과 십이동파도선에 이어 세 번째로 청자운반선이 발견되었다.

선박은 일부가 갯벌에 매몰되어 크기를 알기는 어려웠으나



사진 3. 발견당시 청자매장 상태

동쪽과 서쪽 양 끝단에 선체의 일부가 드러나 있었다. 유물의 매장규모는 동서 7.7m, 남북 7.3m로 청자가 적재된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육안으로 파악하기에도 3층 이상의 청자 적재층이 있었고, 표면에 노출된 층만에서도 2천점 이상의 도자기가 확인되었다.

청자는 당시 선적(船積) 상태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매장되어 있었다. 일정량의 청자는 사이사이에 완충재(짚)를 넣어 파손 위험을 감소시키고, 받침목재를 대어 끈으로 묶어 포장되어 있었다. 포장된 청자는 층사이에 완충재를 놓고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 있었다. 우선 유물수습을 위해 집중매장처를 포함하여 12×8m 크기의 철제그리드를 설치하고 다시 1×1m 간격의 세부구역으로 나누어 격자번호를 부여하였다. 이후 유물은 구역별로 상태확인, 사진 및 영상촬영을 실시하고 수습하였다. 수습된 유물은 바지선상에서 세척과 임시 보존처리 후 정리와 보존관리를 위해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운반하였다.

2008년 수중발굴 조사

2008년 4월부터 약 한 달간 수중에 매몰된 청자 운반선 인양과 주변에 매장된 유물의 수습발굴을 하였다. 청자운반선은 동서방향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매몰되어 외판의 일부(단, 8×1.5m)만 남아 있다. 인양 선체는 총 4단으로 6개편으로 수중에서 해체하여 수습하였다. 선체 남동쪽에서 닻돌 2점이 출토되었다. 거칠게 장방형으로 가공하였으며, 닻돌 중앙부 및 측면에 나무 닻과 결구시켰던 밧줄 홈자국이 남아 있어 사용흔적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또한 이 닻돌을 들어올리는 도구의 일종인 호롱부속구편을 수습하였다.

선체인양 후 그리드 주변과 외곽으로 유물의 잔존여부를 조사한 결과, 그리드를 중심으로 30m이내에는 청자들이 교란되어 매장되어 있었다. 또한 최초 신고지점인 북동쪽으로 확장 조사한 결과, 유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탐침할 경우 갯벌 아래에도 확인되고 있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머지 선체의 잔존여부와 매장 유물의 수습을 위한 추가 발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태안 수중발굴의 의의

우리 민족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며 많은 물자가 이동하는 해상 교통로였다. 또한 외국과의 무역이나 사신 왕래의 길이었다. 조상들의 활발한 해양활동 흔적들은 바다 속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현재 우리나라 해역에서 수중문화재 발견 신고지점은 1971년 이후 228곳에 이른다.

이번에 발굴한 충남 태안군 대섬 앞바다는 원래 난행량(難行梁)으로 불리던 해역이다.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조석간



사진 4. 제토작업 과정



사진 5. 제토 후 청자 매장상태



사진 6. 발굴유물 상태



사진 7. 선체 매물상태



사진 8. 인양선체

만의 차가 크고 조류가 빨라 조운선의 침몰 사고가 빈번한 곳이었다. 이에 안흥량(安興梁)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선박운행의 무운을 빌었다는 기록이 있다.⁵⁾ 이뿐만 아니라 고려와 조선시대 모두 운하를 굴착하여 새로운 항로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다.⁶⁾ 이와 같은 역사 기록을 이번 태안 대섬 발굴 결과가 고스란히 증명해 주었다.

발견과정의 흥미로움, 양과 질에서 빼어난 면을 보이는 고려청자, 화물의 발송자와 수신자가 적혀있는 물표(物標)의 발견, 고려시대 선박과 선상(船上)에서 사용되던 많은 생활용품 등은 '청자 보물선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사회적 관심과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태안 발굴을 통해서 고려시대 청자생산이나 운반, 수요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발굴 유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고려시대 청자이다. 청자 기종은 대접이나 접시와 같은 그릇 뿐만 아니라 참외모양주전자[靑磁瓜形注子], 두꺼비모양벼루[靑磁蟾形

硯], 사자모양향로[靑磁獅子形香爐]와 같은 특이한 형태도 있다. 또한 승려들의 식사용구인 바리때(鉢)가 3~4개씩 한 묶음인 형태로 많은 수량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불교 사원의 위세와 승려들의 생활상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앵무문과 모란당초문, 어문, 철화문, 화엽문, 연판문 등 다양한 문양과 색깔 등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제작 시기는 12세기 중후반에서 13세기초로 추정된다. 또한 제작지는 목간의 기록으로 고려청자의 대표적 산지인 강진지역으로 파악되며, 유약 상태가 양호한 상품으로 귀족층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본다.

발굴 과정 중에 목간(木簡)이 발견되었다. 목간들은 주로 바리때 등 양질의 청자가 매장된 구역의 받침목재 사이에서 수습되었으며, 수중에서 고려시대 목간이 발견된 것은 최초이다. 목간에 쓰여진 글자를 판독한 결과 청자의 발송자는 탐진(耽津, 지금의 강진)의 인물이고, 수취자는 개경(開京, 고려의 수도, 현재의 개성)에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자기를 몇 꾸러미 보낸다 하는 내용과 함께 운송 책임자의 사인(sign)에 해당하는 수결(手決)도 적혀 있었다. 발송자와 수취자, 운송물량, 운송 책임자 등이 기록된 화물의 물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목간을 통해 도자기의 생산지뿐만 아니라 출항지, 거래관계, 운송책임자, 적재 단위 등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사진 9. 출토 목간

청자 운반선은 남쪽으로 약 95° 정도 기울어져 매몰되었으며, 외판의 일부(4단)만 잔존하며, 저판 등 다른 부재들은 발견

5.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9, 忠肅道 泰安郡


안흥량(安興梁)은 군의 서쪽으로 34의 지점에 있는데 옛날에는 난행량(難行梁)이라 불렀다. 바닷물이 험하여 조운선(漕運船)이 누차 때물하여 사람들이 그 이름을 싫어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6. 高麗史 卷第十六仁宗世家十二年(1134년) 七月條

이달에 내시 정승명(鄭夔明)을 보내 조거를 파게했다. 홍주(洪州)와 소태현 등 이웃군(旁郡)에서 수천인을 정승명이 동원하여 굴착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했다.

朝鮮王朝實錄 太宗 十二年(1412년) 十一月

태종 12년 11월 16일 안흥량에 운하(運河)를 굴착하여 조운(漕運)을 의논하다가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使) 김승주를 보내어 이 곳에 지형도를 자세히 작성하여 바치게 하고 검토 결과 주위가 단단한 돌로 구성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공효를 거두기가 어렵다하여 논의를 중단한 기록이 있다.

하지 못하였다. 인양선체를 고찰하면 외판은 잔존상태로 보아 3~5개 부재를 연결하여 한단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판 1단 우측, 2, 3단 좌측 끝부분에서 유공층의 손상 흔적이 없고 연결부분의 한쪽만 보이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대쪽 연결부재는 최근에 유실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외판 연결방식은 이전의 완도선 등 고려선박에서 나타나는 외판의 연결방식과 같은 반턱이음방식()과 동일하다.

외판 부재의 길이가 발굴된 다른 고려선박의 길이보다 길면서 두께가 얇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제까지 발굴된 다른 선체와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길이와 두께는 비례하며 두꺼워진 것을 볼 수 있으나(안좌선 길이 5~6m, 두께 10~20cm), 태안선(2단 길이 8.21m, 7cm)은 이와는 다른 조선특성을 가진다. 또한 이 외판의 결구방식을 보면 1단의 경우, 나무못이 상단의 외판을 관통하여 하단의 외판 중간까지 연결한 다음 하단의 외판에서 빠지지 않도록 산지로 고정된 방식을 취했으나(완도선 등의 외판고정 방식), 외판 2, 3, 4단은 상단외판 하단부분에서 하단외판 상단의 반턱이음 부분으로 관통하고 상부에서 작은 산지를 박아 빠지지 않도록 결구하는 새로운 방식이 보인다. 이 결구방식은 고려선박에서는 처음 보이며, 얇고 긴 외판의 결구를 위한 조선기술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이같은 조사 결과와 앞으로 선체의 구조적인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조사하면 우리나라 선박사 연구의 새로운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함께 발견된 도자기의 제작시기와 비교하여 '태안선'은 군산 십이동파도선(12세기 초) → 완도선(12세기 중기) → 안산 대부도선(12~13세기) → 신안 안좌도선, 목포 달리도선(14세기)으로 이어지는 고려시대 선박전조 기술의 비교 자료가 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서남해안의 고려시대 해상항로를 복구하는데도 커다란 보탬이 될 것이다.

수중발굴의 기대와 전망

수중고고학이 추구하는 것은 물 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인류의 발자취를 추적하는 일이다. 바다 속에는 해수면의

상승과 지각변동으로 인해 가라앉은 유적이 있는가 하면, 재단으로 인해 난파된 수많은 침몰선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우리 조상들의 생생한 생활사와 해양활동 흔적들이 바다속에 타임캡슐처럼 고스란히 남아 있어 생생한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걸쳐 천여 건에 이르는 침몰선이 확인되었으며 연간 백여 척에 이르는 침몰선이 발굴 또는 확인되고 있어 수중고고학은 가히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는 어느 학자의 표현이 실감난다.

우리나라의 수중발굴 조사는 신안선 발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4곳에서 중국선박 2척, 고려시대 선박 6척을 포함하여 8만 9천여점에 이르는 수중유물을 발굴하였다. 초창기에는 수중발굴에 대한 경험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해군 잠수사들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계속된 수중발굴의 경험과 조사 장비가 확보되면서 2002년 군산 비안도 발굴 이후부터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자체 인력만으로도 수중발굴조사단이 꾸려질 수 있었고, 2007년 3월에는 국내 유일의 수중 발굴 전문기구로 수중발굴과가 신설되어 수중 발굴과 인양유물의 보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태안 발굴 후 연 2건 내외였던 수중문화재 발견 건수가 12건에 이르는 것은 보면 우리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도를 보여주는 한 예일 것이다. 모든 일은 관심으로부터 출발된다. 관련기관과 학계 그리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국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기울인다면 수중 문화유산의 보존은 물론 우리 역사의 빈 공간을 훌륭히 메워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태안 청자운반선 출토 고려 목간

임경희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학예연구사

1. 머리말

우리나라 수중발굴은 1976년 신안선 발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러 건의 수중지표조사와 총 14건의 발굴조사가 있었다. 발굴지역은 서남해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려시대의 고선박과 청자, 선상생활용품 등이 인양되었다. 이외에도 중국 선박과 도자기도 인양하였다. 이번 충남 태안 대섬 수중발굴은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수중발굴의 집약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고려시대 청자 운반선을 비롯하여 12세기 중반 것으로 추정되는 2만 여점에 달하는 양질의 고려청자와 선원들이 사용하던 술, 물동이 등의 선상생활용품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발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려시대 목간이 출토되었다는 점이다. 14차례에 걸친 수중발굴조사에서 목간이 출토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첫 번째는 전라남도 신안군 중도 앞바다에서 발굴한 '新安船'에서 나온 것이다. '신안선' 목간에는 '至治三年(1323)'이 적혀 있어, 적재 유물의 연대를 파악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東福寺' '筥崎' '釣寂庵' 등의 명칭을 통해서 신안선이 일본으로 향하던 배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신안선'에서 발견된 목간은 신안선의 항로와 편년 등을 파악하는데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¹⁾

태안 대섬 수중발굴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고려시대 목간이 출토되었다. 이 글에서는 태안 대섬 발굴 목간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판독 및 내용을 분석하였다.²⁾ 충남 태안 대섬에서 출토된 목간은 파손된 부분이 많으며, 특정한 모양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어서 형태상 분류는 어렵다. 반면 내용이 반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 내용별 분류를 시도하였다. 목간은 크게 4가지 종류로 '耽津'이 적혀 있는 A형, '安永戶'가 적혀 있는 B형, '宅上'이 나타나는 C형, 기타로 분류하였다.



대섬목간 A-1(40×2.5×0.8)
(앞면) 耽津亦在京隊正仁了
守付砂器八十
(뒷면) 卽(式)載船長³⁾수결

2. '耽津'형 목간(A형)

A형 목간은 총 8점이다. 목간의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1.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88, 『新安海底遺物』 綜合篇, 253쪽~260쪽.

이용현, 2006, 「신안 해저 발견 목간의 형식과 선적」, 『韓國木簡基礎研究』, 신서원

2. 태안 대섬 발굴 목간에 대해서는 이미 2007년 11월 목간학회에서 필자와 목포대학교 최연식 교수가 공동으로 「태안 청자운반선 출토 고려 목간의 현황과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이후 2008년 6월 우리 관에서 하영휘(가회고문서연구소), 손환일(경기대학교), 최연식(목포대학교)과 함께 목간판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글은 판독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2007년 11월의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3. 2007년 11월 학술대회 발표문에서는 '長'자를 '尾'자로 읽었으나, 판독회의 결과 '長'자로 파악하여 이를 수정한다.

※ 범례 : X-파손, □-판독중, ()-추정, ■-적외선 촬영 결과 목흔 있음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이 중 사진에 보이는 A-1 목간이 거의 완전 형태로 남아 있다.

A-1은 상단의 亦자 오른쪽과 하단의 八자 오른쪽이 일부 없어졌고, 그리드 F8에서 발굴되었다. 앞면에서 ‘亦’자와 ‘了’자는 각각 ‘式’과 ‘戶’로 판독할 여지가 있으나, 문장 구조상 ‘亦’과 ‘了’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 ‘亦’는 ‘이여’ 또는 ‘여’라고 읽으며 주격조사이다. ‘了’는 ‘아의’ 또는 ‘다회’라고 읽으며 초소격조사이다.⁴⁾ 때문에 ‘耽津亦’은 탐진이, ‘隊正仁守了’는 ‘대정인수에게’라는 의미가 된다.

목간의 앞면 내용은 발송지(자), 수신자, 도자기 수량의 구조로 이루어졌다. 해석하면 “탐진에서 개경에 있는 대정인수에게 도자기 팔십을 보낸다.”라고 할 수 있다.

뒷면의 卽(式)載船長의 경우 ‘式’에 대한 판독에 다른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문장 구조상 ‘식’으로 파악할 여지가

있다. ‘式’은 ‘식’이라고 읽으며, ‘몇 개 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⁵⁾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서 卽(式)은 앞면의 수량대로라는 의미이다. 卽(式)載는 “(앞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팔십 개를 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船長수결은 이 내용을 선장이 확인한 의미에서 수결을 적은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載를 동사로 보고 船長은 배의 총 책임자로 파악하는 것과 載船長을 하나의 명사로 파악하는 것이다. 배에 물건을 선적한 후 그 책임자인 船長 또는 載船長이 이를 확인하고 수결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앞의 추정

대섬목간 A-2(29.4×32×0.9)
(앞면) × 隊正仁守了付砂器壹畏印
(뒷면) 卽(式)載船長수결

4. 장세경, 2001, 『이두자로 읽기 사전』, 한양대학교 출판부
5. 장세경, 위의 책.
6. 장세경, 위의 책.

②번 목간은 상단은 결손 되었고, ‘壹’자를 경계로 2조각으로 부서져 있었다. F8지역에서 인양되었다.

A-2 목간은 A-1 목간과 같은 구조이지만 도자기 수량이 다르게 나타나며, 맨 마지막에 印이라는 글자가 있다. 印은 ‘끝’이라고 읽으며 끝이라는 의미이다. 분재문기에 각각의 몫을 기재한 다음에 쓰는 용례가 있으며, 際자를 쓰기도 한다.⁶⁾

목간의 앞면 내용은 “대정인수에게 사기 한 외(畏)를 보낸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畏’는 도자기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량을 나타내는 것인지는 현재까지는 알 수 없다. 뒷면 내용 역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앞의 한 외(畏)를 실었다. 선장 수결”이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통 ‘式’이 수량 단위의 형식명사와 결합해 쓰이는 일반적인 용례와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A-1과 A-2 목간이 별다른 손실이 없이 남아 있는



③ 대섬목간 A-3
(17.3×2.1×1)
(앞면) √ 耽津亦在京隊正 ×
(뒷면) 卽口 ×



④ 대섬목간 A-4
(8.9×3.7×0.6)
(앞면) × 砂器壹畏印
(뒷면) × 수결

상황이고, 다른 6개의 목간은 A형의 앞부분 또는 뒷부분만 남아 있는 형태이다.

③은 둥근 머리와 몸체가 V자형 결입구를 경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하단은 손실되었다. F8~F9 그리드에서 발견되었다. ④의 상단은 결손되었다. 뒷면에는 수결만 있다. G7~G10 사이에서 발굴되었다. ⑤는 상단과 하단이 모두 결손되었다. F8~F9사이에서 출토되었다.



⑤ 대섬목간 A-5
(10×38×0.4)
(앞면) × 了付砂器壹長 ×
(뒷면) × 수결



⑥ 대섬목간 A-6
(11×3.4×0.6)
(앞면) × 津亦在京隊 ×
(뒷면) 卽口載 ×

⑥은 위와 아래 부분이 결손되었다. G7~G10 사이에서 발굴되었다. 수중의 갯벌을 제거하기 위한 제토작업 중 수습되어 인양되었다. ⑦은 상단과 하단이 결손되었다. 隊자와仁자의 아랫부분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F8~F9사이에서 출토되었다. ⑧은 상단과 하단 모두 결손되



⑦ 대섬목간 A-7
(16.5×3.1×0.4)
(앞면) × 亦在京隊正仁守了 ×
(뒷면) 卽口載船長 ×



⑧ 대섬목간 A-8
(8.2×2.4×0.5)
(앞면) × 在京隊 ×
(뒷면) □ ×

었고, 隊자의 일부가 결실되어 있다. F1에서 발견되었다.

탐진형(A형) 목간은 앞면에 발송지(자), 수취인, 도자기 발송량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화물의 발송지는 '탐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耽津縣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탐진이라고만 적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어떤 세력 또는 인물 일지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이다. 다만, 도자기를 받는 사람은 '탐진'의 어떤 사람이 물건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만은 확실하다.

탐진형(A형) 목간은 개경에 있는 隊正 仁守가 수취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9품 무반인 隊正이 어떤 연유로 수취자로 되어 있는지, 또한 그가 최종 수취자인지 아니면 개경에서의 중간 유통을 담당한 인물이었는지 역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대정 인수는 중간 유통만을 담당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崔大卿 내지는 '柳將命' 덕에 도자기를 올린다는 내용의 목간이 있어 최종 수취인 있는 경우는 이를 명시하였다. 또한 많은 양의 도자기를 대정 인수가 모두 소비했을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역시 대정 인수는 중간 유통을 담당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추측한다.

A형 목간에는 도자기 양과 관련해서 A-1의 '八十'과 A-2, 4, 5의 '壹長'의 차이가 있다. '長'은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 글자라고 생각되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의 수량을 말하는지는 현재까지는 알 수 없다. 이와 함께 후술하겠지만 이번 태안 대섬 출토 목간에는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褰'도 보인다. '과'는 꾸러미를 나타내는 단위 명사이지만, 역시 정확하게 청자의 얼마만큼을 나타내는지는 알 수 없다. 동일한 인물에게 보내면서 A-5형에서의 '八十'과 A-2, 4, 5의 '長'로 왜 달리 표현했는지도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A형 목간의 뒷면은 "卽口載船長수결"이라고 판독할 수 있다.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卽(式)載船長'은 "(목간의 앞면에 적혀 있는) 수량대로 배로 실었음. 선장 수결"의 구조로 추측되며, 이때 선장은 운송 뿐 아니라 적재량을 확인하는 최종 책임자임을 알 수 있다. 글자 형태로 볼 때 A-1, 2, 3, 6, 8에 적혀 있는 인물이 모두 동일인이며, 또한 나타나는 수결이 동일한 점도 이를 뒷받침 한다.

3. '安永戶'형 목간(B형)



대섬목간 B-1
(37.7×4.4×0.8)
(앞면) 壬口口口在京安永戶付沙器一裹
(뒷면) 목흔 없음

B형 목간은 총3점이다. B형 목간은 “‘在京’하고 있는 ‘安永戶’에 ‘沙器’ ‘一裹’를 보낸다.”는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다. A형과는 다르게 뒷면에는 명문이 없다.

B-1 목간은 명문이 남아 있는 부분의 결손이 없고 하단의 일부분만 결실되었다. V자형 결구 등은 나타나지 않고 목재를 다듬어서 글을 써넣었다. 목간 보존처리가 완료된 후 적외선 촬영을 실시한 결과 처음 글자는 壬자로 보이고, 나머지 세 글자는 여전히 판독중이다. E7에서 발견되었다.

B형 목간은 앞면에만 명문이 나타나는데 “壬口口口在京安永戶付沙器一裹”라고 적힌 B-1형이 가장 완형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현재까지의 판독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개경에 있는 안영의 집에 도자기 한 꾸러미를 보낸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安永’이라는 수취자, 도자기 한 꾸러미라는 발송 양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문장 구조상 맨 앞부분에는 발송지(자)가 나오는데, 태안 대섬 청자운반선에 실린 도자기의 경우 산지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탐진 지역에 ‘임’으로 시작하는 지명은 없다. 그렇다면, 혹시 ‘임’자로 시작하는 간지를 적어 놓은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⁷⁾ 하지만 ‘壬’자 외에는 판독이 잘 되지 않아, 역시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수취자인 安永戶는 인

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A형의 在京隊正仁守와 마찬가지로 在京하고 있는 ‘安永의 戶’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이 경우 ‘安永’은 姓名이 아니라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안영 역시 최종수취자라기 보다는 중간 유통자로 보인다.

‘安永戶’ 목간에는 단위를 나타내는 글자로 ‘裹’가 사용되었다. 앞의 A형의 ‘畏’와 구별된다. 역시 현재까지는 정확히 어느 정도 양을 나타내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도자기를 의미하는 한자로 ‘沙器’가 쓰인 점도 A형의 ‘砂器’와 구별된다.

B-2는 상단이 결실되었으나 하단은 파손이 없다. F8~F9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앞면에는 “× 安永戶付沙器裹”이라고 적혀 있고, 뒷면은 목흔이 없다. B-3은 상·하단 모두 결실되었고,裹자 한글자만 남아있다. ‘安永戶’ 목간에 남아있는 단위(裹)와 같이 B형으로 분류하였다. E9지역에서 인양되었다.



대섬목간 B-2 (29×4×1)
대섬목간 B-3 (5.6×2.5×0.8)

4. '宅上'형 목간(C형)

C형 목간은 ‘崔大卿’형과 ‘柳將命’형 두 가지가 있다. 먼저 ‘崔大卿’형부터 살펴보자.

위의 ①은 사각형으로 다듬어진 머리와 몸통이 V자형 결구로 나누어져 있다. 하단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고 아래 부분이 결손되었다. F9에서 발견되었다. ②는 윗면이 세모꼴

7. 판독에 참여한 손환일 교수는 ‘壬子七月十日’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하지만 ‘十日’이라고 읽은 부분은 ‘在京’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로 다듬어져 있다. 아래 부분은 일부 결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역시 C-1과 마찬가지로 매우 진하게 글씨가 남아 있다. G5에서 발견되었다. ③은 윗부분이 결실되었다. 명문 아래 부분과 하단이 분리되어 있다. 명문의 제일 윗 글자는 郷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卿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H9 지역에서 발굴되었다.



① 대섬목간 C-1 (26×4×0.8) (앞면) √崔大卿宅上 (뒷면) 목흔 없음.
 ② 대섬목간 C-2 (18.7×3×0.5) (앞면) 崔大卿宅上 (뒷면) 목흔 없음.

‘崔大卿’이 적혀 있는 목간은 여러 목간 중에서 글씨를 가장 정성들여 쓴 흔적이 역력하다. “崔大卿 덕에 보낸다.”라는 간단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며, 뒷면은 적외선 촬영결과 목흔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A, B형 목간과는 다르게 수취자만이 나타난다. 수취자인 ‘崔大卿’은人名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아무래도 崔씨 성을 가진 ‘大卿’이라는 관직을 지닌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高麗史』百官志에는 大卿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高麗史』, 『高麗史節要』 기사와 개별 인물의 墓誌銘에서는 그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찾아진 사례들 중 順宗妃 宣禧王后 金氏의 父는 大卿 金良儉이었으며,⁸⁾ 睿宗 後宮인 淑妃 崔氏 父 崔湧도 大卿이었다.⁹⁾ 고려 명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禮部郎



③ 대섬목간 C-3 (19.2×3.5×0.9) (앞면) × (卿)宅上 (뒷면) 목흔 없음.

中知制誥(正5品)를 역임한 咸修가 大卿 閔志寧의 딸과 혼인하였다는 기록도 있다.¹⁰⁾ 이외에도 僧統 왕정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귀양을 간 大卿 李仲平의 사례,¹¹⁾ 高宗代에 左軍兵馬使 貢天源(3品)을 大卿으로 강등시킨 예,¹²⁾ 등이 나타난다.

또한 『高麗史』列傳 이자겸전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자겸이 왕에게 重興宅 西院으로 가자고 청하였으므로 왕은 의장대를 갖추지 않고 사잇길로 갔다. 왕이 서원 문 앞에 당도하니 大卿 金義元和 崔滋盛이 중흥택 집사의 자격으로 마중 나왔다”라는 기록이¹³⁾ 있다. 당시 김의원은 그의 墓誌銘¹⁴⁾에 의하면 禮賓卿·知御史臺事 관직을 대유하고 있던 시기로 예빈경(從3品)으로서 대경이라고 일컬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寺·監 등에는 卿과 少卿이 있었다. 그중 전의시, 종부시, 위위시, 사복시, 예빈시, 전농시, 내부시, 사재시 등에는 정3품 내지는 종3품의 卿과 정4품 내지 종4품의 품계를 가진 少卿이 있었는데, 편년 기사나 열전 등에는 보이지 않지만, 少卿에 대칭하여 이들 관서의 卿을 ‘大卿’이라고 칭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崔大卿’은 도자기의 최종 수취자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柳將命’이 적힌 목간은 “柳將命 덕에 ‘沙器’ 얼마를 올린다.”는 내용이고, 뒷면에는 아무런 글씨가 없다. 한 점만 발견되었다.

8. 『高麗史』卷88 列傳1 后妃1
 9. 『高麗史節要』卷8 睿宗16年 正月
 10. 金龍善 編, 1997, 『咸修墓誌銘』『高麗墓誌銘集成』, 翰林大學校아시아文化研究所
 11. 『高麗史』卷13 世家13 睿宗7年 8月 丙午
 12. 『高麗史』卷22 世家22 高宗4年 5月 乙未
 13. 『高麗史』卷127 열전41 叛逆1 李資謙
 14. 金龍善 編, 1997, 『金義元墓誌銘』『高麗墓誌銘集成』, 翰林大學校아시아文化研究所
 15. 이는 육상 발굴과 다른 수중 발굴 작업의 어려움 중 하나이다. 수중에 그리드를 설치하고 인양작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바닷속 부유물질이나 갯벌을 제거하는 제토작업이 진행되는데, 이때 정확하게 어느 그리드인지 알 수 없는 유물들이 수습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때문에 목간의 위치비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발굴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위와 아래 부분이 모두 결실되었다. 다른 목간에 비해서 폭이 좁다. E~H 그리드의 제토작업 도중 수습 인양되어, 정확한 출토위치는 알 수 없다.¹⁵⁾

목간의 앞면은 “(柳將命宅上砂器印)”이라고 적혀 있다. ‘(柳)’는 ‘郡’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남아 있는 획으로 볼 때 柳로의 추정 가능성이 높다. 내용은 “유장명택에 도자기 얼마를 올린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柳將命’은人名으로 볼 가능성과 柳씨 성을 가진 ‘將命’으로 볼 여지가 있다. ‘택상’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將命’은 ‘大卿’과 마찬가지로 『高麗史』百官志에는 나타나지 않는 관직명이다. 무반 관직 중 하나의 이칭으로 생각되는데,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將命이 관직일 가능성이 높고 ‘택상’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柳將命’의 경우도 청자의 최종 수취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목간은 모두 沙器 즉 도자기의 발송과 관련된 것이지만 그 구성에 차이가 있다. 耽津 형과 安永戶 형은 각기 ‘발송자-耽津, 수취자-在京 隊正 仁守, 발송물-砂器 얼마’와 ‘발송자 壬口口口(또는 간지), 수취인-在京 安永戶, 발송물-沙器 얼마’의 구성으로서 발송자와 수취인, 발송물의 양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편 ‘宅上’ 형은 ‘수취인-아무개(宅)’만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상의 차이는 수취자의 성격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宅上’ 형은 해당 화물의 직접 수취자로 생각되는 것과 달리 耽津 형과 安永戶 형의 수취인은 최종 수취인이 아니라 발송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화물을 서울에서 관청에 납부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일을 맡은 중간 수취자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서울에 있는 인물로 나타나는 隊正 仁守와 安永戶의 신분 및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연



대섬목간 C-4
(15.5×1.8×0.8)
(앞면) × (柳將命宅上砂器印) ×
(뒷면) 목흔 없음



대섬목간 기타-1
(29.7×3.2×0.9)
(앞면) 上卅七下卅 ×
(뒷면) 목흔 없음

구가 필요하다.

5. 기타

1) ‘上卅七下卅’ 목간

윗단을 세모꼴로 가공하였으며, 목간의 왼쪽 상단 부분은 V자형 결구를 한 흔적이 있다. 아래 부분은 결실되었다. G6에서 발굴 인양되었다.

이 목간은 다른 것들과는 문장 구조나 내용이 매우 다르다. 발송자나 수취인이 드러나지 않고, 다만 상하에 얼마라는 내용만 있다. 화물량의 단위가 없어서 얼마만큼의 양을 나타내는지는 알 수 없으나, 향후 선체인양이 완료되고 수중 도면이 완성되면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부호가 적혀 있는 목간

태안 대섬 출토도

자기는 커커이 포개고 그 안에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짚을 넣었다. 이후 주변에 4개의 목재를 덧대어 포장하고 선박에 적재하였다. 그리고 포장 목재에 동일한 사람의 수결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결이 쓰여진 포장 목재는 현재 여러 점 발굴 인양되어 있는데 60cm에 이르는 원형의 목재에서부터 5cm 정도의 파편들이 있다.

그런데, 다른 것과는 구별되는 수결과 함께 부호가 함께 적혀 있는 목간이 한 점 있다.

부호가 있는 목간은 하단이 결실되어 있다. 수결의 위아래에 목흔이 있고, 윗부분에는 ×가, 아래 부분에 ○가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H9에서 발굴되



대섬목간 기타-2
(22.7×3.1×0.6)

었다.

목간의 가운데에는 ‘홀’자로 보이는 글자가 있는데, 다른 수결과는 구별된다.

3) 미분류 목간들

태안 대섬 발굴 목간 중에서는 아직까지 판독이 정확히 되지 않았거나, 판독이 되었더라도 앞의 분류에 따르기 어려운 형태의 것이 몇 점 있다. 향후 판독이 완료되면 소개하도록 하겠다.

6. 맺음말

이상으로 충남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에서 인양된 목간을 분류 소개하고, 명문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였다. 형태상으로 분류하기에는 공통점을 찾기 쉽지 않아 내용 분류를 하였다. 태안 대섬 출토 목간은 도자기의 발신자, 수취자, 화물량 등을 표현한 물표다.

미술사에서는 도자기 변조방법, 문양, 기형 등을 근거로 하여 그 생산지를 추정하였고, 편년 연구를 진행해왔다. 또한 최근에는 도자기의 성분분석을 통하여 산지추정을 하는 과학적인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자기의 운반이나 유통 과정 등은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이번 대섬 출토 목간은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는 도자기에 한정되지 않고, 고려시대 경제활동에서 상품의 운송, 유통 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도 된다.

수중발굴 고선박의 하물적재 방법

김 병 근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학예연구사

I. 머리말

2007년 6월 충남 태안군 대섬 해역에서 '주꾸미가 건져 올린 청자매장처 발견'이라는 보도 자료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태안 대섬 발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수중발굴조사 결과, 1척의 고선박과 도자기 등 23,000여 점의 유물을 발굴하여 수중고고학을 널리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고, 고려시대 목간이 최초로 발견되어 중요한 역사적 자료를 제공하였다.¹⁾ 우리나라의 수중발굴은 1970년대 신안해저발굴을 시작으로 육상발굴과는 달리 대량의 유물이 발굴되는 특성과 함께, 시대상을 밝히는 다양한 자료로 조선사·경제사·도자사·생활사·해상항로·무역관계 등을 연구하는 기본 토대가 된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수중에서 발굴된 고선박과 유물을 중심으로 하물의 적재방법과 선상생활의 일면을 고찰하였다. 유적은 완도선·십이동파도선·태안선 등 고려선박을 중심으로 하고, 중국 선박인 신안선과 기타 유적에서 발굴된 선체와 유물들이다.

II. 고선박의 유물적재

1. 유물적재 유적

〈표 1〉 발굴지역 및 내용

구분	조사연도	발굴지역	조사결과
1	1976~1984	신안 방죽리	• 14세기 중국 무역선 1척 • 동전 28톤, 도자기 등 23,000여점 인양
2	1983~1984	원도 어두리	• 12세기 고려 선박 1척 • 도자기 3만여 점, 선원 생활용구 등 인양
3	1995~1996	무안 도리보	• 14세기 고려 상감청자 등 639점 인양
4	2002~2003	군산 비안도	• 12~13세기 고려청자 2,935점 인양
5	2003~2004	군산 십이동파도	• 12세기 고려 선박 1척 • 고려청자 8,121점 등 인양
6	2005	신안 인좌도	• 14세기말 고려시대 선박 1척 • 고려 상감청자 2점 인양
7	2006~2007	군산 야미도	• 12세기 고려청자 1,800여점 인양
8	2007	태안 대섬	• 고려청자 등 22,000여점 인양 • 청자 운반선 확인

2. 우리나라 고선박의 적재방법

1) 완도선

전남 완도군에서 처음으로 전통한선이 발굴되어 많은 관심

1.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보도자료, 『주꾸미가 건져 올린 청자매장처 발견』, 2007.6.4; 『고려청자를 다량 실은 운반선 발견』, 2007.7.24; 『고려청자 운반의 비밀을 품은 고려 목간 발견』, 2007.10.11. 2008년 4-6월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선체 및 유물인양 완료.

을 불러일으킨 유적이다. 1983~84년도 조사 결과 11~12세기 초기의 고려시대 선박 1척과 도자기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물의 상태는 갯벌 속에 묻혀 있어 보존상태가 양호하였지만, 선체는 부후가 심하였다. 선체의 인양은 해체 방식으로 인양하였으며, 10톤으로 추정되는 평저선으로 도자기·철제·목제·석제유물 등이 적재되어 있었다.

완도선은 고려시대의 배로서, 우리나라 선박 중 해양에서 발굴된 최초의 구조선으로 한선의 역사와 발달과정을 밝히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출토된 도자기의 제작지가 전라남도 해남군 진산리에 위치한 녹청자가마지로 밝혀져 11세기경의 도자기 제작과 수요·공급 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²⁾

선체에 적재된 유물은 주로 도자기였는데, 적재방법은 유물을 기형별로 완충용 짚과 포장용 목재를 덧대어 새끼줄로 묶어서 선체에 종횡으로 적재하였다.

2) 군산 비안도·야미도 해저 유물

전북 군산 비안도 수중발굴조사에서는 신고유물을 포함하여 12~13세기 경에 해당되는 고려청자 3,000여 점을 인양하였다. 선체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유물적재 방법은 알 수 없었다. 유물 매장처는 길이 20~30m(동-서), 폭 7~8m(남-북) 이고, 남북 양쪽에 깊이 20~30cm의 깊이로 패인 골이 동서방향으로 위치하였다. 해저는 단단한 갯벌로 유물은 개별적으로 엮여지거나 넓혀 묻힌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골이 형성된 단면층에서는 기형별로 포개진 채 유물이 묻혀 있었다.³⁾

따라서 비안도 유물은 기형별로 종횡으로 적재되었음을 확인하였지만, 완충역할을 하는 짚과 새끼줄 등은 발견되지 않

아 정확한 적재방법은 밝히지 못하였다.

군산 야미도 유물은 단단한 갯벌 층에 모래가 섞인 패각층 사이 30~90cm 깊이에 매장되어 있었다. 유물은 30~40여 점의 청자대접·접시가 1~3줄로 포개져있는 것과 한 두 점씩 교란되어 매몰된 것이 확인되었다.⁴⁾

3) 군산 십이동파도선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해역에서 실시된 수중발굴 조사에서는 도자기·철제술·청동순가락 등 총 8,700여 점의 유물과 선체를 인양하였다. 발굴된 도자기는 1990년대 조사된 전남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⁵⁾와 신덕리 가마터에서 발굴된 도자기와 비슷한 성격으로 보아 시대는 12세기 초로 추정된다.

화물 적재방법은 선체내부의 도자기 주변에 채워진 완충재료들이 수습됨으로써 지금까지 막연하게 추측되었던 도자기 포장방법을 밝힐 수 있었다. 완충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나무·짚·갈대를 사용하였다. 포장방법은 도자기를 번조 상태로 포개어 소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새끼줄로 이탈되지 않도록 묶고, 상하좌우에 충격에 손상되지 않도록 완충재로 짚과 갈대를 이용하여 포장하였다. 선체의 바닥에서도 갈대와 짚이 수습되어 이들 재료를 똑같은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일부 도자기는 번조 때 달라붙지 않도록 사용했던 태도받침이 붙은 상태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가마에서 꺼내자마자 포장하였던 도자기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국선인 신안선의 도자기들이 상자포장을 했던 것과 비교되는 도자기 운송방법이다. 이외 청동순가락과 철제술 등은 선체의 중간 부분인 돛대를 중심으로 뒤쪽에서 발견·인양되어 이전에 발굴된 완도선의 청동순가락과 철제술·

2. 문화재관리국, 『완도해저유물』, 1985, p. 62

완도해저유물에 대한 시대편년은 보고서에 11세기로 서술되어 있지만, 이후 수중에서 발굴된 도자기와 기타 육상발굴에서 발굴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집필한 저자가 12세기 초기로 수정을 하였다. 또한 선체는 완도선에 보이는 1단구조의 만곡중통채를 가장 이른 시기의 전통한선으로 보았지만, 십이동파도선이 2단구조의 만곡중통채와 도자기가 조금 이른 시기로 추정되어 필자는 이후 완도선의 시대편년을 12세기로 서술하고자 한다.

3. 국립해양유물전시관·전라북도, 『군산 비안도 해저유적』, 2004, pp. 41-46

4. 국립해양유물전시관·군산시, 『군산 야미도-수중발굴조사 보고서-』, 2007, p. 25

5. 목포대학교박물관·해남군, 『해남 진산리 녹청자 요지』, 1992, p. 56

청동완 등과 좋은 비교자료가 되었다. 이는 선원의 생활공간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취사와 휴식 공간이 선체의 중간 부분인 돛대가 중심임을 밝히는 자료이다.⁶⁾

적재방법은 짚 또는 갈대를 저판 바닥에 깔 다음 도자기를 종류별로 묶어 일정하게 종횡으로 적재하였다. 도자기와 도자기 사이는 짚이나 갈대를 완충재로 사용하였으며, 갈대와 짚 사이에는 소나무로 만든 포사용 받침대를 고정시켜 흔들림이 없이 안전하게 운반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받침대와 받침대 사이는 새끼줄로 단단하게 묶어 포장하였다.⁷⁾

4) 안좌선

전남 신안군 안좌면 금산리 해변에서 발굴된 안좌선은 선체 내부에 원통목재가 산재되어 노출되었으며, 돛대구멍을 중심으로 도자기, 도기 등 잔존 유물을 수습하였다. 또한 닻줄로 추정되는 밧줄과 주변에 산재한 선체편·원통목·돌판(취사용 단열재) 등을 수습하였다. 발굴결과, 선체는 3개의 저판재를 결구한 평저형이며, 우측으로 30° 정도 기울어져 매몰된 관계로 우현 외판 7단과 좌현 외판 2단이 남아 있었다. 잔존 길이는 14.5m, 잔존 너비 5m, 깊이 0.9m 로, 지금까지 인양된 한선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발굴당시 저판에서 청자상감국화문잔과 청자소접시가 출토되었는데, 이들 청자는 상감청자 쇠퇴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유물로 안좌선의 시대편년을 14세기 중·후반으로 밝히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었다.⁸⁾

안좌선은 적재유물이 많지 않아 정확한 적재방법은 알 수 없지만, 원통형 목재가 크기를 달리하여 적재되었고, 선체 중앙의 선저 부분에서 도자기와 도기가 발견되고 밧줄이 상당량 출토되어 화물선으로 판단된다.

5) 태안선

태안 대섬에서 발굴된 유물은 도자기가 주류를 이룬다. 도자기는 기형별로 겹겹이 층을 이루어 5층으로 선체에 적재되어 매장되어 있었다. 선체는 옆으로 눕어진 상태에서 동서방향으로 적재한 도자기와 함께 매몰되어 있었다.

적재 도자기 사이에 포장용목재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군산 십이동파도와 동일한 적재방법으로 완충재(짚)와 포장용 목재를 이용하여 새끼줄로 묶어 포장한 상태이지만, 통형잔과 소호 등은 가는 원통목으로 포장하고, 유병 등은 도자기 목 부분에 끈을 연결하여 적재하였다.

또한 양질의 과형주자의 경우 항(缸)속에 짚으로 완충한 후 과형주자를 적재하여 기형에 따라 포장방법을 다르게 하여 운반 과정에서 깨지는 것을 방지하였고, 청자바리대 등 중요한 유물은 짚으로 도자기와 도자기 사이를 층층이 완충하여 적재한 것으로 보아 기형에 따라 포장방법을 다르게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인양 과정 중에 묵서 흔적이 남아 있는 목간을 수습하였는데, 목간은 포장용 목재와 같은 방향으로 매몰된 경우는 드물고, 새끼줄·짚·포장용 목재 사이에 매달았던 흔적이 목간 상단의 형태에서 확인되었다.⁹⁾

목간 중에 하나는 앞면에 耽津亦在京隊正仁守가 적혀있고 뒷면에 '○○載船長'이 묵서되고, 다른 목간은 '○安永戶付沙器一裹'가 적혀있고 목간의 뒷면에는 수결이 있다. 이외에 '崔大卿 宅上' 등의 묵서 내용으로 도자기의 생산지뿐만 아니라 출항지·거래관계·운송책임자·선박 적재 단위 등을 확인하였다.

수중에서 고려시대 목간이 발견된 것은 최초이며, 유물을 인양하는 과정 중에 도자기를 포장하던 포장용 목재와 함께 발견되어 물포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⁰⁾

6.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십이동파도 해저유적』, 2006, pp. 241-242.

7.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십이동파도 해저유적』, 2006, p. 36.

8.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안좌선 발굴보고서』, 2006, pp. 23-34.

9. 신안해저유물에서 발견된 목간도 형태를 다르게 하여 소유주 등을 구별하였는데, 태안 대섬 목간도 형태를 달리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제작

10. 문화재청·국립해양유물전시관 보도자료, 『고려청자 운반의 비밀을 풀은 고려 목간 발견』, 2007.10.11.

6) 기타

기타 지역으로 무안 도리포에서 인양한 도자기는 동일 기종끼리 포개진 채로 인양되어, 기형별로 포장 운송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¹¹⁾ 1995년 6~7월에 발굴한 목포 달리도선은 고려시대 후기인 13~14세기경의 선박으로¹²⁾ 화물의 적재 여부는 파악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전통한선의 구조를 갖춘 고려시대 선박으로 완도선과 비슷한 용도로 추정된다.

3. 중국 고선박의 적재방법

우리나라에서 발굴조사된 중국 고선박은 신안선과 진도통나무배가 있지만 화물 적재는 신안선에서 확인되었다.

중국 원대의 상선인 신안선은 중국 선박 연구와 徐兢의 『宣和奉使高麗圖經』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면 중형 상선으로 200톤 이상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박이었다.

유물은 선체의 내·외부에서 발견되었는데, 내부에 적재된 도자기들은 길이 50~70cm, 너비 40~60cm, 높이 40~60cm 정도의 목재상자에 10~20개씩 포개서 끈으로 묶어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씩 정연하게 담겨져 있었다. 발굴 인양된 유물은 총 23,502점이며, 이 중 도자기·토기류는 20,661점으로 청자 12,359점, 청백자 5,303점에 달한다. 도자기는 중국산으로 용천요계와 경덕진요계 도자기가 주를 이루고, 천목과 균요계의 도자기 694점, 토기호 1,305점이 인양되었다. 이밖에도 금속유물 729점, 석제유물 43점, 목제유물 및 기타 574점, 동전이 약 28톤, 자단목 1,017본이 발굴되었다. 이들 유물 중에는 고려청자 7점을 비롯한 고려유물과 나막신·칼코 등 일본유물 20여 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목간이 360여점이 발견되었는데, 출항지·거래관계·화물주·운송책임자·동전무게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유물의 적재는 먼저 1천 본이 넘는 자단목이 선저에 골고루 반입되었고, 그 위에 동전을 적재하였다. 이후 윗부분에

도자기·칠기·금속제품 등의 고가품들이 많은 목상자에 격납되어 포개진 상태로 놓여 있었다.¹³⁾ 그리고 선원생활용구들이 선미부분에서 발견되었다.

Ⅲ. 적재방법의 특징

1. 우리나라 고선박

현재까지 발견된 선박은 대부분이 고려시대 선박으로 전시대를 망라한 적재방법을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발굴된 자료를 통하여 적재방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선박은 주로 도자기를 적재하였는데, 먼저 포장방법은 도자기를 구운 상태에서 꺼낸 다음 기형별로 포개어 쌓고 소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새끼로 이탈되지 않도록 묶었다. 또한 상하좌우도 충격을 받지 않도록 완충재로 짚과 갈대를 이용하여 포장하고 꾸러미를 일정하게 중횡으로 적재하였다. 선박의 바닥에서도 갈대와 짚이 수습되어 이들 재료를 바닥에 깔아 충격을 방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도자기 꾸러미를 층층이 쌓아 올려서 적재를 하였다.

그리고 일부 청자통형잔과 청자소호 등은 가는 원통목으로 포장하여 적재하였으며, 유병 등은 도자기 목 부분에 끈을 연결하여 적재하였다.

둘째, 태안 대섬에서 확인된 특징은 중요 유물들은 도자기 사이에 짚으로 완충을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과형주자는 항아리[圖] 속에 짚을 넣어 완충을 하고 과형주자를 포갠으며, 청자바리대 등에도 사이사이 짚을 넣어 기형에 따라 포장방법을 달리하였다. 그리고 목간을 매달아 구분을 하였다.

셋째, 일부 도자기가 번조과정에서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사용했던 태토받침이 붙은 상태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가마에서 꺼낸 상태에서 포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11.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무안 도리포 해저유적』, 2003, pp. 20-22.

12.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목포 달리도배』, 1999, pp. 57-58.

13. 김병근, 『수중고고학에 의한 동아시아 무역관계 연구』, 2004, pp. 187-188.

넷째, 이외에 청동손가락과 철제술·돌판 등은 선체의 중간 부분인 돛대를 중심으로 뒤쪽에서 적재되어 있다. 이는 돛대를 중심으로 선원들의 생활공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중국 고선박

신안선의 도자기는 상자포장을 하여, 우리나라 선박과는 다른 방법으로 적재를 하였다. 적재는 먼저 자단목을 선저에 적재하고, 그 위에 동전을 적재하였다. 이후에 도자기·칠기·금속제품·약제품 등을 목상자에 격납하여 포개진 상태로 쌓았다. 유물 틈새는 원충재와 나무편을 이용하여 운송의 안전을 기하였다. 이외에 후추 등을 목상자에 넣어 운송하였음이 확인되었다.

IV. 맺음말

현재까지 조사된 수중유적이 10여 곳에 불과하고, 적재방법이 확인된 선박은 신안선·완도선·십이동파도선·태안선이며, 관련 유적은 도리포·비안도·야미도 등이다.

우리나라 선박의 적재는 도자기의 경우 번조 후 기형별로 포개어 쌓고, 포장용 목재·원충재·고정줄로 묶음을 만들어 선저부터 층을 이루어 중횡으로 적재하였다. 일부 중요 유물은 도자기 사이에 원충을 하거나 원통목으로 포장하고, 유병 등은 도자기 목 부분에 끈을 연결하여 적재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 선박은 도자기를 상자포장 하였으며, 무거운 자단목이나 동전을 선저부터 끌고루 적재한 후 귀중품을 윗부분에 적재하였다.

기타 특징적인 사항은 우리나라와 중국선박에 모두, 선박의 중간 돛대를 중심으로 선원들의 생활공간 활용되었음을 발견된 선원생활용구를 통해 알 수 있으며, 화물은 목간을 매달아 구분을 하였다는 공통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수중발굴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대선박의 화물 적재방법을 간략하게 고찰하였지만, 한정된 자료와 기타 문헌과 비교가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면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 대섬 해저출토 고려청자의 성격

윤용이 | 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

I. 머리말

태안 대섬 해저출토 고려청자는 충청남도 태안군 근호면 정죽리에 소재하는 대섬 남방 해저에서 인양된 고려청자들로 주꾸미 어로작업 중 우연하게 해저에서 청자들을 발견하여 신고함에 따라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수중감사팀에 의해 긴급 탐사가 실시되어 인양된 고려청자들이다.

2007년, 2008년 2차에 걸쳐 발굴 인양된 유물은 2007년 22,577점(도자기 22,538점/ 목간34점)과 2008년 924점 등으로 총 23,462점에 달한다.¹⁾

II. 출토유물의 기형과 문양, 번조방법의 특징

1. 기형(器形)

태안 대섬 해저출토 고려청자의 기형은 대접과 접시, 잔, 합, 각접시, 발, 완, 통형잔, 뚜껑, 호, 소접시, 주자, 향로, 버루, 유병, 항, 반침대 등으로 다양하며 이중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접시류는 접시, 소접시, 화형접시, 각접시 등으로 나뉘고 있고 대접류는 외반된 구연부를 지닌 것들이었다. 청자발은 3~4개씩 포갠 바릿대들로 1조를 이루었으며, 완은 약간씩 발견되었다. 청자잔과 청자호가 약간씩 있으며, 대표적인 것은 청자통형잔으로 뚜껑과 동체가 철화의 초문을 시문한 예들이 특징적이었다. 유병과 항 그리고 참외형주자, 철백화의 점문두꺼비형버루, 개성 있게 상형된 사자뚜껑



도1) 태안선 출토 고려청자

향로 등이 백미를 이루고 있다.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접은 구부가 외반 되었고 동체는 둥글게 곡선을 이루었으며 내저에 둥근 원각이 깎여있다. 굽다리 는 안으로 숙여 세워졌으며 낮다. 문양은 내·외면에 없는 것과 내면에 양각·음각으로 시문된 예들이 발견된다.

무문의 대접들 중에는 내측면에 한 줄의 음각선이 돌려 있거나 동체 여섯 곳에 홈이 돌려 있는 예도 있다.

양각의 대접들은 내측면에 꼭차게 모란당초문을 4곳에 배치하고 내면에 음각선과, 구연에 화형의 홈을 돌린 것들로 양각이 뚜렷하며, 모란당초문의 잎맥에도 선이 나있을 정도로 정교하다. 양각의 연판문과, 음각의 대접 역시 내측면에 한 줄의 음각선이 돌려있고, 내측면에 모란꽃과 국화꽃 줄기를 기는 음각선으로 나타낸 것과 들성들성 나타낸 것, 파도에 어문을 나타낸 것, 구름과 앵무문을 나타낸 것, 파도문만 나타낸 것들이 있다. 문양들은 모두 내면에만 나 있으며, 가는 음각으로 정교하다. 굽다리에는 회백색의 내화토 빛음받침을

네 곳, 다섯 곳에 받쳐 구운 흔적이 나 있으며, 포개 굽지 않았다. 기벽은 얇고 유색은 녹청색, 녹갈색을 띠고 있으며, 유약은 얇게 시유하였고 광택이 있다.

접시의 경우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다. 높이가 낮고, 외반된 구부를 지닌 소형의 접시들이 있다. 굽다리는 평저이거나, 굽안바닥을 깔고 회백색의 내화토받침을 하였으며, 무문의 예들과 압출양각의 모란문을 꼭차게 내면에 시문한 예들 그리고 내면에 8줄의 백니로 그린 백화수법의 접시 등이 있다. 굽다리에는 내화토 빚음받침으로 네 곳에 구운 흔적이 있으며, 유색은 녹청색과 녹갈색을 띤 예들이 섞여 있다.

접시 중에는 동체 아래에서 각이 진 각 접시들이 있다. 이들은 구부가 외반되었고, 구연이 화형으로 흠이 나 있는 것들과 무문, 양각, 음각, 백화, 철화기법으로 장식된 모란문, 앵무문, 연화문, 화문, 선문이 시문되었다. 굽다리는 낮고 작으며, 내화토 빚음받침으로 구워졌다. 기벽이 얇고, 문양은 예리하며, 녹청색, 녹갈색을 띠고 있다. 특히 철화선문, 백화선문기법의 예도 양각과 음각의 기법과 섞여 주목되었다. 원형의 접시로 내저에 포개어 구운 흔적의 접시들도 섞여 있다.

청자완은 드물게 발견되는데 외면에 양각의 연판문을 시문한 것과 내측면에 국당초문을 세 곳에 압출양각으로 시문한 예와 내측면에 화형을 압출양각으로 나타낸 것 그리고 무문의 완이 섞여 있다. 청자잔 중에 외면에 음각으로 국화문이 간결하게 시문된 예도 섞여 있다.

청자통형잔은 뚜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섞여 출토되었다. 뚜껑에 꼭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으며 뚜껑에 철화의 초문이 간결하게 시문된 것과 동체에도 철화 초문이 시문된 것이 섞여 있다. 뚜껑 상면에 모란문을 음각한 것도 있다. 유색은 비색과 녹갈색을 띤 것이 있으며 굽다리에 회백색의 내화토 빚음받침이 3~4개소 나 있다.

청자유병이 있으며, 광구의 각이진 구부에 동체가 납작한 것, 통통한 것이 있으며 무문이다. 청자소호는 뚜껑이 있으며 구부가 세워지고 접시형의 뚜껑이 있다. 녹청색의 유색에



도 2) 태안선 출토 고려청자

내화토 빚음받침으로 구운 흔적이 나 있다.

청자참외형주자가 청자항과 함께 출토되었는데, 동체가 풍만하고 골이 파있으며, 주구와 손잡이가 있는 전성시기의 형태이다. 담녹청색을 띠고 있으며, 뚜껑에 꼭지가 있다. 회백색의 내화토 빚음받침의 흔적이 나 있다. 청자항은 구부가 넓고 동체가 풍만한 형태로 담녹청을 띠고 있고 무문이다.

청자받침대로 독립문표를 하고 있으며, 붓 받침대나 수저 받침대로 추정되는 예로 작고 큰 것이 섞여 발견되었다.

청자철백화점문두꺼비형연적은 처음 발견되는 것이며 등부분을 깎아내 먹을 가는 부분으로, 등허리 주변을 굽게 흑백의 철백화점문을 시문한 것으로 회백색 내화토 빚음받침으로 구운 흔적이 나 있다.

청자사자뚜껑삼족향로는 향로 아래쪽의 전이 파손되어 있고 사자뚜껑의 꼬리부분도 떨어져 있다. 둥근 원형위에 딱 벌어진 사자와 큰 입, 콧구멍, 눈 등이 익살스럽게 표현되었다. 음각으로 측면의 털갈기를 표현하였고, 몸체 일부가 터져 있다. 눈에는 철백화의 눈동자 표현이 나 있다. 담녹청색의 유가 얇게 시유되었으며 뚜껑 안쪽에 내화토 빚음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외에 백자국형소합이 출토되었는데, 윗면이 결실되었다. 청백색의 유가 시유되었으며, 바닥에는 내화토 빚음받침의 흔적이 7곳에 나 있다.²⁾

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추진위원회, 『태안역사문화학술발표회 학술자료』 2007. 10. 12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태안 대섬 앞바다 수중발굴자료』 2008. 5. 29 등을 참조함.

2. 태안 대섬 해저철도 고려청자의 기형은 2008년, 2월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보존연구소에서 실견한 자료와 전시관에서 최근에 종류 별로 찍어 보낸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하였음.

2. 문양(紋樣)

태안 대접 해저출토 청자의 문양으로는 대접과 접시류에 주로 시문된 음각의 앵무문, 모란당초문, 국당초문, 파도어문 등과 압출양각의 모란당초문, 국당초문을 짝차게 시문한 것들과 철화, 백화의 선문, 초문 등을 들 수 있다.

앵무문 한쌍을 그릇의 내면에 가는 음각으로 약동하는 모습을 새긴 대접과 접시의 예가 많다. 대칭으로 한 쌍을 새겼으며 음각기법이 주로 쓰였다.

모란문은 모란당초문이나 모란절지문으로 활짝 핀 꽃과 잎, 줄기를 접시나 대접의 내면에 가는 음각으로 나타낸 것과 압출양각수법으로 틀로 된 도범으로 찍어낸 후 조각도로 다듬어 시문한 예로 각접시와 대접에 주로 시문되었다. 이러한 음각의 모란문과 압출양각의 모란문은 음각의 앵무문과 함께 가장 많은 문양을 차지하고 있다.

연화문은 연화당초문으로 접시와 대접에 음각과 압출양각 기법으로 약간씩 나타나고 있다. 모란문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성숙기의 문양 시문이다.

국화문은 국화당초문으로 접시와 대접, 완 등에 음각과 압출양각수법으로 드물게 나타나고 있으며, 철화청자에 많이

보이는 문양이다.

파도문과 파도어문이 가는 음각으로 대접의 내면에 나타나고 있으며, 화문, 선문 등도 있다. 철화의 선문, 백화의 선문, 철백화의 점문 그리고 철화의 초문이 접시, 통형잔, 사자뚜껑향로, 두꺼비형벼루 등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문양은 음각의 앵무문, 양각의 연판문, 압출양각의 모란문과 국화문 그리고 철화, 백화의 선(도 3), 점문이 주로 시문되었으며, 당초문, 여의두문, 뇌문, 연판문대 등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3. 번조방법(播造方法)

태안 대접 해저출토 청자들의 번조방법은 대접과 접시, 완과 발, 통형잔, 호, 주자, 향로, 벼루 등에 보이는 회백색의 내화토 빚음받침으로 세 곳, 네 곳, 다섯 곳을 굽다리나 안바닥에 받쳐구운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원형접시 등의 내저 중앙에 세 곳에 포개어 구운 내화토 빚음받침의 예들도 있어 모두 내화토 빚음받침으로 구웠으며, 규석받침이나 점토가 섞인 내화토 빚음받침의 예는 발견되지 않았다.

합이나 통형잔의 뚜껑이나, 바닥에도 같은 회백색의 내화토 빚음받침이었고, 내화토 빚음받침이 얇거나, 두꺼운 차이가 나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내화토 빚음받침은 초기부터 12세기 말까지 이어온 전통으로, 회백색의 내화토받침에서 회백색의 내화토 빚음받침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이러한 내화토 빚음받침 시기에서 13세기 전반의 군산 비안도 해저출토 3,117점³⁾과 보령 원산도 해저출토의 1,000여 편의 청자편들⁴⁾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점토가 섞인 내화토 빚음받침(연탄재 모습)으로 전환되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굽의 경우 안으로 경사져 세워졌고 굽 안바닥이 작고 낮아진 시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도 3) 백자로 그린 백화수법의 접시

3. 국립해양유물전시관, 『群山 飛雁島 海底遺蹟』, 2004 참조.

4. 국립해양유물전시관, 『保寧 元山島』, 2007 참조.

유색은 연두색, 담녹청색, 녹갈색, 암록색이 함께 섞여 있으나 담녹청색의 청자유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양질청자, 비색청자의 유색도 많이 보이고 있어 전성기 청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III. 출토유물의 제작시기와 제작산지

1. 제작시기

태안 대섬 해저출토 고려청자들의 제작시기를 현존하는 12~13세기 청자자료들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장단군 장도면에 있는 장릉(長陵)에서 1146년 인종 시책과 함께 출토된 청자참외형병, 청자방형대, 청자국형합,



도 4) 청화참외형병, 1146년 하한

청자통형잔(국립중앙박물관소장) 등이 있다.⁵⁾

청자참외형병은 몸체가 참외형이며, 굽다리에는 회백색의 내화토반침 흔적이 있고, 청자방형대는 청자유가 두껍게 시유되었고 굽다리에는 내화토반침 자국이 나 있다. 청자국형합은 뚜껑과 아래쪽이 국화잎으로 꼰이 나 있으며, 청자통형잔은 꼭지가 있는 뚜껑에 굽바닥에는 규석반침으로 정교하게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있다. 모두 담녹청색유의 비색유가 전면에 두껍게 시유되어 있다.

태안 해저출토청자에 청자참외형주자와 백자국형합 그리고 청자통형잔 등이 장릉출토의 청자들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참외형의 몸체를 한 것이 공통점이며, 회백색의 내화토반침의 흔적을 들 수 있다. 청자국형합과 백자국형합은 크기가 다르나 비슷하며, 청자통형잔도 비슷하다. 다만 장릉출토의 청자들이 문양이 없는 것에 비해 태안출토 통형잔에는 철화의 초문이 시문된 것과 국형합이 촘촘한 것 등으로 보아 장릉출토의 청자들보다는 더 발전된 1146년 이후의 청자로 추정할 수 있다.

고려사에 보이는 1157년 양이정(養怡亭)과 청자와(靑瓷瓦)의 기록에 부합되는 청자들로서 1927년 개성 만월대 고려궁지에서 수습된 청자들과 1965년 국립박물관에서 발굴조사된 강진 사당리요지 출토의 청자편들이 있다.⁶⁾ 이들 청자와(靑瓷瓦)편들은 청자양각모란문수막새, 청자양각당초문암막새를 비롯하여 청자음각모란당초문이 팽차게 시문된 청자와 편들로서 약간의 상감기법(象嵌技法)이 시문된 청자편들과 함께 출토되었다. 이중 비스듬히 깎은 넓은 음각수법과 양각 중압출양각의 수법이 시문된 청자편들이 팽차게 시문되어 발견된 것이다.

태안 해저출토 청자들 중 압출양각의 수법으로 모란문, 모란당초문이 시문된 대접과 접시의 예에서 유사한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모란의 잎맥까지도 표현된 것이 동일하다. 또한 비스듬히 깎은 넓은 음각의 모란절지문, 연화문 등이 함께 발

5. 野守 健, 『高麗陶磁研究』, 圖書刊行會, 1974, pp10-12.

6. 崔淳雨, 『高麗靑瓷瓦』, 『미술자료』13, 國立博物館, 1969.



도 5 청자철화모란당초문 '신유' 명주자, 1201년



도 6 청자철화초문 '경인' 명대병, 1230년



도 7 청자음각 '기축' 명광구병, 1229년

견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가는 음각의 모란당초문, 연화당초문 등으로서, 1157년 청자와에 보이는 정교한 문양보다는 간략해져 가고 있어, 1157년 이후에 제작된 청자들로 추정된다. 회백색의 내화토받침에서 내화토 빚음받침으로 변화되어 발견되고 있음도 더 발전된 시기의 것으로 볼 수 있다.

1201년으로 추정되는 <청자철화모란당초문 '신유' 명주자>와 1229년으로 추정되는 <청자음각 '기축' 명광구병(靑瓷陰刻 '己丑' 銘廣口瓶)>(호암미술관소장)과 1230년으로 추정되는 <청자철화초문 '경인' 명대병(靑瓷鐵畫草紋 '庚寅' 銘梅瓶)>(국립중앙박물관소장) 그리고 1241년으로 추정된 <청자상감모란문 '신축' 명벼루(靑瓷象嵌牡丹紋 '辛丑' 銘硯)>(호암미술관소장), 1253년으로 추정되는 <청자상감 '계축' 명발(靑瓷象嵌 '癸丑' 銘鉢)>(국립중앙박물관소장)의 편년자료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1237년 석릉출토의 청자들과 1239년 곤릉출토의 청자들과 그리고 1220년대로 추정되는 군산 비안도 해저출토 청자들과 강진 사당리 7호 요지 출토의 철화 '성' 명청자편들(국립중앙박물관소장)의 자료를 들 수 있다.

1201년(신유)으로 추정되는 <청자철화모란당초문 '신유' 명주자>는 관동 대지진으로 소실되어 지금은 볼 수 없다. 철화

기법으로 동체 전면에 모란당초문을 가득 시문하였고, 전부에는 국판문대를 이루었다. 이 주자와 같은 것은 인양되지 않았으나, 철화기법의 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철화초문의 통형잔과 비교된다.⁷⁾

1230년으로 추정되는 <청자철화초문 '경인' 명대병>의 동체에 철화기법으로 초문을 간략하게 시문하였는데, 이러한 초문이 태안 대섬 해저출토 통형잔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 주목된다.⁸⁾ 1229년으로 추정되는 <청자음각 '기축' 명광구병>의 목은 기늘고 좁아진 동체를 이루었다. 이와 유사한 호림박물관 소장의 <청자철화초문광구병>에 동체 두 곳에 간략화된 초문을 시문하여, 통형잔에 보이는 철화의 초문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241년으로 추정되는 <청자상감모란문 '신축' 명벼루>의 경우 음각과 상감으로 시문되었고, 굽다리에 점토가 섞인 내화토 빚음받침의 흔적이 남아있다. 1253년으로 추정되는 <청자상감 '계축' 명발> 역시 점토가 섞인 내화토 빚음받침을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있다.⁹⁾

1237년 축조한 희종의 석릉(碩陵)출토의 청자들은 대접과 접시, 잔, 합, 대병, 호, 항, 잔탁들로서 음각, 압출양각, 철백

7. 野守 健, 『高麗陶磁研究』, 圖書刊行會, 1974, pp89-89.

8. 野守 健, 앞의 책, p87.

9. 張南原, 『고려중기 靑瓷의 연구』, 이화연구총서3『혜안』, 2006, pp305-306



도 8) 청자상감모란문 '신축' 명벼루, 1241년



도 9) 청자상감 '계축' 명발, 1253년

화, 상감기법이 사용되었는데, 철백화기법은 점시, 통형잔에 화문을 시문하였다. 점토가 섞인 내화토 빚음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그 동안 12세기로 추정되었던 청자들은 13세기 전반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¹⁰⁾

1239년에 축조된 元德太后的 곤릉(坤陵) 출토의 청자들도 기린뚜껑향로, 대접, 접시편들로 상형의 청자향로들이 이 시기에도 제작되었음을 보여주었다.¹¹⁾

1220년대로 추정되는 군산 비안도 해저출토 청자들은 3,117점에 달하며 대접과 접시, 통형잔, 완, 각접시, 화형접시, 향합, 잔 등의 기형에 앵무문, 모란문, 연판문, 운학문, 국화문 등이 음각, 압출양각, 상감, 철백화기법으로 시문되었다.¹²⁾ 점토가 섞인 내화토 빚음받침으로 3~5곳에 받쳐 구웠으며, 강진 용운리10-2호 출토 유물과 닮아 있었다.

이들은 태안 대섬 해저출토 청자들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13세기 초에 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음각 앵무문접시, 대접, 양각연판문완, 양각모란절지문각접시, 통형잔, 뚜껑, 압출양각모란문대접 등이 유사하며, 점

토가 섞인 내화토 빚음받침이 중심이나, 내화토 빚음받침의 예도 있어 태안 대섬 출토 청자들이 1220년대 군산 비안도 출토 청자들보다는 먼저이며 가까운 시기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1230년대로 추정되는 보령 원산도 해저출토 청자들은¹³⁾ 음각앵무문대접, 접시편, 청자평저접시, 양각모란절지문각접시, 양각운학문완, 통형잔, 참외형주자, 음각선문합, 사자뚜껑향로, 유병, 잔 등으로 기형과 문양이 닮은 예들이 많으며, 점토가 섞인 내화토 빚음받침과 규석받침의 흔적이 남아있다. 비안도 출토 청자들과 원산도 출토 청자들과 유사성이 많으나 태안 대섬 출토 청자들은 먼저 제작된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부안 진서리 18호 요지출토 청자들과 부안 유천리 7구역 출토 청자들 그리고 강진 용운리 10-2호 가층 출토의¹⁴⁾ 청자들과 기형, 문양, 회백색 내화토 빚음받침과 유사하여 비교된다.

강진 사당리 7호요지 출토 <철화 '성(成)' 명 청자편 자료>(국

10. 國立文化財研究所, 『江華碩陵』, 2003.

11. 國立文化財研究所, 『강화 고려왕릉(가릉, 곤릉) 발굴조사-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자료』, 2004, 11, 29.

12.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군산 비안도 해저유적』, 2004, 출토유물을 12세기후반으로 비정했으나, 1237년 석릉출토 유물들과 기형, 문양, 번조방법이 유사하여 1220년대로 새로이 추정하였다.

13.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보령 원산도』, 2007, 1237년 석릉 출토 유물들과 비교하여 1230년대로 추정하고 있다.

14. 국립중앙박물관, 『강진 용운리 청자요지 발굴조사보고서-도판, 본문편』, 1996, 1997.

15. 국립중앙박물관, 『고려도자 명문』, 1992, pp21-29.

16. 임경희, 최연식, 『태안 청자 운반선 출토 고려목간의 현황과 내용』, 『신승도 목간의 향연』, 한국목간학회, 2007, pp23-35.

립중앙박물관소장)가 있다.¹⁵⁾ 청자음각앵무문대접편, 청자양각연판문완편, 청자양각모란절지문각접시, 청자통형잔편, 청자합의 굽 안바닥에 모두 철사로 '성(成)' 명을 쓴 청자편들과 기형이 닮아있다. 모두 15점의 이들 강진 사당리 7호 요지출토 청자편들은 태안 해저출토 청자들과 형태, 수법, 문양 등이 비슷하다.

이처럼 태안 대섬 해저출토 청자들은 12세기, 13세기의 편년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1200년 초인 13세기 초반에 제작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2. 제작산지

청자의 출항지 등이 표시된 화물표인 목간(木簡)은 적외선 촬영과 전문가의 판독결과 3가지로 분류되었다. 앞면에 耽津○在京隊正仁守' 뒷면에 '○○載船進'의 목간을 살펴보면, 이 청자 운반선이 탐진(耽津; 강진의 고려시대 이름)에서 출발하여 在京 즉 개경으로 향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⁶⁾ 강진 일대에서 청자를 제작하여 선적했음을 목간은 밝혀주고 있다.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강진일대의 용운리 9호요지·10호요지, 삼흥리요지, 사당리 7호일대 요지, 계율리 요지 등이 알려져 있다. 이중 강진 용운리 10-2호 요지출토의 청자들과 태안 대섬 해저출토의 청자들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강진 용운리 10-1호 층의 출토 양상은 백색내화토받침과 햇무리굽완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후햇무리굽완이 출토되었다. 기형은 받, 완, 접시, 잔탁, 호, 병, 장고 등이 있다. 10-2호 층의 출토품은 회중 석릉 출토의 청자들과 보령 원산도 출토 유물들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강진 용운리 10-2층에서는 양각모란절지문대접, 양각연판문완, 음각파도문완, 음각어문완, 양각운학문완, 음각국당초문잔, 음각연화문대접, 압출양각모란당초문소접시, 각접시들, 화형접시, 통형잔, 뚜껑, 합, 참외형주자, 유병, 향, 향로, 받침대(독립문형)와 철화선문접시, 백화선문접시 등 태안 대섬 해저출토의 청자들에서 보이는 거의 모든 기형과 문양, 기법이 일치하는 청자들이 출토되고 있어 제작산지를 알려주고 있다.

태안 대섬 해저출토 청자들과 강진 용운리 10-2호 요지출



도 10) 군산 비안도 출토 고려청자

토 청자들의 굽다리에는 회백색의 내화토 빗음받침이 받쳐져 있으며, 기벽은 얇고 문양은 예리하다. 포개어 구운 접시들도 있으나 대부분 갑발에 넣어 가는 음각이나 압출양각의 기법으로 제작된 양질청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IV.

태안 대섬 해저출토 고려청자들은 2007년, 2008년 2차에 걸쳐 총 23,462점이 발굴 인양되었다.

이들 청자들은 기형이 다양한 가운데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접과 접시의 경우 구부가 외반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기벽은 얇고 예리하다. 문양으로는 대접과 접시에 많이 시문된 음각의 앵무문, 양각의 모란당초문 등이 있으며, 철화의 초문이 시문된 통형잔 등이 있다.

변조방법은 회백색의 내화토 빗음받침으로 3곳, 4곳을 굽다리나 안바닥에 받쳐 구운 것이 일반적이었다.

제작시기는 현존하는 12, 13세기의 청자 자료들과 비교·분석해 본 결과, 13세기초인 1200년 초에 제작되었으며 1220년대의 군산 비안도 해저출토 청자들과 가장 가까웠다.(도 10)

제작산지로는 목간에 묵서된 강진(탐진)일대로서, 1980년대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굴 조사한 강진 용운리 10-2호 요지를 유력한 제작 산지로 추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태안 대섬 해저출토 고려청자들은 13세기 초에 강진 용운리에서 제작되어 개경의 관청 및 최씨무신정권을 위한 공물로서 강진을 출발하여 운반되다가 침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의 청자발우

- 태안 대섬 출토품을 중심으로 -

박 지 영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학예연구사

I. 머리말

2007~8년 충남 태안군 대섬 수중발굴에서 인양된 유물은 도자기, 선체 일부와 부속구, 목간, 철제 솥, 닻돌 등이 확인되었다. 이 중 도자기들은 2만 3천여 점으로 출토유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도자기 중에서는 접시와 대접의 출토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양한 기형과 크기의 접시와 대접과 더불어 또 여러 가지 양상을 보이며 다량 출토되었다. 이 밖에 잔과 합, 유병, 소호 등의 소형기물이 수습되었으며 항, 도기호와 같은 비교적 크기가 큰 기종도 소량 확인되었다.



도 1) 청자발우 선적상태(태안 대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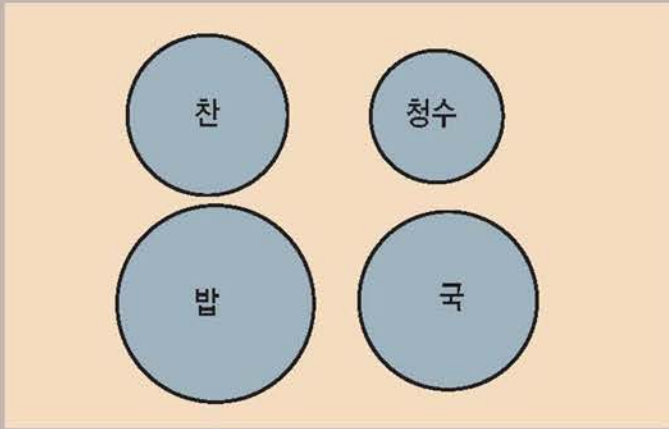
특수한 기물로는 퇴화와 철화로 장식된 두꺼비모양의 벼루나 해학적으로 묘사된 사자장식의 향로, 백자소형합 등이 있으며, 청자발우도 단연 눈에 띄는 유물이다. 3~4개가 1 조를 이루는 청자발우 150여점이 포개져서 발견되었는데, 기물과 기물 사이를 짚으로 채워서 완충하여 포장되어 있었다.(도 1) 청자발우가 이번 발굴조사에서 처럼 다량으로 출토되어 보고된 바 없으며, 지금까지 도자나 기타 공예 분야에서도 발우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발우의 기원과 쓰임새를 보고, 그 중에서도 고려시대 청자발우의 양상을 태안 대섬 출토품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II. 발우의 기원

鉢盂는 사찰에서 사용하는 식기로 범어인 파트라(Pātra)의 음역인 발다라(鉢多羅)의 약칭으로, 발(鉢)·벌라(伐羅)·바루 등으로 부른다. 또 應量器, 應器라고 번역되어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승려의 식기를 의미하나 托鉢을 행할 때, 불전에 공양드릴 때 사용하기도 하는 발우는 比丘18持物의 하나로 불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발우는 주로 4합 발우를 이용하며, 4개의 발우는 제일 큰 발우 안에 포개지게 된다. 오늘날에는 가장 큰 것부터 차례로 밥을 담은 어시발우, 국을 담은 국발우와 반찬을 담은 반찬발우, 그리고 청수를 담은 청수발우로 칭해지고 있다. 평소에는 포개진 발우 속에 이들 부속물을 담아 일정한 장소에



도 2) 발우의 처림

질서 있게 놓아서 보관을 한다. 공양 시에는 어시발우는 왼쪽 아래에, 국발우는 오른쪽 아래에 놓고, 오른쪽 위에는 청수발우, 왼쪽 위에는 반찬 발우를 놓는다.(도 2)

4합 발우가 널리 사용되는 것은 발우의 유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四分律』 제 31권에는 최초의 발우에 대해 적고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

49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부처에게 두 명의 장자가 꿀에 탄 보릿가루를 올렸다. 이를 어떤 그릇에 받아야 할까 생각하셨는데 이때 사천왕이 사망에서 다가와 각자 지니고 있던 금발우를 올렸다. 세존께서는 묵묵히 계시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금발우는 출가한 자에게 적당하지 않은 그릇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사천왕이 금발우를 버려두고 은발우를 올렸다. 이어서 파저, 유리, 마노, 차저, 진주 등으로 만든 발우를 올렸으나 세존께서는 이런 것을 하나도 받지 않으셨다. 마침내 사천왕은 각자 궁으로 돌아가서 돌로 만든 발우를 가지고 왔다. 이 발우는 감청색이 영롱하게 비치는 것으로 사천왕이 다시 이것을 가지고 와서 바치니, 세존께서는 그들의 것을 사양하지 않고 모두 받으셨다. 그리고 차

레로 포개니 그것은 하나의 발우가 되었다. 따라서 바깥쪽에서 보면 네 개의 테두리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발우의 재질에 관해서는 6~10 종류가 제시되어 있다. 『大唐西域記』에서는 6 종류, 『四分律』은 8 종류, 『十誦律』에서는 10 종류의 재질을 적고 있다. 공통적으로 부처님이 허락한 발우는 鐵鉢과 瓦鉢이다. 石鉢은 부처님만이 쓸 수 있으며, 木鉢이나 보배발우는 금하였다.²⁾

발우의 크기에 대해서는 『高僧法顯傳』에 적혀 있는데, 발우의 용량은 4.04l 이고 두께는 4.8mm에 해당된다.³⁾ 발우의 용량에 따라 上鉢·中鉢·下鉢로 나뉘는데 이는 상발로 볼 수 있다.

부처님의 발우는 바로 이 나라에 있다. … 이곳에는 대략 7백여 명의 승려가 있는데, 정오가 되면 부처님의 발우를 꺼내서 속인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 공양을 올리고 그 뒤에 점심을 먹는다. 해질 무렵에 향을 사를 때도 또한 그렇게 한다. 부처님 발우는 용량이 2斗 정도로 색깔은 흑색이 짙은 잡색이며 四際가 분명하고 두께는 2分 정도로 매우 광택이 있다

발우의 색에 대해서는 『摩訶僧祇律』 제 29권에서 적고 있는데, 그 색을 내기 위한 방법까지도 기술하였다.

구워서 발우를 만들고는 세 가지의 빛을 내야 하니, 하나는 공작새의 목구멍 같은 색이요, 둘째는 비룡가새와 같은 색이요, 셋째는 집비둘기 같은 색이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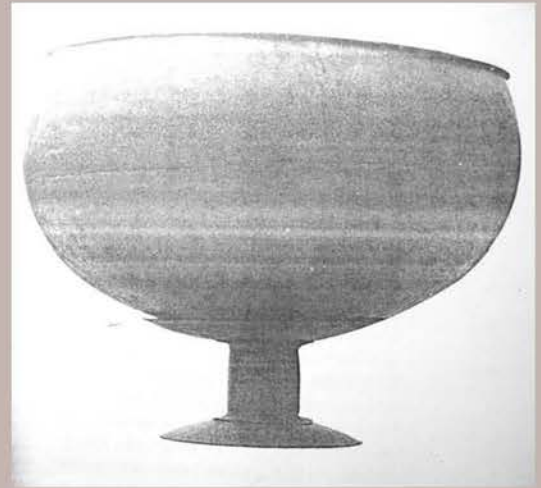
발우의 형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四分律』의 내용을 통해서 발우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발우를 바닥이 아닌 풀 위에 두거나 고정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발우가 바닥에 똑바로 서기에 안정적이지 않은 형태, 즉 굽이 없는 형태임을 의미한다.

이에 『十誦律』에서는 바닥이 둥근 발우를 받치기 위한 받

1. 발우의 유래에 대한 기록은 『四分律』외에도 『摩訶僧祇律』, 『太子瑞應本起經』, 『大唐西域記』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동일하다.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四分律』23; 『한글대장경-摩訶僧祇律』12; 『한글대장경-大唐西域記』.
 2. 『四分律』 제 9권 “여섯가지종류의 발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크기는 쇠로 만든 鐵鉢과 진흙으로 만든 泥鉢로 나누어진다. 그 밖에 우리 나라에서는 나무로 만든 목발이 주로 쓰이고 있는데, 인도 교단에서는 목발은 외도의 기물이라 하여 금지하기도 하였다. 목발은 나무를 깎아 만들어 칠을 하는데, 대개 은행나무, 단풍나무 등의 통나무를 토막내어 만든다.” 『十誦律』 제 56권 “금발, 은발, 유리발, 마니발, 동발, 백랍발, 목발, 석발 등의 8종의 발우를 열거하였으나, 비구들은 대체로 鐵鉢 또는 니발이나 토발을 말하는 瓦鉢을 쓰고 부처님은 홀로 石鉢을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鉢法』이란, 부처님께서 그 소지를 청하시니 두 가지 발우인 오지발우, 석발우 이외에 여덟가지 발우, 즉 금발우, 은발우, 유리발우, 마니발우, 구리발우, 납발우, 나무발우, 돌발우를 소지하지 않는 바로 이것을 발우법이라고 한다.”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十誦律』234.
 『四分律』 제 31권 “사천왕이 금발우를 버려두고 은발우를 올렸다. 이어서 파저, 유리, 마노, 차저, 진주 등으로 만든 발우를 올렸으나 세존께서는 이런 것을 하나도 받지 않으셨다. 마침내 사천왕은 각자 궁으로 돌아가서 돌로 만든 발우를 가지고 왔다.”
 3. 이주형, 『발우(鉢盂)의 유전(流轉)-인도 불교미술의 불발(佛鉢) 경배-』, 中央아시아研究 제 12호, p.98.



도 3) 黑釉鐵畫 '壬午' 銘草花文臺 높이 4.1 지름 6.0 오쿠라콜렉션



도 4) 남방불교 승려들이 사용하는 철발우와 '工'자 모양 받침

침대를 제작하는 법을 기록하였는데, 이를 鉢支法이라 한다.⁴⁾ 발우 밑에 “만다라의 鉢”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圓으로 상징되는 만다라가 바로 발우이며, 鉢은 받침대인 썸이다. 이 “만다라의 鉢”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도미상으로 분류되었던 黑釉鐵畫 '壬午' 銘草花文臺(도 3)일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쫓대나 잔대로 추정되기도 하였으나, 용례가 없어서 명확한 용도를 알 수 없었다. 黑釉鐵畫 '壬午' 銘草花文臺와 비슷한 예가 발우의 받침으로 사용되는 남방불교의 예들이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도 4)

로는 思惱寺의 청동발우가 전한다. 사뇌사의 청동발우는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데, 반구형과 역사다리꼴을 이루며 구연부가 안쪽으로 꺾여진 형태들도 있다.(도 5)

사뇌사의 발우 중에 형태가 동일하고 일정한 비율로 축소된 것이 3점 있는데, 모두 구연부가 안쪽으로 심하게 꺾여 있다. 특히 가장 큰 발우의 구연부에는 「統化十五年丁酉四月日禪院(寺)於△鉢△工...」등 22자 정도의 글자가 魚子文 기법으로 새겨져 있다. 통화 15년은 997년이므로, 발우 연구의 중요한 편년 자료이다.(도 6) 사뇌사의 발우들은 그 조형이 다양하며, 완전한 반구형이라기보다는 구연으로 올라가면서 더 벌어져진 형태이며, 구연부가 안쪽으로 심하게 꺾여 있는 형태이다.

III. 고려시대의 청자발우

1. 고려 발우의 재질과 쓰임새

발우의 재질

고려시대의 발우를 살펴보면, 부처님이 허락한 2종류의 발우인 철발우와 와발우가 있는데, 철발우는 금속제 발우를, 와발우는 도자기로 만든 발우를 의미한다. 고려의 금속제 발우



도 5) 청동바루
구경 15.0-15.3 높이 5.7-15.0 사뇌사지

4. 『十籟律』제 56권 鉢支法(발우의 받침대를 만드는 법)이란, 부처님께서 붓쇠·돌·구리·쇠·납·주석·백랍·질그릇으로 만든 것만 청허하셨으니, 마땅히 잘 보관하여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이를 다시 만드느라 형도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나니, 이러한 것을 받침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도 6) 청동발루 (고려 997년)
구경 21.2-27.2 높이 8.5-11.7 사늬사지

사늬사의 청동발루 외에도 금속으로 제작된 발루 중에는 1150년에 제작된 청동발루가 있다. 명문의 皇統十年이라 적고 있어 1150년임을 알 수 있다.(도 7)

고려시대에는 이러한 금속의 발루 외에 도자기로 제작된 발루를 사용하였다. 도자기로 제작된 발루는 1 조가 온전히 전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단편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외발의 경우에도 청자로만 제작된 것이 아니라, 白磁와 黑釉로도 제작되었다. (도 8)

발루의 쓰임새

발루는 일반적으로 승려의 식기를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托鉢을 행할 때, 불전에 공양드릴 때 사용하기도 하였다.

스님에게 음식을 시주하는 것을 “供養”한다고 한다.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기원하는 의식의 절차로 齋食을 베푸는 행사가 飯僧이다.

11세기 경부터 고려에서는 仁王會가 빈번하게 개최되었다.⁵⁾ 인왕회는 고려에서 개최된 모든 불교의례들 중 세 번째로 자주 열린 의례로서 정기의례와 특별의례의 두 종류가 있었다.⁶⁾ 고려의 인왕회는 百高座, 백좌회, 백고좌회, 백좌도량, 백고좌도량, 백좌법석, 인왕법회, 인왕도량, 인왕경도량, 백좌인왕회, 백좌인왕도량, 백좌인왕경도량, 인왕백좌도량 등 여러



도 7) 皇統十年銘청동발루, 고려(1150) 청자 운천동 높이 13.5 국립청주박물관



도 7-1) 명문

가지 이름으로 불렸다. 2~3년에 한번 개최되는 정규 인왕회에서는 승려들에게 채식이 제공되었는데, 이것을 飯僧이라고 불렀다. 이 과정에서 임금은 반송을 친히 행하고 향을 피웠다. 이렇게 왕실의 후원 아래 개최된 불교의례로서 개최 장소는 주로 궁전이었다. 그리고 수도와 지방의 큰 절에 사는 승려들에게는 대규모의 반송이 행해졌다.⁷⁾

이러한 의례를 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고, 의례와 관련된 물품이 필요하게 된다.『高麗史』에 따르면,

5. 10세기 초기부터 11세기 초까지는 인왕회가 열렸다는 기록이 없으며, 기록상 고려의 첫 인왕회는 1012년 5월에 열렸다. 11세기 후기부터 14세기 초까지 인왕회가 자주 개최되었는데, 속중, 예중, 인중 등이 이 의례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
6. 인왕회는 동아시아 불교전통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불교의례였다. 이 의례의 소의 경전은 『仁王經』이었는데, 고려에서 가장 권위있는 호국 경전으로 간주되었으며, 의례 개최일에는 승려들이 이 경에 대한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7. 고려 인왕회의 절차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을 통하여 그 절차의 일부나마 살펴볼 수는 있다. 인왕회 개최일에는 백 개의 사자좌가 궁전 뜰에 설치되었으며, 승려들은 『인왕경』을 3일 동안 강의하였다. 그리고 임금은 반송을 친히 행하고 향을 피웠다. 중영, 『한국 중세의 불교의례』, 문학과 지성사, 2001; 안지현,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도 8) 黑釉 발우, 고려 높이 7.0 구경 18.2 오사카동양도자미관

의례의 비용은 관리들과 백성들로부터 추렴된 것으로, 왕실의 요청에 따라 관리나 백성들도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여겨진다.⁸⁾

12세기, 서궁의 『고려도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려청자는 당시 금은기에 버금가는 고급기물이었다. 이러한 청자로 제작된 발우는 반송을 행하는 왕실의 요청에 따라 귀족, 관리들이 왕실에 납(納)하였을 가능성도 염두해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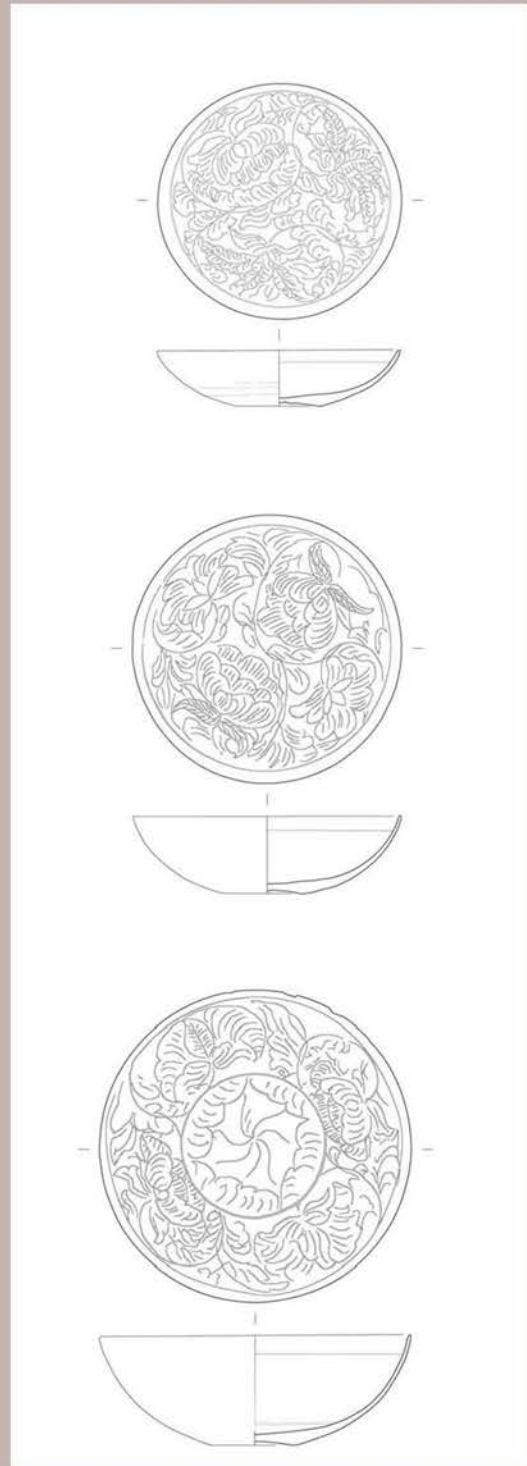
개성으로 향하던 150점이 넘는 대량의 발우가 태안 대섭에서 확인되어 그 유통관계를 보여주며, 더불어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해음원에서 발견된 70점이 넘는 발우도 이러한 청자발우의 수요에 대한 가정을 가능케 한다.⁹⁾

2. 유적 출토 청자발우

태안 대섭 출토 청자발우

2007~8년 충남 태안군 대섭 수증발굴에서 인양된 3만여 점의 도자기 중에, 상태가 양호한 도자기는 2만 3천여 점이다. 점사와 대접이 다수를 차지하며, 일부 특수한 유물들이

도면1) 태안 대섭 출토 청자발우 (3합 발우)



8. 김종명, 위의 책, 2001.

9. 해음원의 기본 시설은 1122년에 완성되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1144년 인종과 인종비 임씨가 해음원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자로 등장하게 되면서 院이 새로운 면모를 갖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1122년이 아닌 1144년에 김부식에 의해 『惠陰院址新創記』가 작성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음원에서 출토되는 양질의 청자는 왕실의 본격적인 후원이 있었던 1144년부터 대량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의종연간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파주 해음원지 발굴조사 중간보고서』(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파주시, 2003), pp. 31-36, 146-147.

표 1) 태안 대섬 출토 청자발우의 수량

1 組당 點 수 (점)	組 수 (조)	點 수 (점)	비고
3	39	117	
4	8	32	
유실	4	8	2점씩 남아 있음.
합계	51	157	

수습되었고, 그 중 발우는 약 157 점이 수습되었다.

3~4개가 1組를 이루는 청자발우들이 수습 점 포개져서 발견되었는데, 기물과 기물사이를 짚으로 채워서 포장하였다. 다른 기물에 비해 정성스럽게 포장하였으며, 발우의 질도 대체로 좋은 편이다.

지금까지 확인되어 정리된 청자발우는 51組로 총 157點이다.¹⁰⁾ 3점이 1조를 이루는 경우가 39조, 4점이 1조를 이루는 경우가 8조, 유실되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4조이다.

합 발우가 전체의 76%, 4합 발우가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전 상에 기록된 4합 발우 외에도 3합 발우가 많이 제작,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고려시대 스님들의 상차림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출토된 발우들을 보면, 문양이 있는 경우와 문양이 없는 경우, 문양이 있는 발우와 없는 발우가 섞여서 한 조를 이루는 경우로 나뉜다.¹¹⁾ 문양이 있는 경우가 14 조, 문양이 없는 경우가 32 조, 문양이 있는 발우와 없는 발우가 한 조를 이루는 경우가 5 조이다. 무문으로만 구성된 조합은 전체의 63%에 해당한다. 4합 발우의 경우는 대부분이 무문이며, 1 조만 문양있는 발우가 1점 섞여 있다.

3합 발우에 시문된 문양은 모란당초문, 화당초문, 국당초문으로 모두 음각기법을 사용하였다. 거의 예외없이 제일 큰 발우에만 내저원각선이 있고 다른 발우에는 원각선이 없다. 내저원각선 안에는 하엽문이 시문되어 있는 공통적인 형태가 나타난다.

표 2) 태안 대섬 출토 청자발우의 크기

구성	구경	저경	높이	
1 器	小 ↓ 大	16.4	4.7	4.3
2 器		17.7	4.9	5.6
3 器		19.3	5.3	7.3
4 器		19.8	5.4	8.0

(단위 : cm / 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시문된 문양을 잘 살펴보면, 모란과 화당초문이 섞여서 시문되기도 하며, 일부는 명칭을 알 수 없는 꽃무늬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태안에서 발견된 대접에 시문된 문양과 유사성이 발견되어, 태안출토의 청자발우가 공반하는 접시와 같은 요장에서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태토와 유색이 좋고, 시문도 정성들여한 고급의 기물들이다.(도면 1)

구경은 16.4에서 19.8cm 정도이다. (표 2)은 청자발우 157점의 구경과 저경, 높이의 평균이다.



도 9) 평저의 경우

도 10) 속굽인 경우

굽은 두 가지 형태로 확인된다. 평저로 별도의 굽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와 속을 파낸 속굽이 있다. 평저의 경우에는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도빚음 4~5개를 받쳐서 번조하였으며, 발우의 질도 좋다.(도 9) 하지만 속굽인 경우에는 태토도 정선되지 않고 시유상태가 불량하며 유색도 좋지 않다. 이렇게 속굽으로 처리한 발우는 소량만이 확인되었으며, 그 중에 문양이 있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 별도로 굽을 닦아내지 않고, 내화도빚음을 받쳐서 번조하였다.(도 10)

10. 이 수량은 현재까지 정리된 발우의 수량으로, 날개로 흩어진 경우는 일부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차후 발간될 보고서의 유물 수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11. 무문과 유문이 섞여 있는 경우는 수습과정에서 섞여 수습되었을 가능성과 선적 당시부터 문양 유무에 관계없이 한 조로 포장되었을 가능성, 양자 모두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도 11) 혜음원지 출토 청자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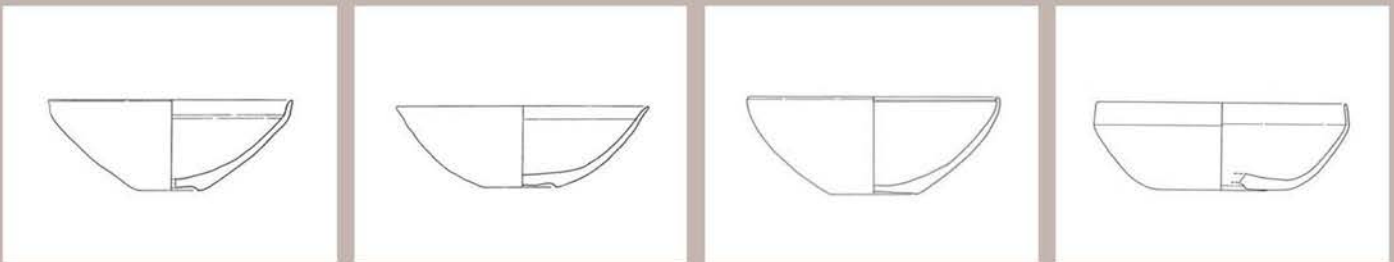
태안 대섬 출토 유물은 약 12세기 중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져, 이 시기의 청자발우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¹²⁾ 이 시기의 청자발우는 4합 발우보다는 3합 발우가 더 많이 제작되었으며, 무문인 경우가 많다. 굽은 평저나 속굽으로 처리하여 발우를 포개기 좋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태토수비에서 번조까지 공들여서 제작된 12세기 중반의 고급기종임을 태안 대섬 출토 발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혜음원지 출토 청자발우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혜음원지는 睿宗 15년(1120)에 공사를 시작하여 1122년에 완공된 고려의 寺院 유적이다. 이 유적의 상한은 12세기 전반인 1122년이지만, 혜음원이 왕실의 후원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것은 1144년이다. 혜음원은 기록을 통해서 12세기 중반에서 13세기 초반 경까지 왕실의 후원에 힘입어 활발히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³⁾

혜음원지 출토 자기류는 왕실의 후원을 반영하듯, 12세기 중반~13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良質의 자기편들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청자들은 압출양각과 상감기법으로 시문된 청자들이 확인되며, 번조받침은 규석받침과 모래, 모래섞인 내화토받침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 유적에서 청자발우가 총 77점이 확인되었다.¹⁴⁾ (도 11)

조합양상을 보고서를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4합 발우도 출토되었다고, 보고서에서 언급하였다. 3~4합 발우가 출토되었다고 전제하면, 대략 20~25조 정도의 발우가 출토된 것으로 추정된다. 굽은 안굽과 평저로 나뉘며, 번조 시에 규석을 사용한 것은 4점이며, 나머지는 내화토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압출양각으로 포도당초문 등의 초화문을 시문한



도면 2) 강진 용운리 10호 출토 발우

12. 태안 대섬 출토 청자를 편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상감청자가 출토되지 않은 절과 백색 내화토빛음을 사용한 절, 문양과 시문기법 등을 통해 볼 때, 용운리 10호 II층 가 유형과 유사점이 많다. 國立中央博物館, 『康津龍雲里靑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圖版編・本文編(1997・1998) 용운리 10호 II층 가 유형은 12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연구되고 있어 편년에 참고할 수 있다. 더불어 태안에서 출토된 통형잔의 경우, 1146년 허한의 전 인종장릉 출토 통형잔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므로 이와 유사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본다. 강진지역에서 조사된 청자들과 그 형태와 특징이 유사하여 강진 생산품으로 이미 앞서 추정하였는데, 공반 출토된 목간의 “耽津”이라는 명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특히 용운리 출토 유물들과의 유사성이 다수 확인되어, 용운리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청자대접 지부의 “O”, “X” 표시와 함께 출토된 소형의 백자합 등 을 고려할 때, 강진의 용운리 외에도 강진의 다른 지역 요장에서 제작된 기물이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3. 혜음원지에서 출토되는 양질의 청자는 왕실의 본격적인 후원이 있었던 1144년부터 대량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의종연간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허한 연대는 몽고침입기에 개경을 비롯한 경기 일대의 침탈이 극심했다는 기록과 13세기 중반 이후의 특징을 갖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 것으로 보다 13세기 초반 경(1231년)에는 그 사용이 불가능했으리라 보았다.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파주시, 위의 보고서, pp. 146-147.

14.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파주시, 위의 보고서, pp. 146-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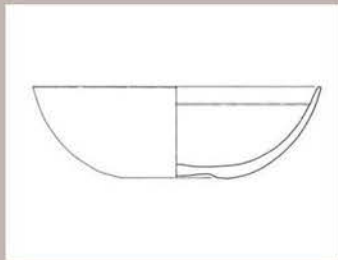
경우도 있으나 90%이상이 무문이다. 포도당초문이 압출양각된 점과 규석받침이 사용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태안 대섬 발우보다는 늦은 시기인 12세기 후반 이후의 유물로 여겨진다.

기형 상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구경이 12.8에서 16.4cm 정도로 태안에서 발굴된 발우보다 크기가 작음을 알 수 있다.(표 3) 더불어 시문기법에서는 압출양각이 새롭게 사용되었다.

가마터 출토 청자발우

강진 용운리와 삼흥리, 사당리 등에서 청자발우 편들이 확인된다. 보고서에서는鉢로 분류되어 별도의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공통적으로 반구형의 굽이 없는 발우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강진 용운리 10호 I 층에서 구경이 14.4 ~ 21.6cm 정도의 청자 발우가 5점 출토되었다. 앞의 층위인 용운리 9호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기형들로 용운리 10호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기형이다. 이들은 백색내화토빛음이나 내화토 모래빛음을 사용하여 번조하였다. 이는 태안 대섬의 발우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형 면에서 태안 유물에 비해 기고가 높고 기벽이 사선을 이루는 편이다. 또, 대섬 발우보다 크기가 조금 크다.(도면 2, 3)



도면 3) 강진 삼흥리 E지구 출토 발우

강진 용운리의 발우를 볼 때, 같은 시기에도 세부형태가 다른 발우들이 동시에 생산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조형이 금속 발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단순히

기형을 통해서 발우의 편년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청자발우가 확인되는 또 다른 요지는 강진 삼흥리 E지구이다.¹⁵⁾ 삼흥리 출토 청자발우는 내화토빛음 받침을 이용한 1



도 12) 靑磁象嵌 '癸丑年造上 大聖之鉢' 銘鉢
高 8.3cm, 口徑 25.1cm, 底徑 6.6cm 국립중앙박물관

유형에 해당하며 높이 5.2cm, 구경 20.7cm, 저경 5.4cm이다. 용운리 출토 발우보다 태안 대섬 출토 발우와 기형이 유사하지만, 태안출토 발우의 기형이 보다 원형에 가까우며 양감이 있고, 문양을 시문한 형상 등으로 보아 강진 용운리 10-1호나 삼흥리 1유형보다는 시기가 늦은 것으로 사료된다.

청자발우 중에는 干支가 있는 발우가 있다. 靑磁象嵌 '癸丑' 銘鉢은 안굽으로 접지면에 굽은 모래 섞인 내화토를 받쳤고, 외측면에 두 줄로 "癸丑年造上 大聖之鉢" 이라고 흑상감이 되어 있다.(도 12)

癸丑을 11세기 후반인 1073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상감기법을 사용한 점과 번조받침을 고려해보면 12세기 후반인 1193년의 유물로 여겨진다.¹⁶⁾ 계축명 발우는 도자기로 제

15. 國立光州博物館, 『康津 三興里窯址 Ⅱ』, 2004.
16. 정남원, 『고려중기청자연구』, 해안, 2006, pp.299-302.



도 13) 靑磁象嵌牡丹折枝文鉢盂
高 4.4-7.3cm, 口徑 16.1-18.9cm, 底徑 5.9-6.1cm 리움미술관

작된 발우 중에 큰 편에 속하는데, 이 발우의 경우에는 구연 부가 꺾여서 내만하는 형태로 금속제의 영향이 확인된다. 大聖을 위한 발우였음으로 다른 기종의 청자들처럼 금속제기류를 모방하여, 조형과 크기 면에서 금속제 발우와 유사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본래 경전에서는 발우에 포도문이나 연화문 등의 문양을 금하였으나, 실제 전래되는 기물에는 문양이 시문된 경우들이 많다.¹⁷⁾ 포도문을 압출양각으로 시문하거나, 상감기법을 이용하여 문양을 시문하는 경우들이 확인된다. (도 13)

청자상감모란절지문발우 외에도 상감기법으로 문양을 시문하고, 외면을 역상감으로 장식한 발우들이 제작되었다. 둥근 몸체와 별도의 굽을 처리하지 않은 형식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조형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13세기의 발우들이 12세기 청자발우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문양이 화려해지고, 기물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것이다.

IV. 맺음말

본 고에서는 발우의 유래와 재질 등을 살펴보았으며, 그 쓰

임새를 托鉢, 고려의 飯僧과 연관하여 그 가능성을 제시해 보았다. 또, 태안에서 발굴된 청자발우를 중심으로 유적 출토 품과 요지 출토품, 편년에 참고가 되는 기타 편년 유물들을 통해서, 고려의 청자발우의 양상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청자발우는 12세기 경부터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며, 13세기에는 압출양각이나 상감기법으로 장식하여 더욱 화려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전반적으로 장식성이 부각되는 반면에 발우의 크기는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발우의 조형은 만다라를 상징하는 원형을 기본으로 하며, 굽은 별도로 처리하지 않았다. 발우는 이처럼 정형화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시기에 따른 기형 상의 특징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기물의 크기가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경전에서는 금했으나 문양의 음각, 양각, 상감으로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더불어 청자 외에도 흑유나 백자로도 발우가 제작되었다.

발우에 대해 알려진 자료와 연구 성과들이 아직 빈약하여, 앞으로 발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세밀한 고찰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중국 寺龍口 越窯址에서도 발우로 볼 수 있는 기형의 발들이 제작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비교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17. 『四分律』 제 51권.

유물목록 List of Plates

001

목간 木簡

Wooden tag

17.6×2.2×0.3cm / 중국 원(1323년) / 신안 해저 / 국립중앙박물관

002

목간 木簡

Wooden tag

19.8×3.4×0.7cm / 중국 원(1323년) / 신안 해저 / 국립중앙박물관

003

목간 木簡

Wooden tag

37.7×4.4×0.8cm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04

목간 木簡

Wooden tag

29.4×3.2×0.9cm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05

목간 木簡

Wooden tag

17.3×2.1×1.0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06

목간 木簡

Wooden tag

29.4×3.2×0.9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07

목간 木簡

Wooden tag

29.0×4.0×1.0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08

목간 木簡

Wooden tag

26.0×4.0×0.8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09

목간 木簡

Wooden tag

15.5×1.8×0.8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10

목간 木簡

Wooden tag

10×3.8×0.4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11

목간 木簡

Wooden tag

29.7×3.2×0.9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12

목간 木簡

Wooden tag

22.7×3.1×0.6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13

괘기목 櫛

Wedge

37.3×4.1×1.1 / 고려 12세기 / 태안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14

괘기목 櫛

Wedge

28.9×4.1×0.9 / 고려 12세기 / 태안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15

청자 파편 靑磁片

Celadon fragments

고려 / 강진 용운리 / 강진청자박물관

016

청자 파편 靑磁片

Celadon fragments

고려 / 강진 계율리 / 강진청자박물관

017

청자 파편 靑磁片

Celadon fragments

고려 / 강진 사당리 / 강진청자박물관

018

청자 파편 靑磁片

Celadon fragments

고려 / 강진 사당리 / 강진청자박물관

019

청자 파편 靑磁片

Celadon fragments

고려 / 강진 수동리 / 강진청자박물관

020

청자 파편 靑磁片

Celadon fragments

고려 / 강진 삼흥리 / 강진청자박물관

021

청자 완 靑磁 盥

Celadon bowl

5.3 / 고려 11세기 / 강진 삼흥리 E지구 / 국립광주박물관

022

청자 접시 靑磁 碟匙

Celadon dish

3.7 / 고려 10세기 / 강진 용운리 9호 / 국립광주박물관

023

청자 연꽃모양 향로 靑磁蓮花形 香爐 片
Celadon lotus shaped incense burner
8.3 / 고려 12세기 / 강진 / 개인

024

청자 모란무늬 매병 靑磁陰刻牧丹文 梅瓶 片
Celadon bottle, Maebyeong with incised peony design
고려 12세기 / 강진 사당리 23호 / 강진청자박물관

025

청자 모란무늬 판 靑磁象嵌牧丹文 板 片
Celadon plate with inlaid peony design
11.0 / 고려 13세기 / 강진 사당리 / 강진청자박물관

026

청자 '기사' 명 대접 靑磁象嵌 '己巳' 銘柳蘆水禽文 大椀
Celadon bowl with inlaid inscription of '己巳'
5.5 / 고려 1329 / 강진 사당리 / 강진청자박물관

027

청자 '정해' 명 파편 靑磁象嵌 '丁亥' 銘片
Celadon fragment with inlaid inscription of '丁亥'
6.7 / 고려 1347 / 강진 사당리 / 강진청자박물관

028

청자 파도무늬 완 靑磁陰刻波濤文 盞
Celadon bowl with incised wave design
고려 12세기 / 강진 용운리 23호 / 강진청자박물관

029

청자 파도무늬 완 靑磁陰刻波濤文 盞
Celadon bowl with incised wave design
15.3×3.9×5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30

청자 앵무새무늬 접시 초벌 편 靑磁陰刻鸚鵡文 碟匙
Celadon dish with parrot design
3.9 / 고려 12세기 / 강진 사당리 7호 / 강진청자박물관

031

청자 앵무새무늬 접시 靑磁陰刻鸚鵡文 碟匙
Celadon dish with parrot design
3.7 / 고려 12세기 / 강진 삼흥리 E지구 / 국립광주박물관

032

청자 앵무새무늬 접시 靑磁陰刻鸚鵡文 碟匙
Celadon dish with parrot design
16.1×5×8.5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33

청자 연꽃잎무늬 대접 靑磁陽刻蓮瓣文 大椀
Celadon bowl with incised lotus-petal design
16.7×6×7.5 / 고려 12세기 / 강진 용운리 62호 / 강진청자박물관

034

청자 연꽃잎무늬 대접 靑磁陽刻蓮瓣文 大椀
Celadon bowl with incised lotus-petal design
16.1×4.9×8.5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35

청자 연꽃무늬 소접시 靑磁陽刻蓮花文 小碟匙
Celadon flower shaped dish with pressed lotus design
3.9×3.5 / 고려 12세기 / 강진 용운리 25호 / 강진청자박물관

036

청자 연꽃무늬 소접시 靑磁陽刻蓮花文 小碟匙
Celadon flower shaped dish with pressed lotus design
2.7 / 고려 12세기 / 강진 용운리 10호 / 국립광주박물관

037

청자 연꽃무늬 소접시 靑磁陽刻蓮花文 小碟匙
Celadon flower shaped dish with pressed lotus design
9.8×4.5×2.3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38

청자 국화넝쿨무늬 완 靑磁陽刻菊唐草文 盞
Celadon bowl with pressed chrysanthemum scroll design
15.8×4×5.6 / 고려 12세기 / 강진 계율리 42호 / 강진청자박물관

039

청자 국화넝쿨무늬 완 靑磁陽刻菊唐草文 盞
Celadon bowl with pressed chrysanthemum scroll design
15.6×3.6×5.1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40

청자 국화넝쿨무늬 완 靑磁陰刻菊唐草文 盞
Celadon bowl with incised chrysanthemum scroll design
6.1 / 고려 12세기 / 강진 용운리 10호 / 국립광주박물관

041

청자 국화넝쿨무늬 완 靑磁陰刻菊唐草文 盞
Celadon bowl with incised chrysanthemum scroll design
9.8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42

청자 꽃모양 접시 靑磁花形 碟匙
Celadon flower shaped dish
2.2 / 고려 12세기 / 강진 용운리 10호 / 국립광주박물관

043

청자 꽃모양 접시 靑磁花形 碟匙
Celadon flower shaped dish
10.8×3.1×2.5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44

청자 퇴화장식 접시 靑磁堆花文 碟匙
Celadon thickly painted a dish
4.3 / 고려 12세기 / 강진 계율리 37호 / 강진청자박물관

045

청자 퇴화장식 접시 靑磁堆花文 楪匙
Celadon thickly painted a dish
13.6×3.6×3.8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46

청자 철화장식 잔 뚜껑 靑磁鐵畫文 盞蓋
Celadon cup cover with underglaze iron-painted
2.7 / 고려 12세기 / 강진 용운리 10호 / 강진청자박물관

047

청자 철화장식 잔 뚜껑 靑磁鐵畫文 盞蓋
Celadon cup cover with underglaze iron-painted
10.3×8.1×3.3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48

청자 병 靑磁 油瓶
Celadon bottle fragment
7.3 / 고려 12세기 / 강진 삼흥리 E지구 / 국립광주박물관

049

청자 병 靑磁 油瓶
Celadon bottle
8.6 / 고려 12세기 / 강진 용운리 10호 / 국립광주박물관

050

청자 병 靑磁 油瓶
Celadon bottle
3.1×7.2×2.8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51

백자 합 白磁 盒身
White porcelain case
6.8×5.7×2.5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52

청자 기와 靑磁 瓦
Celadon tile
20.3 / 고려 1157년경 / 강진 사당리 / 국립중앙박물관

053

청자 기와 靑磁 瓦
Celadon tile fragment
5.8 / 고려 12세기 / 강진 삼흥리 E지구 / 국립광주박물관

054

청자 참외모양 병 靑磁瓜形 瓶
Celadon melon shaped bottle
8.8×8.8×22.7 / 1146년 하한 / 전 인종장릉 / 국립중앙박물관

055

청자 국화모양 합 靑磁菊形 盒
Celadon chrysanthemum shaped case
9.4 / 1146년 하한 / 전 인종장릉 / 국립중앙박물관

056

청자 사각모양 합 靑磁方形 盒
Celadon Square shaped case
15.5×8.6 / 1146년 하한 / 전 인종장릉 / 국립중앙박물관

057

청자 잔 靑磁 盞
Celadon cup with a lid
10.5×9.7 / 1146년 하한 / 전 인종장릉 / 국립중앙박물관

058

청자 잔 靑磁 盞
Celadon cup with a lid
잔 / 11×4.2×7.2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59

청자 잔 뚜껑 靑磁 盞
Celadon lid
뚜껑 / 11.5×8.8×3.2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60

청자 잔 뚜껑 靑磁 盞
Celadon lid
10×7.2×3.5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61

청자 파도무늬 완 靑磁陰刻波濤文 盃
Celadon bowl with incised wave design
14.8×3.6×4.5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62

청자 파도무늬 완 靑磁陰刻波濤文 盃
Celadon bowl with incised wave design
15.3×3.9×5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63

청자 파도물고기무늬 완 靑磁陰刻波魚文 盃
Celadon bowl with incised wave and fish design
15.3×3.9×4.9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64

청자 파도물고기무늬 완 靑磁陰刻波魚文 盃
Celadon bowl with incised wave and fish design
16×4.2×5.4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65

청자 파도물고기무늬 완 靑磁陰刻波魚文 盃
Celadon bowl with incised wave and fish design
15.3×3.9×4.7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66

청자 파도물고기무늬 완 靑磁陰刻波魚文 盃
Celadon bowl with incised wave and fish design
15.8×4.1×5.3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67

청자 앵무새무늬 대접 靑磁陰刻鸚鵡文 大椀
Celadon bowl with incised parrot design
18.2×5.6×7.8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68

청자 앵무새무늬 대접 靑磁陰刻鸚鵡文 大椀
Celadon bowl with incised parrot design
18.1×5.3×7.4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69

청자 앵무새무늬 접시 靑磁陰刻鸚鵡文 椀匙
Celadon dish with incised parrot design
16.1×5×8.5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70

청자 앵무새무늬 접시 靑磁陰刻鸚鵡文 椀匙
Celadon dish with incised parrot design
16.2×5.2×4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71

청자 앵무새무늬 접시 靑磁陰刻鸚鵡文 椀匙
Celadon dish with incised parrot design
16.4×4.6×4.9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72

청자 앵무새무늬 접시 靑磁陰刻鸚鵡文 椀匙
Celadon dish with incised parrot design
16.2×5×4.5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73

청자 새구름무늬 완 靑磁陰刻鳥雲文 盃
Celadon bowl with inlaid bird and cloud design
13.4×3.5×4.9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74

청자 연꽃잎무늬 접시 靑磁陽刻蓮瓣文 椀匙
Celadon dish with incised lotus-petal design
16×4.5×4.5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75

청자 연꽃잎무늬 대접 靑磁陽刻蓮瓣文 大椀
Celadon bowl with incised lotus-petal design
A / 16×4.8×8.6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76

청자 연꽃잎무늬 대접 靑磁陽刻蓮瓣文 大椀
Celadon bowl with incised lotus-petal design
16.1×4.9×8.5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77

청자 연꽃무늬 접시 靑磁陰刻蓮花文 椀匙
Celadon dish with incised lotus design
17.6×4.8×4.1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78

청자 연꽃무늬 접시 靑磁陰刻蓮花文 椀匙
Celadon dish with incised lotus design
A / 17.6×5×4.2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79

청자 연꽃무늬 접시 靑磁陰刻蓮花文 椀匙
Celadon dish with incised lotus design
17.6×4.9×4.1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80

청자 연꽃무늬 접시 靑磁陰刻蓮花文 椀匙
Celadon dish with incised lotus design
13.8×3.6×3.6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81

청자 연꽃무늬 뚜껑 靑磁陰刻蓮花文 蓋
Celadon bowl with a lid, incised lotus design
10.1×7.9×2.2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82

청자 연꽃무늬 소접시 靑磁陽刻蓮花文 小椀匙
Celadon dish with incised lotus design
9.5×3.5×2.7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83

청자 연꽃무늬 소접시 靑磁陽刻蓮花文 小椀匙
Celadon dish with incised lotus design
9.8×4.5×2.3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84

청자모란무늬 대접 靑磁陽刻牡丹文 大椀
Celadon bowl with incised peony design
19.5×5.2×6.2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85

청자 모란무늬 접시 靑磁陽刻牡丹文 椀匙
Celadon dish with incised peony design
16.5×4.8×3.7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86

청자 모란무늬 대접 靑磁陰刻牡丹文 大椀
Celadon bowl with incised peony design
18.4×5×6.6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87

청자 모란무늬 대접 靑磁陰刻牡丹文 椀匙
Celadon bowl with incised peony design
18.5×4.6×6.1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88

청자 모란무늬 접시 靑磁陰刻牡丹文 椀匙
Celadon dish with incised peony design
15.7×4.6×4.1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89

청자 모란무늬 소접시 靑磁陽刻牡丹文 小碟匙
Celadon dish with incised peony design
9.5×3.1×2.6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90

청자 국화넝쿨무늬 완 靑磁陽刻菊唐草文 盥
Celadon bowl with incised chrysanthemum scroll design
16.1×3.6×5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91

청자 국화넝쿨무늬 소접시 靑磁陽刻菊唐草文 小碟匙
Celadon dish with incised chrysanthemum scroll design
10×2.8×2.4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92

청자 국화넝쿨무늬 대접 靑磁陰刻菊唐草文 大椀
Celadon bowl with incised chrysanthemum scroll design
18.8×5.1×6.1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93

청자 꽃무늬 대접 靑磁陰刻花文 大椀
Celadon bowl with incised flower design
18.9×4×6.8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94

청자 꽃무늬 접시 靑磁陰刻花文 碟匙
Celadon dish with incised flower design
17.7×5×3.8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95

청자 꽃무늬 접시 靑磁陰刻花文 碟匙
Celadon dish with incised flower design
18.2×4.9×4.2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96

청자 꽃넝쿨무늬 대접 靑磁陰刻花唐草文 大椀
Celadon bowl with incised plant scroll design
18.2×4.7×6.7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97

청자 꽃넝쿨무늬 접시 靑磁陰刻花唐草文 碟匙
Celadon dish with incised plant scroll design
18.5×4.6×3.9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98

청자 퇴화장식 접시 靑磁堆花文 碟匙
Celadon dish with thickly painted
13.6×4.1×3.2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099

청자 퇴화장식 접시 靑磁堆花文 碟匙
Celadon dish with thickly painted
9.6×3.1×2.4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00

청자 퇴화장식 접시 靑磁堆花文 碟匙
Celadon dish with thickly painted
17.2×5×3.9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01

청자 철화장식 꽃모양 접시 靑磁鐵畫文花形 碟匙
Celadon dish with underglaze iron-painted
9.7×3.3×2.2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02

청자 철화장식 뚜껑 靑磁鐵畫文 蓋
Celadon lid with underglaze iron-painted
10.1×10.8×1.8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03

청자 잔 靑磁 盞
Celadon cup cover with underglaze iron-painted
41.07×3.7×6.4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04

청자 꽃모양 대접 靑磁花形 大椀
Celadon bowl flower-shaped
20.3×5.3×6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05

청자 대접 靑磁 大椀
Celadon bowl
14.2×3.6×3.1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06

청자 접시 靑磁 碟匙
Celadon dish
9.7×2.9×2.3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07

청자 접시 靑磁 碟匙
Celadon dish
14×3.7×3.4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08

청자 접시 靑磁 碟匙
Celadon dish
18.1×4.8×3.4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09

청자 참외모양 주전자 靑磁瓜形 注子
Celadon melon shaped pitcher
4.6×7.9×16.8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뚜껑 / 6.5×3.4×3.4

110

청자 잔 靑磁 盞
Celadon cup with a lid
11×4.2×7.2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뚜껑 / 11.5×8.8×3.2

111

청자 잔 靑磁 盞

Celadon cup with a lid

8.5×3.6×6.8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뚜껑 / 9.7×7.2×2

112

청자 잔 靑磁 盞

Celadon cup with a lid

8.5×4×6.6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뚜껑 / 9.7×7×2.3

113

청자 연잎무늬 완 靑磁 荷葉文 盥

Celadon bowl

11.3×3.1×4.5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14

청자 완 靑磁 盥

Celadon bowl

13.6×3.6×5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15

청자 완 靑磁 盥

Celadon bowl

12.7×4.2×5.7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16

청자 완 靑磁 盥

Celadon bowl

14.1×3.9×4.4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17

청자 소호 靑磁 小壺

Celadon small jar

7.1×4.2×8.6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뚜껑 / 8.4×5.8×3

118

항아리 靑磁 缸

Celadon jar

20.4×8.7×13.6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19

호 陶器 壺

Earthenware jar

10×11.4×22.7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호 陶器 壺

Earthenware jar

12.1×19×32.5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호 陶器 壺

Earthenware jar

14.5×17.2×35.1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0

백자 합 白磁 盒身

White porcelain case

6.8×5.7×2.5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1

청자 합 靑磁 盒

Celadon case

6×3.9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2

청자 합 靑磁 盒

Celadon case

6.2×4.2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3

청자 합 靑磁 盒

Celadon case

6×3.6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4

청자 병 靑磁 油瓶

Celadon bottle

2.5×4.8×3.1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5

청자 병 靑磁 油瓶

Celadon bottle

3.1×7.2×2.8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6

청자 두꺼비모양 버루 靑磁 堆花文蟾形 硯

Celadon ink-stone a toad

13.9×6.8×6.4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7

청자 사자장식 향로 靑磁 獅子形 香爐

Celadon lion shaped incense burner

13.7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향로 / 15.6×8.2

128

청자 바루 靑磁 鉢盂

Celadon bowl -Patra

16.4×5.4×4.2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7.8×4.8×5.2 / 19.5×5×7.1

129

청자 바루 靑磁 鉢盂

Celadon bowl -Patra

14.6×4.4×2.9 / 고려 12세기 / 태안 해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9.1×5.7×6.7 / 20.1×5.6×8.1

고려청라 보물선

강진, 태안, 그리고...

- 총괄** 성낙준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
- 기획** 류춘규 (전시홍보과장)
- 전시**
연출_ 이철한 김병근 박예리
전시_ 박예리 주영선 문정현
유물_ 박지영 도의철
홍보_ 김병근 도의철 박순홍 이은선
자료_ 수중발굴과 해양유물연구과
- 도록**
편집_ 이철한 박지영
본문_ 김병근 박지영 박예리
 문환석(수중발굴과장) 양순석 정용화
교정_ 박지영 김자람 박주경
- 유물대여** **강진청자박물관**
- 자료제공** **강진청자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목포대학교박물관
삼성 리움
예맥출판사
- 촬영** 이진호 (Feel스튜디오)
- 출력** 대륙칼라
- 인쇄** 삼화인쇄 주식회사

제작 [주]씨티파트너
100-834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77-47
Tel 02,2232,8877 Fax 02,2232,8988

ISBN 978-89-960200-3-5 93900
가격 30,000원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2008 국립해양유물전시관
designed by CiTipartner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
National Maritime Museum